

국립국어원 2009-01-75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169-0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으로 수행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사업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일

(재)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연구책임자 : 오광근

공동연구원 : 김유정, 진대연

연구보조원 : 박지순, 류은정,

김정현

국문 초록

본 과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양성과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 양성과정 기관 대상 설문 조사, 양성과정 심층 면접 조사, 양성과정 기관 운영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지침의 기본 내용을 마련하였다.

표준 운영 지침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강사진, 기관 운영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구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의 '교육 기간', '1일 교육 시간', '총 교육 시간'이다. 표준 운영 지침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수자들이 예비 한국어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절대 시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교육 운영' 중에서는 '강의 수준', '교과목명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 일치' 등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표준 운영 지침에서는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모든 담당 강사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강의안을 제출하게 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강사 위촉 시 이들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몇 명 이상의 강사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등의 지침도 함께 마련하였다.

'교육 환경'에서는 '교육 기자재 활용에 대한 만족도'나 '수강 인원 대비 강의실 크기 만족도' 등이 주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지침에서는 양성과정의 교육 기본 시설로 기자재를 갖춘 전용 강의실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 교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데 교육실습 과목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하여 지침에서는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의 학습 대상, 환경 그리고 횟수와 교육실습 시 강의 전후의 지도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이번에 제시한 표준 운영 지침은 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성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이수자들의 요구와 양성과정의 운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양성과정에서 이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양질의 한국어교사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교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준 운영 지침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지침 개발 이후에는 양성과정에서 이 표준 운영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국어기본법 시행령, 필수이수시간, 필수이수과목, 교과목 편성, 평가,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1. 머리말	1
1.1. 조사 목적	1
1.1.1. 조사 배경	1
1.1.2. 목적 및 기대 효과	2
1.2. 조사 내용 및 방법	3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현황	7
2.1. 양성과정 개요	7
2.1.1. 현황	7
2.2. 조사 개요 및 결과	13
2.2.1. 이수자 설문 조사	13
2.2.2. 기관 설문 조사	29
2.2.3. 심층 면접	34
2.2.4. 기관 운영 현황 조사	48
2.2.5. 종합	61
3. 주요 항목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65
3.1. 교육과정	65
3.1.1.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65
3.1.2. 교과목 편성 - 영역별 분포	73
3.1.3. 교재	75
3.2. 수업	77
3.2.1. 교과목의 내용	77
3.2.2. 강의 참관/모의 수업/강의 실습	79
3.3. 평가	86
3.3.1. 출석 관리	86
3.3.2. 시험 / 실습 평가	87
3.3.3. 수료 기준	89

3.4. 강사진 및 강사진 구성	91
3.4.1. 강사진	91
3.4.2. 강사진 구성	93
3.5. 기관 운영	95
3.5.1. 강의실	95
3.5.2. 기자재	96
3.5.3. 기타	97
4. 표준 운영 지침의 내용	99
4.1. 표준 운영 지침의 구성	99
4.2. 표준 운영 지침의 세부 내용	100
4.2.1. 교육과정	100
4.2.2. 수업	101
4.2.3. 평가	103
4.2.4. 강사진	104
4.2.5. 기관 운영	105
5. 맺음말	107
 [부록]	
부록 1. 이수자 대상 설문지	113
부록 2. 기관 대상 설문지	122
부록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현황 양식	126
부록 4. 이수자 대상 설문 통계	131
부록 5. 기관 대상 설문 통계	167
부록 6. 양성과정 기관 목록	174

〈표 1〉 응시자 대상 설문 조사 개요	4
〈표 2〉 심층 면접 협조 기관의 지역적 분포	5
〈표 3〉 기관 현황 조사 - 운영 기관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	5
〈표 4〉 2009년 12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	7
〈표 5〉 양성과정의 지역별 개설 현황 및 성장률	9
〈표 6〉 2009년 12월 현재 - 운영 주체별 양성과정의 수	10
〈표 7〉 2009년 12월 현재 - 운영 방식별 양성과정 현황	10
〈표 8〉 이수자 설문 응답자의 특성별 분류	13
〈표 9〉 영역 및 항목별 이수자 만족도 현황	15
〈표 10〉 운영 주체별 이수자 만족도	16
〈표 11〉 항목별 이수자 만족도 순위	16
〈표 12〉 ‘교육 환경’ 세부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17
〈표 13〉 ‘교육과정’ 세부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19
〈표 14〉 실습 교과목의 경험 유무 - 운영 주체별	20
〈표 15〉 수료한 양성과정의 총 교육 시간	21
〈표 16〉 교육 시간의 적절성 - 교육 시간별	21
〈표 17〉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적절성 - 1일 평균 교육 시간별	22
〈표 18〉 1일 평균 교육 시간 - 응답자 특성별	23
〈표 19〉 수료한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 - 응답자별 특성	23
〈표 20〉 교육 기간의 적절성 - 교육 기관별	23
〈표 21〉 한국어교육 능력 향상에 있어 교과목 편성의 도움 정도 - 응답자 특성별	24
〈표 22〉 ‘교육 운영’ 세부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25
〈표 23〉 ‘학습 평가에 대한 결과 활용 적절성’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26
〈표 24〉 양성과정 이수 후 제공받은 정보의 종류(중복응답) - 응답자 특성별	26
〈표 25〉 ‘기타’ 세부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27
〈표 26〉 설문 협조 기관의 특성별 분류	29
〈표 27〉 한국어 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따른 양성과정별 중점 사항	30
〈표 28〉 ‘교과 운영’ 세부 항목 기관 만족도 - 운영 주체별	31
〈표 29〉 기타 항목의 세부 내용	33
〈표 30〉 심층 면접 협조 기관 - 지역적 분포 현황	35
〈표 31〉 기관 현황 조사에 응한 양성과정의 지역별, 유형별 현황	48
〈표 32〉 연간 양성과정 운영 횟수별 현황	49
〈표 33〉 학기 중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 현황	50
〈표 34〉 방학 중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 현황	51
〈표 35〉 학기 중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과 교육 시간대 현황	51
〈표 36〉 방학 중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과 교육 시간대 현황	52
〈표 37〉 양성과정의 총 이수시간 현황	52
〈표 38〉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현황	53

〈표 39〉 양성과정의 영역별 이수과목 수 현황	53
〈표 40〉 양성과정 실습 교과목 개설 현황 I	54
〈표 41〉 양성과정 실습 교과목 개설 현황 II	54
〈표 42〉 양성과정 ‘강의 참관’ 시수 현황	55
〈표 43〉 양성과정 ‘모의 수업’ 시수 현황	55
〈표 44〉 양성과정 ‘강의 실습’ 시수 현황	55
〈표 45〉 양성과정 요구 수강생 출석률 현황	56
〈표 46〉 양성과정 자체 평가 세부 항목 현황	56
〈표 47〉 양성과정 수료 시 평가 반영률 현황	57
〈표 48〉 양성과정의 수료 조건 현황	57
〈표 49〉 양성과정 강사 수 현황 I	58
〈표 50〉 양성과정 강사 수 현황 II	58
〈표 51〉 양성과정 평균 수강 인원과 강의실 규모	59
〈표 52〉 양성과정의 교재 현황	59
〈표 53〉 이수자와 기관의 실습 교과목 실습률 현황	63
〈표 5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68
〈표 55〉 정규 학위과정의 필수이수학점	69
〈표 56〉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	70
〈표 57〉 1일 교육 시간이 3~4시간인 경우 주당 교육 일수	70
〈표 58〉 양성과정의 시간대별 운영 수	70
〈표 59〉 영역별 교과목 미시행 기관 수	74
〈표 60〉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준수 현황	74
〈표 61〉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에 대한 이수자 만족도	78
〈표 62〉 실습 교과목 실시 여부에 대한 이수자 응답	79
〈표 63〉 최소한 120시간 이수 기준, 출석률 고려 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87
〈표 64〉 영역별 비중에 따른 강사의 적정 수	94
〈표 65〉 관련 영역별 강사진 구성	94

> > >

그림 차례

〈그림 1. 양성과정의 학기 중 교육 기간〉	65
〈그림 2. 양성과정의 방학 중 교육 기간〉	66
〈그림 3. 전체 교육 시간에 대한 만족도 1〉	66
〈그림 4. 전체 교육 시간에 대한 만족도 2〉	67
〈그림 5. 1일 총 교육 시간별 만족도 1〉	71
〈그림 6. 1일 총 교육 시간별 만족도 2〉	72
〈그림 7. 강의 참관에 대한 불만 사항〉	81
〈그림 8. 강사에 대한 불만 요인〉	92

1. 머리말

1.1. 조사 목적

1.1.1. 조사 배경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위과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복수전공·부전공으로 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이다. 둘째는 비학위과정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이수시간(120시간)으로 짜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약칭함)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이다.

2005년 7월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양성과정은 운영 주체와 운영 목적 등에 변화가 생겼다. 양성과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이전까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내에서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개설하여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이 당시의 수강자들은 갑작스럽게 한국어교육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거나 당장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 투입될 예비 교사들, 국외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교수 방법과 관련 지식 등을 배우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자격제도 시행 이후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에서는 물론, 공공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도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최근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사람들은 한국어교육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먼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늘어나는 한국의 실업률과 맞물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직후인 2006년에 실시한 양성과정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총 31개의 양성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09년 지금까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약칭함)의 시행 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시자의 수는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수료한 양성과정의 기관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제1회와 제3회 '검정시험'의 접수자들이 이수한 양성과정 기관 수는 각각 39개와 56개이고, 2009년 제4회의 경우는 6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양성과정이 증가한다는 추측만 무성할 뿐 현재 양성과정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운영되고 있고 그것들이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전혀 안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대학이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경우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어기본법령에서도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없다.

최근에 양성과정이 급증하면서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교육 현장이 왜곡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적인 운영 지침 개발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사전 조사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1.1.2. 목적 및 기대 효과

이 사업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양성과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어 예비 교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관련된 양성과정 운영 지침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한국어교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원 양성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조사 내용 및 방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현황 조사
- (2) 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
- (3) 양성과정 기관 설문 조사
- (4) 양성과정 심층 면접
- (5) 양성과정 운영 현황 조사

제2장에서는 위의 (1)에서 (5)의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양성과정의 운영자와 이수자의 입장을 구분하고 예비 한국어교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로 항목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현행 한국어교원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입체적으로 모색하며 나아가 ‘표준 운영 지침’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항목 및 그 항목과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 서술한 것은 ‘표준 운영 지침’의 실제 내용들이다. ‘표준 운영 지침’은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다. 지침은 이 사업의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5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만든 최종 결과물이다. 자문위원회는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 교수 및 양성과정 실무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문 회의는 총 3회 개최되었고 그 중에는 서면 검토가 한 번 포함되어 있다.

조사 내용을 제2장으로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현황 조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의 수가 얼마나 되며, 이 양성과정은 누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내 120시간 내외의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되 양성과정의 운영 방식별(온라인과 오프라인), 운영 주체별(대학 부설, 공공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등), 지역별(서울, 경기 등)로 구분한 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1.에 제시하였다.

(2) 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양성과정 운영의 실태와 양성과정 교육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검정 시험’의 응시자 7,214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중 응답자는 1,997명이었다. 이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수자 대상의 설문은 ‘양성과정에 대한 정보 및 선택’, ‘교육과정 편성’ 등 총 7영역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수자 대상 설문지는 부록 1 참조). 온·오프라인 등으로 실시한 이 설문은 그 결과를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화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분석하였다. 이 설문의 분석 결과는 부록 4에,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2.2.1.에 제시하였다.

<표 1> 응시자 대상 설문 조사 개요

방식	대상	응답자	비고	조사일	조사 기간
온라인	4,709명	1,300명	제1회~3회 검정시험 응시자	2009.10.08.(목) ~ 10.27.(화)	20일간
오프라인	2,505명	697명	제4회 검정시험 응시자	2009.10.11.(일)	1일간
계	7,214명	1,997명			

(3) 양성과정 기관 설문 조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양성과정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총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47개 기관만 설문에 응해 주었다. 이 설문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기관 대상의 설문은 ‘교과 운영의 적절성’, ‘교육 환경’ 등 총 3개 영역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기관 대상 설문지는 부록 2 참조). 그리고 이 설문 조사와 관련한 데이터 처리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맡았다.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기관에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으로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설문 분석 결과는 부록 5에,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2.2.2.에 제시하였다.

(4) 양성과정 심층 면접

심층 면접 대상 기관은 운영 중인 총 78개 양성과정 중 임의로 일부를 선정한 것이다. 심층 면접에 협조한 곳은 총 30개 기관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은 13개 기관이고, 17

개 기관은 그 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다. 심층 면접에 협조한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심층 면접 협조 기관의 지역적 분포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계
기관 수	11	2	2	0	6	9	30

심층 면접을 실시한 목적은 이수자 대상 설문, 기관 대상 설문, 기관 현황 등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여러 사실들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심층 면접의 조사 항목은 입학 요건, 선발 방법, 수강료, 강사료, 모의 수업·참관 수업 등의 운영 실태와, 수강생들의 요구 사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2.3.에 제시하였다.

(5) 양성과정 운영 기관 현황 조사

양성과정 운영 기관 현황 조사는 총 43개 기관에서 협조하였다. 이들 기관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 기관 현황 조사 - 운영 기관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

지역	기관 수	유형 1		유형 2	
		온라인	오프라인	사설	대학
서울	12	2	10	2	10
경기	4	0	4	0	4
강원	4	0	4	0	4
충청	7	0	7	0	7
전라	3	0	3	0	3
경상	13	0	13	1	12
계	43	2	41	3	40

이 조사는 2009년 10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하였다. 이 현황 조사는 ‘신입생 모집’, ‘교육과정 편성’ 등 총 5개 영역 1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항목은 부록 3에, 그리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내용은 2.2.4.에 제시하였다.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현황

이 장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과정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기술하였다. 2.1.은 2009년 12월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인 양성과정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리고 2.2.는 이수자 및 기관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양성과정 실무 운영자(또는 기관장) 대상의 심층 면접 결과를 담고 있다.

2.1. 양성과정 개요

2.1.1. 현황

2009년 12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은 총 78개 기관이다. 이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각 기관의 연락처(주소지와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표 4> 2009년 12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

연번	범주	학교명/단체명	주관 기관명	소재지	비고
1	대학	강남대학교	국제어학교육원	경기도 용인시	
2	대학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원도 원주시	
3	대학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강원도 춘천시	
4	대학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평생교육원	강원도 삼척시	
5	대학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시 광진구	
6	대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언어교육원	충청북도 충주시	
7	대학	건양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충청남도 논산시	
8	대학	경동대학교	국제어학원	강원도 고성군	
9	대학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	
10	대학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경상남도 진주시	
11	대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12	대학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교육원	경기도 용인시	
13	대학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14	대학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서울시 성북구	
15	대학	공주대학교	한민족문화원	충청남도 공주시	
16	대학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서울시 성북구	
17	대학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

18	대학	단국대학교	국제어학원	경기도 용인시	
19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어학교육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20	대학	대불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라남도 영암군	
21	대학	대전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22	대학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국제화추진단	서울시 중구	
23	대학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국제교류교육원	경상북도 경주시	
24	대학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25	대학	동의대학교	외국어교육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6	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서울시 서대문구	온라인
27	사설 기관	마이한글닷컴	(경희대 국제교육원 공동운영)	서울시 도봉구	온라인
28	대학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29	민간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30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부산광역시 남구	
31	대학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교육원	서울시 종로구	
32	대학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울시 마포구	
33	대학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34	대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시 관악구	
35	대학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시 관악구	
36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민대학 (평생교육원)	서울시 동대문구	
37	대학	서울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부천시	
38	대학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국제센터	서울시 서초구	
39	대학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충청남도 천안시	
40	대학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서울시 종로구	
41	대학	성신여자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서울시 성북구	
42	대학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서울시 용산구	
43	대학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충청남도 아산시	
44	대학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45	대학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	경기도 수원시	
46	대학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서울시 서대문구	
47	대학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48	대학	영동대학교	사회교육원	충청북도 영동군	
49	대학	우석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전라북도 완주군	
50	대학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울산광역시 남구	
51	대학	원광보건대학	국제교류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52	대학	위덕대학교	어학교육원	경상북도 경주시	
53	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시 서대문구	
54	대학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경상남도 김해시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현황

55	공공 기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56	대학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광역시 남구	
57	대학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광주광역시 북구	
58	대학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전라북도 전주시	
59	대학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전라북도 전주시	
60	대학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광주광역시 동구	
61	대학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원	경상남도 창원시	
62	대학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충청북도 청주시	
63	대학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충청북도 청주시	
64	사설 기관	청출어람		서울시 강서구	
65	대학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교육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66	대학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67	대학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충청북도 청주시	
68	대학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도 평택시	
69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시 종로구	온라인
70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서울시 동대문구	
71	대학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대전광역시 대덕구	
72	대학	한림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원도 춘천시	
73	대학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74	대학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충청남도 서산시	
75	대학	한일장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라북도 완주군	
76	대학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충청남도 아산시	
77	대학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서울시 마포구	
78	사설 기관	IOA평생교육원		서울시 동대문구	

위의 목록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양성과정의 지역별 개설 현황 및 성장률

단위 : 기관 수

구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2006. 03.	16	1	2	1	3	1	1	1	5	31
2009. 12.	24	8	5	5	11	6	3	6	10	78
2006년 대비 성장률	150%	800%	250%	500%	367%	600%	300%	600%	200%	250%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6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개설된 곳은 총 31개였다(위의 <표 5> 참조). 2009년 12월 말 현재 양성과정은 2006년 대비 외형상 2.5배가 성장한 셈이다. 2009년 12월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을 운영 주체 특성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2009년 12월 현재 - 운영 주체별 양성과정의 수

구분	기관의 수	비고
대학	73개 기관	93.6%
공공 기관	1개 기관	1.3%
민간 및 사설 기관	4개 기관	5.1%
계	78개 기관	100%

2009년 12월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을 운영 방식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2009년 12월 현재 - 운영 방식별 양성과정 현황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대학	2개 기관	71개 기관
공공 기관	0개 기관	1개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1개 기관	3개 기관
계	3개 기관	75개 기관

2009년 12월 말 운영 중인 양성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양성과정의 수에 대한 무성한 추측만 있을 뿐 구체적인 현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09년 7월을 전후로 다음과 같이 조사 범위를 정하여 사전 조사 형식으로 파악하였다.

- 기존(제1~3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수험자의 이수 기관
- 제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수험자의 이수 기관
-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 웹사이트
- 국내외 한국어교육전공자/비전공자 커뮤니티 및 블로그
- 국내외 한국어교육 전문가 면담
-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부서 웹사이트
- 국내외 한국어교원 양성관련 홍보물 및 수강생 모집 광고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강생 면담

사전 조사에서 운영 중인 양성과정은 총 99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7월 말의 양성과정과 2009년 12월 말 현재의 양성과정의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7월 현황의 목록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예,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육원)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 혼동한 부분이 있었다. 처음 목록에서는 한국어학당 운영 기관까지 폭 넓게 조사되어 실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기관 목록’과는 상이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는 한국어교육원은 있으나 양성과정은 개설된 적이 없었던 기관이다.

둘째, 동일한 대학에서 둘 이상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 있었다.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몇 개의 대학에서는 대학 내에 두 개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실제로는 대학 내 한 개의 양성과정만이 있음에도 마치 두 개의 양성과정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었다. 대전대학교의 경우, 처음에는 대학 내 두 부설 기관에서 양성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제 인적자원개발원에서는 양성과정이 개설된 적이 없었고 한국어교육센터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도 대전대학교와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순천향대학교는 과거에 평생교육원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한국어교육원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순천향대학교에서는 마치 ‘평생교육원’과 ‘한국어교육원’ 두 부설 기관에서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한편 전주대학교의 경우, 국제교육교류원과 한국문화원 등 2개 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는 한국어문화원이 국제교육교류원 산하 기관이므로 한 기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웹상에서는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광고가 있었지만 실제로 양성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기관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한세대학교나 인덕대학교의 경우가 그러하다. 양성과정 실무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 대학에서는 양성과정이 한 번도 개설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기관명이 동일한데 이전 기관명과 현재의 기관명이 달리 취급된 경우이다. 또한 명칭이 조금씩 바뀌거나 소속 관계가 달라져 이에 대한 검색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양성과정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서울문화예술대학이다.

다섯째, 양성과정을 일회적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한서대학교의 경우 평생교육원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그 기관의 운영 현황을 찾을 수 없었다. 나아가 양성과정 운영 실무자 또한 접촉할 수 없었다.

여섯째, 비영리 목적으로 민간 및 사설 기관 등에서 실시된 해외 연수 과정이 있다. 이

런 경우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는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담당자나 실제 운영의 여부 자체를 알 수 없어 목록에서 제외한 경우이다. 빛세계선교회 등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이에 속하는데, 특히 선교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자격증 취득이나 한국어교육을 위한 과정이 아니므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 결과 2009년 7월 말 양성과정 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성과정도 있었다. 안산 YWCA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YWCA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프로그램, 숭의여자대학, 한국교원대학교 등이 그것이다. 안산 YWCA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YWCA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봉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상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숭의여자대학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으나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측하건대, 응답자의 출신 학교를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5년에 한국어교원 자격이 제도화되었고 이 가운데 양성과정은 비학위과정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현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2.2. 조사 개요 및 결과

2.2.1. 이수자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이 설문 조사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수자들이 수료한 기관의 운영 실태와 이들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사의 분석 결과는 한국어교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국어교원 양성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 조사는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 1,997명의 '검정시험' 응시자가 설문에 협조해 주었다. 이들 응답자를 특성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이수자 설문 응답자의 특성별 분류

조사 현황		사례 수 (빈도)	비율 %
전체		(1,997)	100.0
양성과정	대학 부설	(1,874)	93.8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2.9
	민간 및 사설 기관	(44)	2.2
	기타	(21)	1.1
성별	남자	(334)	16.7
	여자	(1,663)	83.3
연령	20대	(613)	30.7
	30대	(660)	33.0
	40대	(484)	24.2
	50대	(218)	10.9
	60대 이상	(22)	1.1
한국어교육 경험	있음	(569)	28.5
	없음	(1,428)	71.5
한국어교육 현장	있음	(793)	39.7
	없음	(1,204)	60.3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65.1
	현장 조사	(697)	34.9

이수자 설문 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응답자의 93.8%가 대학 부설 양성과정 이수자라는 점이다. 공공 기관이나,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 이수자는 대학 부설 양성과정의 이수자 수에 비해 극히 적은 수이다.

위와 같이 통계 수치상의 한계가 있는 공공 기관, 민간 기관의 양성과정을 대학 부설 기관의 양성과정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양성과정 운영 주체에 따라

운영 실태와 이수자들의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운영 주체별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기타 응답자의 특성들, 예를 들면 ‘성별’, ‘연령’, ‘한국어교육 경험’, ‘한국어교육 현장’ 등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설문 내용 분석 시 주요 특징을 기술할 때 운영 주체별 양성과정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았다.

(2) 설문 항목

이수자 대상의 설문은 총 7영역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수자 대상 설문지는 부록 1을 참조). 설문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양성과정의 정보 및 선택 관련 : 2문항
- 교육과정 편성 관련 : 7문항
-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 : 6문항
- 학습 평가 및 사후 관리 관련 : 2문항
- 교육 환경 관련 : 6문항
- 기타 : 5문항
- 기본 정보 : 6문항

(3) 설문 분석 주요 내용

이 설문은 이수자들의 입장에서 양성과정의 운영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설문의 내용은 크게 운영 실태에 관한 것과 그에 따른 이수자들의 만족도로 나뉜다. 여기서는 이수자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 내용을 설명하되 각 항목에 해당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시하기로 한다.

이수자들의 양성과정에 대한 만족도 항목은 총 5개 영역 21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8.8점에 불과하다. 통계학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보통’이라 평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설문 조사에 나타난 평균 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9> 영역 및 항목별 이수자 만족도 현황

	영역	구분	만족도
1.1.	교육과정	교육 기간의 적절성	51.6
1.2.		교육 시간(120시간)의 적절성	48.2
1.3.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적절성	50.8
1.4.		한국어교육 능력 향상에 있어 교과목 편성의 도움 정도	61.6
1.5.		한국어 강의 참관 만족도	64.0
1.6.		한국어 모의 수업 만족도	65.5
1.7.		외국인 대상 강의 실습 만족도	66.2
		소계	58.2
2.1.	교육 운영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61.3
2.2.		교과목의 제목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의 일치 여부	61.1
2.3.		강의 수준의 만족도	58.7
2.4.		이론 수업 형태에 대한 만족도	59.6
2.5.		학습 방법(강의/토론/실습 등) 만족도	60.1
		소계	60.1
3.1.	학습 평가 및 사후 관리	학습평가에 대한 결과 활용 적절성	53.9
		소계	53.9
4.1.	교육 환경	수강 인원 대비 강의실 크기 만족도	62.4
4.2.		교육 기자재 활용에 대한 만족도	57.5
4.3.		교재(주교재, 부교재 포함)	55.3
4.4.		강사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	75.2
		소계	62.6
5.1.	기타	교육 내용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	66.1
5.2.		양성과정 수료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57.4
5.3.		양성과정 수료증이 관련 업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61.8
5.4.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한국어교육 능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	52.2
		소계	59.3
	총계		58.8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 21개 만족도 조사 항목 중 ‘교육 환경’ 관련 항목들의 평균 만족도(62.5점)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 ‘교육 운영’(60.1점), ‘기타’(59.3점), ‘교육과정’(58.2점), ‘학습 평가 및 사후 관리’(53.9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환경 > 교육 운영 > 기타 > 교육과정 > 학습 평가 및 사후 관리

조사 결과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에서 운영하

는 양성과정에 비해 만족도 수치가 약간이나마 높게 나타났다.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교육 환경'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다음 표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대학 부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양성과정의 수준이 민간·사설 기관보다 낮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대학 부설 기관의 경우 운영 실태가 천차만별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표 10> 운영 주체별 이수자 만족도

구분	만족도(평균)	대학 부설	공공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기타
교육과정 평균	58.2	58.2	55.1	61.1	54.9
교육 운영 평균	60.1	60.3	56.3	60.9	54.2
학습 평가 및 사후 관리 평균	53.9	53.8	55.6	56.3	47.6
교육 환경 평균	62.6	62.8	60.3	60.6	53.8
기타 평균	59.3	59.3	60.5	60.6	55.0
전체 평균	58.8	60.1	58.0	60.8	54.5

다음은 총 21개의 이수자 만족도 조사 항목을 영역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표 11> 항목별 이수자 만족도 순위

순위	영역	항목	만족도
1	교육 환경	강사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	75.2
2	교육과정	외국인 대상 강의 실습 만족도	66.2
3	기타	교육 내용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	66.1
4	교육과정	한국어 모의 수업 만족도	65.5
5	교육과정	한국어 강의 참관 만족도	64.0
6	교육 환경	수강 인원 대비 강의실 크기 만족도	62.4
7	기타	양성과정 수료증이 관련 업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61.8
8	교육과정	한국어교육 능력 향상에 있어 교과목 편성의 도움 정도	61.6
9	교육 운영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61.3
10	교육 운영	교과목의 제목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의 일치 여부	61.1
11	교육 운영	학습 방법(강의/토론/실습 등) 만족도	60.1
12	교육 운영	이론 수업 형태에 대한 만족도	59.6
13	교육 운영	강의 수준의 만족도	58.7
14	교육 환경	교육 기자재 활용에 대한 만족도	57.5
15	기타	양성과정 수료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57.4

16	교육 환경	교재(주교재, 부교재 포함)	55.3
17	학습 평가 및 사후 관리	학습 평가에 대한 결과 활용 적절성	53.9
18	기타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한국어교육 능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	52.2
19	교육과정	교육 기간의 적절성	51.6
20	교육과정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적절성	50.8
21	교육과정	교육 시간(120시간)의 적절성	48.2
평균			58.6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수자들이 양성과정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항목은 ‘강사들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이다. 이 항목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 점수를 훨씬 상회한다. 한편,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성과정 최소 필수 이수시간인 ‘교육 시간(120시간)의 적절성’이다. 이 항목의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를 훨씬 밑도는 48.2점이다. 양성과정의 ‘전체 및 1일 교육 시간’과 ‘교육 기간’은 이수자들에게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교육 환경

‘교육 환경’에 대한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결과는 현재 운영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95% 이상이 대학 부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음은 ‘교육 환경’의 세부 항목에 대해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어떠한가를 양성과정의 운영 주체별로 나누어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2> ‘교육 환경’ 세부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구분	평균(100점)	대학 부설	공공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기타
수강 인원 대비 강의실 크기 만족도	62.4	62.7	62.1	55.1	53.6
교육 기자재 활용에 대한 만족도	57.5	57.8	53.4	54	51.2
교재(주교재, 부교재 포함)	55.3	55.5	52.6	55.7	45.2
강사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	75.2	75.3	73.3	77.8	65.5
평균	62.6	62.8	60.4	60.7	53.9

<표 12>는 대학 부설의 양성과정이 ‘교육 환경’에 관한 한 공공 기관이나 민간 및 사설 기관 또는 기타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 준다. 한편, 민간 및 사설 기관의 경우는 강의실 관련 만족도가 여타의 다른 만족도 항목에 비하여 낮은 편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영역의 대학 부설 양성과정의 만족도가 다른 운영 주체에 비해 이수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점수가 80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수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환경’에서 도드라지게 높게 나타난 만족도 항목은 ‘강사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이다. 이것은 전체 만족도 평균 점수(58.8점)보다 16.4점이나 높은 점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할 만하다. 즉 기관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이 설문에 응한 기관들은 강사를 위촉할 때 주안점을 두는 사항으로 강사의 ‘전문성’을 1순위로 꼽았다(95.7%). 그러므로 이수자들이 강사의 전문 지식의 보유 정도에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것은 양성과정 운영자들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 환경’에서의 ‘수강 인원 대비 강의실 크기 만족도’(62.4점)와 ‘교육 기자재 활용에 대한 만족도’(57.5점), 그리고 ‘교재(주교재, 부교재 포함) 만족도’(55.3점)는 ‘강사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점수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교재(주교재, 부교재 포함) 만족도’이다. 이 항목은 전체 21개의 만족도 항목 중에서 16번째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양성과정의 교재가 이수자나 교과목의 담당 강사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교육 환경’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 양성과정 운영 주체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에 대한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위의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의 경우 ‘강의실’을 제외하면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에 비해 만족도가 모두 높다. 그리고 ‘교재’나 ‘강사’의 경우는 오히려 대학 부설 양성과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교재’나 ‘강사’에 대한 항목에서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에 비하여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에 응한 이수자 1,997명 중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한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44명(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표 8> 참고).

(나) 교육과정

‘교육과정’ 만족도는 5개 영역 만족도 중 4번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영역의 특징은 이 영역에 속하는 항목들의 만족도가 극단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만족도 항목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 ‘실습 교과목’(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강의 실습에 대한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66.2점, 모의 수업은 65.5점 그리고 강의 참관은 64.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만족도 점수는 21개의 전체 항목에서 각각 2, 3, 4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점

수이다. 반면 ‘교육 기간의 적절성’, ‘교육 시간(120시간)의 적절성’,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적절성’ 등은 각각 51.6점, 50.8점, 48.2점으로 21개 만족도 조사 항목 중 19, 20, 21번째에 해당한다. 이 영역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표 13> ‘교육과정’ 세부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구분	평균 만족도	대학 부설	공공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기타
교육 기간의 적절성	51.6	51.5	53.0	58.0	46.4
교육 시간(120시간)의 적절성	48.2	47.9	50.4	56.8	45.2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적절성	50.8	50.8	50.9	50.0	46.4
한국어교육 능력 향상에 있어 교과목 편성의 도움 정도	61.6	61.1	58.6	64.2	57.1
한국어 강의 참관 만족도	64.0	64.1	54.0	68.5	65.8
한국어 모의 수업 만족도	65.5	65.7	59.3	66.4	63.2
외국인 대상 강의 실습 만족도	66.2	66.4	60.0	63.9	60.4
	58.2	58.2	55.1	61.1	54.9

1) 실습 교과목(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습 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만족도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 항목들 역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수치에 비하면 만족스러운 점수라 할 수 없다.

<표 13>에 나타난 수치상으로, 실습 항목에 대한 이수자 만족도는 대학 부설의 양성과정 이수자보다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의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실습 항목’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실습’은 ‘강의 참관’과 ‘모의 수업’과는 달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부설 양성과정 대부분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예상은 아래의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 및 사설 기관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강의 실습(40.9%)의 기회가 대학 부설 양성과정(66.7%)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는 설문 결과와 부합되고 있다.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강의 실습과 관련된 만족도는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물론 대학 부설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만족도보다 낮다.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 이수자들의 이러한 만족도는 이들이 다른 양성과정의 이수자들에 비해 실습의 기회가 적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특이한 사항은 공공 기관의 양성과정에서는 민간 및 사설 기관에 비해 모의 수업의 기회가 더 많았음에도 만족도는 낮다는 점이다(이에 대해서는 <표 13> 참조). 이렇

게 ‘모의 수업’에서 실습률과 만족도가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수자들이 ‘모의 수업’의 교육 내용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양성과정 실습 교과목의 경험 유무에 대한 이수자들의 응답이다.

<표 14> 실습 교과목의 경험 유무 - 운영 주체별

	평균 실습률	대학 부설	공공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기타
강의 참관	86.2%	88.3%	43.1%	52.3%	90.5%
모의 수업	94.4%	94.9%	87.9%	86.4%	90.5%
강의 실습	65.1%	66.7%	34.5%	40.9%	57.1%
평균	82.0%	83.0%	55.0%	60.0%	79.0%

실습 교과목 중 ‘강의 실습’은 다른 항목에 비해 실시 비율이 매우 낮다. 실습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에 예비 한국어교원들을 투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부설 양성과정의 경우에도 그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강의 실습’의 대상으로 참여하는데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2.2.와 2.2.3.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실습 교과목과 관련하여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는 총 1,433명의 응답자 중 강의 참관·모의 수업·강의 실습의 실습 교과목이 충분치 못했다는 응답이 255건이 나왔다. 이수자 설문 결과에는 실습 교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로 ‘참관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양한 내용의 수업, 다양한 급, 여러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실습’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의 평가만으로는 ‘실습’이 이수자들에게 만족감을 심어 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표 9> ‘영역 및 항목별 이수자 만족도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에 응한 이수자들은 21개의 만족도 항목 중 ‘교육 시간(120시간)의 적절성’,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적절성’, ‘교육 기간의 적절성’ 등은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대학 부설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 양성과정 이수자들에 비하여 ‘교육 기간’과 ‘총 교육 시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① 총 교육 시간

설문 조사에서 이수자들이 수료한 양성과정의 총 교육 시간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5>를 살펴보면 총 교육 시간이 '120~130시간'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이수자들이 61.9%로 가장 많다. 그리고 다음으로 '120시간 미만(10.3%)', '130~140시간(10.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운영 주체별 양성과정의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표 15> 수료한 양성과정의 총 교육 시간

조사 현황		사례 수	120시간 미만		120~130시간		130~140시간		140~150시간		150시간 이상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206)	10.3	(1,237)	61.9	(203)	10.2	(182)	9.1	(169)	8.5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96)	10.5	(1,186)	63.3	(195)	10.4	(167)	8.9	(130)	6.9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4)	6.9	(26)	44.8	(3)	5.2	(6)	10.3	(19)	32.8
	민간 및 사설 기관	(44)	(2)	4.5	(17)	38.6	(4)	9.1	(5)	11.4	(16)	36.4
	기타	(21)	(4)	19.0	(8)	38.1	(1)	4.8	(4)	19.0	(4)	19.0

<표 15>에 따르면 대학 부설 양성과정은 주로 총 교육 시간을 120~130시간으로 운영한다(63.3%). 그리고 대학 부설 양성과정 전체의 26.2%는 13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은 120-130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38.6%이지만 130시간 이상 운영하는 양성과정은 56.9%나 된다. 이 운영 주체의 양성과정은 120-130시간보다 130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앞서 우리는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총 교육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았는데 이 만족도는 총 교육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래의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과정의 총 교육 시간이 120시간 미만일 때의 이수자의 만족도는 48.2점이지만, 150시간 이상인 경우에 만족도는 57.4점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16> 교육 시간의 적절성 - 교육 시간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68)	3.4	(544)	27.2	(892)	44.7	(451)	22.6	(42)	2.1	48.2
120시간 미만	(206)	(8)	3.9	(69)	33.5	(88)	42.7	(39)	18.9	(2)	1.0	44.9
120~130시간 미만	(1,237)	(47)	3.8	(366)	29.6	(549)	44.4	(254)	20.5	(21)	1.7	46.7
130~140시간 미만	(203)	(4)	2.0	(42)	20.7	(100)	49.3	(56)	27.6	(1)	0.5	51.0
140~150시간 미만	(182)	(3)	1.6	(42)	23.1	(92)	50.5	(39)	21.4	(6)	3.3	50.4
150시간 이상	(169)	(6)	3.6	(25)	14.8	(63)	37.3	(63)	37.3	(12)	7.1	57.4

② 1일 평균 교육 시간

설문 조사 응답자 중 양성과정에서 1일 평균 총 '4시간'을 수강한 이수자는 전체의 37.9%에 해당된다. 그리고 '3시간 이하(27.7%)', '5~6시간(21.3%)', '7~8시간(12.6%)', '9시간 이상(0.6%)'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1일 평균 교육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 <표 17>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총 교육 시간'과 반비례의 양상을 보여 준다. 즉 양성과정의 총 교육 시간은 길면 길수록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1일 평균 교육 시간'은 오히려 짧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표 17>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적절성 - 1일 평균 교육 시간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적절하다		조금 많다		매우 많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56)	2.8	(302)	15.1	(1,191)	59.6	(422)	21.1	(26)	1.3	50.8
3시간 이하	(553)	(26)	4.7	(127)	23.0	(363)	65.6	(36)	6.5	(1)	0.2	43.6
4시간	(756)	(19)	2.5	(110)	14.6	(510)	67.5	(114)	15.1	(3)	0.4	49.1
5~6시간	(425)	(10)	2.4	(50)	11.8	(220)	51.8	(136)	32.0	(9)	2.1	54.9
7~8시간	(251)	(1)	0.4	(12)	4.8	(95)	37.8	(131)	52.2	(12)	4.8	64.0
9시간 이상	(12)	(0)	0.0	(3)	25.0	(3)	25.0	(5)	41.7	(1)	8.3	58.3

상기 <표 17>상으로는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최적의 시간은 '3시간~4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평균 교육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은 대학 부설 양성과정이나 공공 기관의 양성 과정에 비하면 1일 평균 교육 시간이 길다. 4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은 52.2%이지만, 공공 기관의 양성과정은 62.1%이고, 대학 부설 양성과정의 경우는 65.8%이다. 운영 주체별 1일 평균 교육 시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8> 1일 평균 교육 시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3시간 이하		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553)	27.7	(756)	37.9	(425)	21.3	(251)	12.6	(12)	0.6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520)	27.7	(714)	38.1	(389)	20.8	(240)	12.8	(11)	0.6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15)	25.9	(21)	36.2	(20)	34.5	(2)	3.4	(0)	0.0
	민간 및 사설 기관	(44)	(10)	22.7	(13)	29.5	(13)	29.5	(7)	15.9	(1)	2.3
	기타	(21)	(8)	38.1	(8)	38.1	(3)	14.3	(2)	9.5	(0)	0.0

③ 교육 기간

응답자 중 자신들이 이수한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이 '15주 내외'라고 응답한 이수자들이 27.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0주 내외'(19.4%), '25주 내외'(18.4%), '5주 내외'(16.7%) 순으로 나타난다. 양성과정의 주체별 교육 기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수료한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 - 응답자별 특성

조사 현황		사례 수	5주 내외		10주 내외		15주 내외		20주 내외		25주 내외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333)	16.7	(388)	19.4	(548)	27.4	(360)	18.0	(368)	18.4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327)	17.4	(371)	19.8	(526)	28.1	(327)	17.4	(323)	17.2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2)	3.4	(7)	12.1	(14)	24.1	(13)	22.4	(22)	37.9
	민간 및 사설 기관	(44)	(3)	6.8	(5)	11.4	(7)	15.9	(15)	34.1	(14)	31.8
	기타	(21)	(1)	4.8	(5)	23.8	(1)	4.8	(5)	23.8	(9)	42.9

'교육 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 이수자들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래 <표 20>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과 관련이 있다. 대학 부설 양성과정은 공공 기관이나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에 비하면 10주 이내의 교육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기관이 많은 편이다.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총 교육 시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아래의 <표 20>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도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표 20> 교육 기간의 적절성 - 교육 기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
전체	(1,997)	(60)	3.0	(432)	21.6	(889)	44.5	(550)	27.5	(66)	3.3	51.6
5주 내외	(333)	(14)	4.2	(86)	25.8	(156)	46.8	(70)	21.0	(7)	2.1	47.7
10주 내외	(388)	(14)	3.6	(110)	28.4	(167)	43.0	(89)	22.9	(8)	2.1	47.9
15주 내외	(548)	(20)	3.6	(113)	20.6	(242)	44.2	(155)	28.3	(18)	3.3	51.7
20주 내외	(360)	(7)	1.9	(66)	18.3	(168)	46.7	(109)	30.3	(10)	2.8	53.4
25주 내외	(368)	(5)	1.4	(57)	15.5	(156)	42.4	(127)	34.5	(23)	6.3	57.2

이수자들은 교육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긴 양성과정을 선호하고, 1일 교육 시간은 4시간 미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은 양성과정의 예비 수강생들이 양성과정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과는 정반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수자들은 자신들이 수료한 양성과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통학 거리(33.9%)’, ‘교육 기간(33.7%)’, ‘인지도(31.5%)’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편 교육 기간을 꼽은 응답자 673명은 ‘개인 일정과 교육 기간의 일정이 부합(60.6%)’하기 때문에, ‘교육 기간이 짧아서(15.5%)’, ‘교육 기간에 관계없이 저녁에 수강할 수 있어서(12.8%)’ 등의 이유가 있었다.

3) 한국어교육 능력 향상에 있어 교과목 편성의 도움 정도

전체 응답자 중 51.7%는 자신들이 수료한 양성과정의 교과목 편성이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11.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자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1> 한국어교육 능력 향상에 있어 교과목 편성의 도움 정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전체		(1,997)	(26)	1.3	(209)	10.5	(730)	36.6	(918)	46.0	(114)	5.7	61.1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23)	1.2	(197)	10.5	(683)	36.4	(865)	46.2	(106)	5.7	61.1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1)	1.7	(7)	12.1	(22)	37.9	(27)	46.6	(1)	1.7	58.6	
	민간 및 사설 기관	(44)	(2)	4.5	(3)	6.8	(14)	31.8	(18)	40.9	(7)	15.9	64.2	
	기타	(21)	(0)	0.0	(2)	9.5	(11)	52.4	(8)	38.1	(0)	0.0	57.1	

이 항목의 이수자 만족도 점수는 61.6점이다. 이는 전체 21개 항목에서 8번째로 높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목의 편성이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를 설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수자들의 이런 만족도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개방형 질문에서 교과목 실습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는 점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 교육 운영

‘교육 운영’에 관한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5개 영역에서 2번째로 높다. 그리고 해당 영역의 5개 세부 항목의 만족도가 고른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22> '교육 운영' 세부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평균 만족도	대학 부설	공공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기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61.3	61.5	55.2	61.4	57.1
교과목의 제목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의 일치 여부	61.1	61.3	56.9	60.2	56.0
강의 수준의 만족도	58.7	58.9	56.0	59.1	47.6
이론 수업 형태에 대한 만족도	59.6	59.6	57.8	62.5	58.3
학습 방법(강의/토론/실습 등) 만족도	60.1	60.3	55.6	61.4	52.4
평균	60.1	60.3	56.3	60.9	54.2

<표 22>가 보여 주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이 영역에서 공공 기관의 양성과정 이수자들은 다른 운영 주체의 양성과정 이수자들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나 '교과목의 제목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은 대학 부설 양성과정이나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강의 수준의 만족도', '이론 수업 형태에 대한 만족도', '학습 방법(강의/토론/실습 등) 만족도' 등은 대학 부설 양성과정보다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의 이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육 환경'에서 강사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에 대한 만족도에 비하면 '교육 운영'의 '강의 수준의 만족도', '교과목의 제목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의 일치 여부', '학습 방법(강의/토론/실습 등) 만족도', '이론 수업 형태에 대한 만족도' 등의 점수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라) 학습 평가 및 사후 관리

이 영역은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는 대신에 '학습 평가에 대한 결과 활용의 적절성'과 '양성과정 수료 이후 정보 제공'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수자들이 양성과정을 수료할 무렵 실시하는 학습 평가의 결과 활용(수료증 부여, 교원 채용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는 의견이 36.1%,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20.5%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양성과정에서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전체 1,977명 중 49.5%만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 '학습 평가에 대한 결과 활용 적절성'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평균 만족도	대학 부설	공공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기타
학습 평가에 대한 결과 활용 적절성	53.9	53.8	55.6	56.3	47.6

이 영역의 특징은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이 다른 운영 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대학 부설 양성과정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학 부설 양성과정이 민간 및 사설 기관이나 공공 기관의 양성과정에 비해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보다는 이수자들이 다른 양성과정에 비해 대학 부설 과정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체 1,977명 응답자 중 49.5%는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받은 989명 중 75.2%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46.4%)', '양성과정 보수 교육(35.1%)',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정보(31.5%)'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양성과정 이수 후 제공받은 정보의 종류(중복응답)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관련 정보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		양성과정 보수 교육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정보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989)	(744)	75.2	(459)	46.4	(347)	35.1	(312)	31.5	(67)	6.8
양성 과정	대학 부설	(924)	(695)	75.2	(437)	47.3	(329)	35.6	(295)	31.9	(63)	6.8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26)	(17)	65.4	(10)	38.5	(5)	19.2	(8)	30.8	(1)	3.8
	민간 및 사설 기관	(30)	(26)	86.7	(9)	30.0	(10)	33.3	(6)	20.0	(2)	6.7
	기타	(9)	(6)	66.7	(3)	33.3	(3)	33.3	(3)	33.3	(1)	11.1

(마) 양성과정에 대한 정보 및 선택

응답자들은 '양성과정의 모집 광고/홍보(39.6%)', '학과 교수나 선배의 소개(19.1%)', '친구나 동창의 소개(18.3%)', '포털 검색(17.5%)' 등의 순으로 양성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자들은 양성과정을 선택한 이유로 '통학 거리'를 꼽은 경우가 3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 기간(33.7%)', '인지도(31.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교육 기간을 꼽은 응답자 673명은 '개인 일정과 교육 기간의 일정이 부합(60.6%)'하기 때문에 양성과정을 선택한 경우이다. 그 외에도 '교육 기간이 짧아서(15.5%)', '교육 기간에 관계없이 저녁에 수

강할 수 있어서(12.8%)’ 등의 이유가 있다.

수강료를 꼽은 응답자 369명은 ‘타 양성과정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54.7%)’되었기 때문에 양성과정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높다. 그 외에도 ‘타 양성과정에 비해 적정(17.1%)’, ‘양성과정의 내용에 비해 저렴(10.6%)’ 등의 이유가 있다.

(바) 기타 항목

이 영역에는 총 4개의 만족도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양성과정 운영 주체별 만족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기타’ 세부 항목 이수자 만족도 - 운영 주체별

	평균 만족도	대학 부설	공공 기관	민간 및 사설 기관	기타
교육 내용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	66.1	66.3	62.1	66.5	59.5
양성과정 수료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57.4	57.3	63.4	58.5	56
양성과정 수료증이 관련 업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61.8	61.8	63.4	62.5	52.4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한국어교육 능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	52.2	52.1	53.4	55.1	52.4
평균	59.3	59.3	60.5	60.6	55.0

이수자들의 ‘교육 내용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21개 항목 중 3번째로 높다. 이를 뺀 나머지 항목 중 특히 ‘양성과정 수료증이 (관련 업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 이수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항목은 대학 부설 양성과정 이수자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한국어교육 능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21개 만족도 항목 중에서 18번째로서 낮은 편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교육 시간(120시간)의 적절성’ 항목과 무관하지 않다.

(4) 분석 결과의 주요 특징

이수자 설문 조사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수자들에게 ‘교육 기간’은 양성과정을 선택하거나 양성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다.

둘째,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 및 총 교육 시간은 길면 길수록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비록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양성과정을 선택할 때에 ‘개인 일정과 교육 기간의 일정이 부합하기 때문에’, ‘교육 기간이 짧아서’, ‘교육 기간에 관계없이 저녁에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등의 이유로 양성과정 교육 기관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으면서 120시간이란 시간이 30여 과목을 수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단기간에 하나의 전문 영역을 3-4시간 안에 학습해야 한다는 점, 하루 종일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은 한국어교원으로서 전문성을 쌓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이수자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수자들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강사의 전문성을 비교적 인정하고는 있으나 양성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나 강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다. 이는 ‘강의 수준의 만족도’ 점수가 전체 21개의 만족도 항목의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국어기본법에서 제시한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한국어교육 능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위의 둘째 항목과 비슷한 내용으로, 교육의 절대 시간이 짧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다섯째, 공공 기관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응답자의 만족도가 그 밖의 양성과정 이수자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응답자 대부분이 대학 부설 양성과정의 이수자이고 상대적으로 공공 기관이나,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극히 적은 숫자여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민간 및 사설 기관과 공공 기관의 양성과정 출신 응답자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여섯째, 이수자들 입장에서는 양성과정의 학습 평가 후 결과 활용(수료증 부여, 교원 채용 등)과 사후 관리(‘검정시험’ 관련 정보, 교원 채용 정보, 양성과정 보수 교육 등)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양성과정에서는 교원만 양성할 뿐 일 자리를 소개해 주지 않는다는 이수자들의 불만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5) 조사의 한계

이 설문 조사는 처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 유형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양성과정의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설문 조사에서 그러한 양상을 차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대학 부설 양성과정 출신들이 주로 이 설문에 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설문 조사에서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행정적 또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구분할 수 없었다. 이것은 설문자의 기본 정보에 이 항목을 넣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다. 이 항목을 설문 조사지에 넣지 않은 이유는 설문 조사 당시 이 문항이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무자나 기관장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해 본 결과 서울, 수도권, 기타 지역별로 양성과정 운영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바, 지역별로 만족도를 추출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2.2.2. 기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이 설문의 목적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설문을 통하여 예비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양성과정의 여러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어교원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총 47개 기관에서 이 설문에 응해 주었다. 설문에 응한 양성과정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총 78개 기관의 60.2%에 불과하다. 이들 응답 기관을 양성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과 한국어 프로그램의 별도 운영 여부의 2개 특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설문 협조 기관의 특성별 분류

조사 현황		사례 수	비율
		(빈도)	%
전체		(47)	100.0
양성과정 중점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6)	34.0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53.2
	기타	(6)	12.8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85.1
	없다	(7)	14.9

전체 양성과정 중 53.2%는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교육 역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34.0%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에, 그리고 12.8%는 ‘기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양성과정 중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예: 한국어학당)을 별도로 운영하는 기관은 85.1%, 그렇지 않은 기관은 14.9%이다. 그리고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 중 이를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92.5%이다.

이번 설문에서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양성과정의 교육 중점 사항을 비교해 본 결과,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교육 역점을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참조).

<표 27> 한국어 프로그램 존재 여부에 따른 양성과정별 중점 사항

조사 현황		사례 수	있다		없다	
		(빈도)	(빈도)	%	(빈도)	%
전 체		(47)	(40)	85.1	(7)	14.9
양성과정 중점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6)	(12)	75.0	(4)	25.0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23)	92.0	(2)	8.0
	기타	(6)	(5)	83.3	(1)	16.7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40)	100.0	(0)	0.0
	없다	(7)	(0)	0.0	(7)	100.0

(2) 설문 항목

양성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총 3개 영역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기관 대상 설문지는 부록 2 참조).

◆ 교과 운영의 적절성 관련

1. 양성과정의 실제 중점 사항
2. 교과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및 학습 능력에 따른 적절한 구성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유무 및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형태
4. 한국어를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과 내용의 적절성

◆ 교육 환경 관련

1. 강사 위촉 시 중점 사항 및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2. 기타 지역/국가에 양성과정 개설 여부
3. 수강생 사후 관리 여부 및 실행하고 있는 사후 관리 형태

◆ 기타 사항

1. '필수이수학점/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2. 양성과정의 '최소한의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3. 양성과정 개설 기관의 '자격 기준 명시'에 대한 의견
4.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사전 심의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3) 설문 분석 주요 내용

이 설문에서 기관의 '교과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는 80.5점인 반면 '기타 항목'의 점수는 66.6점이다. '교과 운영'은 '검정시험 합격'보다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교육의 중점을 두는 양성과정이 만족도 점수가 더 높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도 ‘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기타 사항’에서는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의 적절성’ 항목을 제외하고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교육 역점을 두고 있는 양성과정과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양성과정이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가) 교과 운영

이수자 대상 설문에서 양성과정의 ‘교과 운영’에 대한 평가는 평균 60.16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대상 설문에서의 ‘교과 운영’에 대한 평가는 평균 80.5점이다. 이 둘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기관 설문의 ‘교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 ‘교과 운영’ 세부 항목 기관 만족도 - 운영 주체별

	평균	검정시험	현장 투입	기타	한국어 프로그램	
					있다	없다
교과명과 그 내용의 일치성	85.6	76.6	90	91.7	86.9	78.6
학습 능력에 따른 구성	76.6	70.3	80	79.2	76.9	75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과 내용의 적절성	79.3	75	83	75	82.5	60.7
평균	80.5	73.9	84.3	81.9	82.1	71.4

1) ‘교과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성’ 및 ‘학습 능력에 따른 적절한 구성’

‘교과명과 그 내용의 일치성’에 대한 기관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제일 높은 85.6점이다. 이 수치는 이수자 대상 만족도 설문 결과(61.1%)와 차이가 있다.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그렇지 않은 양성과정에 비해 ‘일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교육 역점을 둔 양성과정이 ‘검정시험 합격’에 교육 역점을 둔 양성과정보다 ‘일치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학습 능력에 따른 적절한 구성’에 대한 기관 설문 만족도는 평균 76.6점이다. 다른 만족도 항목에 비하면 3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이 항목은 양성과정의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교육 중점을 둔 양성과정이 만족도가 높았다.

2) 교과 내용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을 중점 사항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그렇지 않은 양성과정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양성과정이 그렇지 않은 양성과정보다 교육 내용이 적절하다는 만족도가 나온다. 교육 중점의 상이에 따른 차이보다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나) 교육 환경

‘교육 환경’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없다. 단지 기관 대상 설문에는 현황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은 교육 중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교육 환경’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1) 강사 위촉 시 중점 사항 및 강사의 시간당 강의로

양성과정에서 강사를 위촉할 때 주안점을 두는 사항은 바로 ‘전문성’(95.7%)이다. ‘추천’이나 ‘강사료’ 등은 모두 4.3%에 불과하다. ‘지명도’는 강사를 위촉할 때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양성과정에서든 동일하게 나타난다.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5-6만 원’이 가장 많다(27.7%). 그리고 ‘3-4만 원’(23.4%), ‘9-10만 원’(19.1%), ‘7-8만 원’(17.0%) 순이다.

2) 기타 지역 또는 국가에 양성과정 개설 여부

양성과정을 시기에 따라 기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 또는 국가에서 개설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개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4%, ‘개설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7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역점을 둔 양성과정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양성과정이 그렇지 않은 양성과정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3) 수강생 사후 관리 여부

전체 양성과정 중 85.0%는 수강생이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49.5%)와 차이가 있다.

양성과정에서 제공하는 사후 관리의 내용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련 정보’(80.0%),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70.0%),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관련 정보’(62.5%), ‘수료자

DB 관리'(47.5%) 등이다.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이수자들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련 정보'(75.2%),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46.4%)', '양성과정 보수 교육(35.1%)',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정보(31.5%)'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항목

기타 항목은 다음 4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9> 기타 항목의 세부 내용

	평균	검정 시험	현장 투입	기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있다	없다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의 적절성	54.8	54.7	53	62.5	55.6	50
양성과정의 최소한의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69.7	67.2	72	66.7	70	67.9
양성과정 개설 기관의 자격 기준 명시에 대한 의견	74.5	70.3	75	83.3	75.6	67.9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사전 심의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67.6	64.1	70	66.7	69.4	57.1
평균	66.6	64.0	67.5	69.8	67.6	60.7

1)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의 적절성

위의 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기타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만족도가 낮다. 그 중 '필수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54.8점)은 기관 대상 설문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다. 이 결과는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한국어교육 능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52.2점) 항목과 비슷한 수치이다.

2) 양성과정 운영 전반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나아가 양성과정의 사전 심의 인증제도에 대해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주안점을 둔 양성과정이 그렇지 않은 양성과정에 비해 적극적이다. 그리고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그렇지 않은 양성과정에 비해 적극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사전 심의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양성과정의 경우 '양성과정 사전 심의 인증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과정을 운영할 때 제일 힘든 영역이 5영역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영역은 단순히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강사로만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4) 분석 결과의 주요 특징

기관 설문 조사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양성과정은 그렇지 않은 양성과정과 비교할 때, 양성과정에서 교육 중점 사항을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두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별도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과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에 교육 역점을 두고 있는 양성과정의 설문 조사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둘째, 이수자들의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설문 결과에서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항목에 대한 이수자들의 만족도 점수와 기관의 만족도가 비슷하다.

셋째, 이수자들의 불만과는 달리, 양성과정 운영 기관은 정부 기관의 규제나 지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성과정 개설 시 자격 기준 명시’(74.5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호의적인 데 반하여 ‘최소한의 운영 기준 마련’(69.7점)이나 ‘사전 심의 인증제도 도입’(67.6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5) 조사 한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 대상 설문에 참여한 기관이 많지 않아 설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방식의 차이와 운영 주체별 차이를 기관 설문에서는 분명하게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와 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교차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2.3. 심층 면접

(1) 조사 개요

양성과정 실무자 또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을 실시한 목적은 이수자 대상 설문, 기관 대상 설문, 기관 현황 등에서 파악되지 않은 여러 사실들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조사 역시 예비 한국어 교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양성과정의 여러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현행 한국어교원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특히 ‘표준 운영 지침’을 만들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조사에 협조한 양성과정은 서울·경기 등 13개 양성과정, 이외 지역의 17개 양성과

정 등 총 30개 양성과정이다.

<표 30> 심층 면접 협조 기관 - 지역적 분포 현황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계
대상 기관 수	24	8	5	16	9	16	78
심층 기관 수	11	2	2	0	6	9	30
비율	46%	25%	40%	0%	67%	56%	38%

가급적 지역별(서울, 경기 등), 운영 유형별(온라인, 오프라인), 운영 주체별(대학 부설/공공 기관/민간 및 사설 기관 등) 등으로 구별하여 다양하게 심층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기간 동안 심층 면접 일정 및 실무자 개인 일정 등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래의 의도대로 심층 면접을 할 수는 없었다.

(2) 심층 면접 항목

심층 면접은 기관 현황 조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심층 면접의 표면적인 내용은 기관 현황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 항목은 입학 요건, 선발 방법, 수강료, 강사료, 모의 수업·참관 수업 등의 운영 실태, 수강생들의 요구 사항,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심층 면접 분석 주요 내용

(가) 교육 기간

대학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의 실무자들은 수강생들이 하루에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힘겨운 일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양성과정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도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양성과정을 방학 중 그것도 단기간에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과 주당 교육 시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당 교육 시간은 짧아지고, 교육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주당 교육 시간이 많아지는, 교육 기간과 주당 교육 시간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4주 교육 기간일 때와 8주 교육 기간일 때 그 차이는 1일 교육 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 8주를 넘어 가게 되면 1일 교육 시간에는 변화가 없고 주당 교육 일수에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관계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중요한 항목으로 작

용하고 있다.

1) 수요자 입장

이수자들은 방학 기간 중에 운영하는 단기기간의 교육과정을 선호한다. 양성과정을 다니고자 하는 이수자들은 재학생을 비롯하여, 주부, 직장인, 현직 한국어 교육계 종사자 등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러 부류의 이수자들은 학기 중에 운영되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운영되는 양성과정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기 중에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야간에 개설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이에 대한 기관 현황은 <표 35> 참조).

어느 양성과정에서는 일부 예비 수강생들이 야간반을 개설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양성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여 과정을 개설하였다가 적정한 수강 인원이 모이지 않아 개설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기관은 지방의 대도시 국립대학이며 이 대학의 양성과정은 '검정시험'과 무관하게 운영되어도 모교 출신의 수강생들이 꾸준히 등록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과정이다.

대부분의 양성과정에서는 이수자의 '출석'을 수료 조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양성과정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담당 조교를 두어 매 시간마다 점검을 하는 양성과정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수자들이 야간에 운영되는 양성과정의 수업을 퇴근 시간대에 제 시간에 도착하여 수업에 임하기란 쉽지 않다. 이수자들이 방학 중 단기 과정을 선호하는 것은 양성과정에서 제시한 엄격한 수료 조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운영자 입장

심층 면접에서 실무자도 방학 중 양성과정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강사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학기 중보다 방학 중 양성과정을 운영할 때가 내부 강사는 물론이고 외부 강사 섭외 시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둘째, 강의실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학기 중 양성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양성과정의 수강 인원에는 맞는 강의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방학 중 양성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빈 강의실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강의실 확보가 수월하다는 점이다. 셋째, 이수자들이 방학 중 과정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강의실과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절대 인원의 수강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양성과정을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양성과정 개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실적으로 수강생들이 모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이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양성과정을 방학 중에 운영하더라도 8주간의 양성과정으로 운영하기보다 4주로 단시간에 운영하는 것은 양성과정 이수자들에 대한 관리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양성과정

의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운영자나 양성과정 수강생 모두가 양성과정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어 관리가 소홀해지므로 이를 경계한다는 것이다.

(나) 1일 교육 시간

1일 총 교육 시간은 교육 기간과 관계가 있다. 산술적으로 절대 이수시간인 120시간을 기준으로, 4주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 6시간씩 4주 동안 운영하면 된다. 즉 양성과정에서 총 교육 기간을 최소한 4주로 설정하게 되면 1주일에 5일(월~금)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때 1일 총 교육 시간은 최소한 6시간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교육 기간이 4주에서 한 주가 더 늘어나게 되면 매주 5일간의 하루 교육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교육 기간이 8주 이상 늘어나게 되면 주당 교육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1일 총 교육 시간도 줄어들고 주당 교육 일수도 줄어들게 된다.

방학 중 단기간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실무자는 1일 교육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이수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양성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예비 수강생들이 단기간 안에 수료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성과정 운영 측은 방학 중 단기간에 양성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이에 1일 총 교육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 교재

양성과정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는 해당 교과목 강사들의 원고를 모아 제본 형태로 묶어 제작하여 만든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양성과정에서는 제본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지 않고 담당 교과목 시간에 해당 원고를 나누어 주기도 한다.

양성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각 과목의 담당 강사가 제출한 원고를 수합하여 제본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 형식이 일관적이거나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평균 30과목이므로 이들을 하나의 체계를 갖춘 교재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강사의 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강사진도 양성과정의 일정이나 해당 강사들의 일정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교재 집필진을 항상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일반 양성과정에서는 양성과정의 등록 인원이 채워진 다음에 강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때에 담당 교과목 강사에게 해당 교과목의 원고를 의뢰하기 때문에 교재 관련 집필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양성과정 교재의 내실을 기하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양성과정 교재들을 형식면에서 대조해 보면, 서술식 문장으로 집필된 원고가 있는

가 하면 개조식으로 된 원고도 있다. 그리고 원고가 ‘흔글’로 작성된 것도 있는가 하면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도 있다. 또한 ‘흔글’로 작성되었어도 편집이 다를 때가 많으며 제목에 붙이는 분류 번호의 형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들 교재를 일반적인 교재의 형태라 할 수는 없다.

적정한 수강 인원이 확정된 다음에 담당 교과목의 강사진이 구성되고 이들이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 강의 교재를 집필하여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교과목에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0여 개 과목 모두에 대해 교과목의 내용 전부를 양성과정 교재에 담을 경우 교재의 분량이 매우 많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그 교재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에 교재에 담은 내용을 모두 가르칠 수 없으므로 기관에서는 교재에 굳이 이를 다 담을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 교과목당 제한된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의 내용으로 교재를 집필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담을 것인지도 문제일 뿐 아니라 수강생들이 이 분량의 내용이 해당 교과목의 전체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므로 좋은 교재 개발 방식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성과정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양성과정 전용 교재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 교과목 내용

심층 면접에서 교과목 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양성과정 실무자가 수업 내용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이 교수되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성과정에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양성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평가 내용 속에는 강의와 관련된 항목도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수강생들이 해당 교과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게 되면 이를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수자들이 갖고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한 불만이 어떠한지는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그들의 불만 사항은 ‘교수님의 전공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다, 관련 없는 내용으로 3시간을 보낸 시간도 있었다’, ‘실제 교육 내용과 자격시험 간의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졌음’, ‘강의 내용과 자격시험 문제의 내용면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 ‘실제 교육 내용과 자격시험 간의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졌음’, ‘커리큘럼에 나타난 교과 과정과 관계없는 교육 내용이 많았다’, ‘어떤 강좌의 담당 교수는 강의 내용을 일부러 늘이는 경향이 있어 보임’, ‘강의 이외의 내용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함’ 등등이다.

이에 대해 양성과정 실무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수자의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학습 목표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다. 교수자들은 양성과정을 통하여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이라든가 기본 이론을 중시하여 가르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은 단순히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습자들은 양성과정 수료 후 ‘검정시험’을 통하여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검정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교수자들은 양성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검정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두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교과목 내용에 따른 목표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의 경우는 강의 수준과 관련된다. 양성과정 수강생들의 배경(학력, 전공, 나이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국어국문학 또는 국어교육 전공의 학부 졸업자나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수강생들이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영어나 영어교육과 같은 어문 계열이나 교육학 계열의 전공자들이 수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외에 경상계열, 법정계열, 이공계열 등의 수강자들도 있고 2년제를 졸업하거나 중·고등학교만을 마친 수강생들도 있다.

국어국문, 국어교육 등을 전공으로 한 수강생의 경우 양성과정의 수업 내용이 평이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그 과목의 강의를 할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강의 내용 자체가 신선하다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학부 과정에서 국어국문이나 국어교육과 관계가 없는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수강생들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한 과목당 배정된 2~4시간 동안 교과 내용 전체를 학습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인문계, 나아가 전문대 2년 정도의 학력 소유자나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그간 학업과 무관했던 수강생의 경우는 양성과정의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과 유관한 전공으로 졸업한 수강생 중의 일부는 강의 내용이 너무 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한국어교육과 무관한 수강생의 일부는 너무 어렵다는 불만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경우는 실제 교과목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전공자가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해당 교과목을 전공으로 하지 않았거나 교과목과 관련된 일을 종사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한국어교육 경험이 부족한 강사들이 이 강의를 담당할 때 생기는 문제로 실무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어영문이나 영어교육, 일어일문, 중어중문 등 외국어 및 외국어교육을 전공한 강사들이나, 국어나 국어교육을 전공으로 한 강사들이 3영역을 담당하는 경우에 이러한 불만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부 국립대 부설 양성과정을 수료한 이수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양성과정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양성과정에 비해 외국어 및 외국어교육 전공의 교수들이 양성과정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양성과정 운영자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다고 한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 강사를 위촉할 때 강사에게 담당할 과목을 알려주지만 교과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라는 지침을 주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교과목의 교과 내용은 담당 강사의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강사가 수업 시간에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등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강사의 능력과 판단에 의한, 강사의 고유 권한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강사의 능력을 전제로 하여 양성과정은 이들에게 해당 교과목의 강사로 위촉한다. 특히 양성과정에서 ‘검정시험’을 염두에 둔 강의를 부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수강생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위해 ‘검정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예를 들면, ‘검정시험’ 기출 문제 풀이반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문제 즉 강의 수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은 양성과정의 수강생 모집 시 자격 제한과 관련이 있다. 기관 현황 조사 결과, 입학 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양성과정은 총 43개 중 11개 기관(25.5%)이며 고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양성과정은 3개 기관(6.9%)이다. 전공에 대한 자격은 2개 기관(4.6%)에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대개의 양성과정에서는 수강생 자격에 대해 전공 제한을 두지 않고 학력 제한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검정시험’이 학력, 전공,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양성과정 운영자들은 양성과정 모집 시 학력 제한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자격시험에는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이고, 학력 제한을 둘 경우 이들에게서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과정 실무자들은 수업을 들을 능력은 수강생 자신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양성과정 실무자들은 수강생들이 양성과정을 등록하기 전에 수업 내용이 비전공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버겁다는 사실을 예비 수강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자격 제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한다. 어느 양성과정의 경우는 학력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생기는 문제, 예를 들면 강의 진행의 어려움을 강사들과 수강생들이 동시에 토로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시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의 경우는 강사의 자격 제한과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강사 위촉 시 해당 전공자나 해당 과목의 관련 종사자로 담당 교과목을 위촉하게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지역적으로 그리고 양성과정의 여건에 따라 제약이 많다고 한다.

(마) 실습 교과목

심층 면접에서 양성과정 운영자들은 실습과 관련된 수업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참관’이나 ‘강의 실습’은 원칙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는 현장을 참관해야 하거나 또는 이 교육을 받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습 강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양성과정 운영상 수월하다. 이에 비하여 ‘모의 수업’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모의 수업’에서 담당 교과목 강사가 강의 시범을 직접 보이거나 또는 양성과정 수강생이 수강생 동료들을 대상으로 모의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수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음을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수자들의 실습 과목의 경험 유무를 묻는 설문에서 ‘강의 참관’ 실습률은 86.2%, ‘모의 수업’은 94.4%, ‘강의 실습’은 65.1%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강의 참관’의 경우,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업에 양성과정 수강생들을 참관시키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심층 면접에서 확인된다. 그 이유는 양성과정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방학 중일 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의 참관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양성과정 운영 중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와 그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도 예비 한국어교원들의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에 대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수강자의 경우, 자기들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강의 참관하러 온 예비 한국어교원 때문에 한국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첫째, 5영역(한국어교육실습)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담당 한국어 강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교과목 시간에 자신의 한국어 반을 ‘강의 실습’ 및 ‘강의 참관’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강의 참관’을 하지 않는 대신 인위적으로 ‘한국어 수업 현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종의 사례비 또는 근로 수당 형식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런 부담이 없는 곳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정규 과정과는 별도로 보충 수업에 대한 공고를 내고 이에 응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하면서 이 자리에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방법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학기 중일 때에는 추진하기 쉽지만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동안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한국어 반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심층 면접 기관 중 어느 한 곳은 대학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타 대학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드는 비용은

양성과정 수강료와는 별도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양성과정 수강료와 대비해 볼 때 적은 비용은 아니다.

모의 수업을 할 때 양성과정 수강생 전원이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일은 드물다 한다. 대개의 경우 3-5명이 한 조(組)를 이루어 이 중에 한두 명이 대표로 모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의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한 사람당 발표 시간은 정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서처럼 50분 내외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모의 수업에서는 1인 수업 발표 시 10분에서 많게는 30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 참관은 물론이고 모의 수업에서도 외국인 학습자의 수준별(초급, 중급, 고급별)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대체로 초급과 중급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초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초급반이 다른 수준의 학급 수보다 많기도 하지만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초급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한다.

한편 이에 대해 어느 양성과정에서는 양성과정 수강생은 물론이고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교원이라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서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려면 한국어에 대한 지식, 한국어교육학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상당 부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성과정 실무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강생들도 중급반이나 고급반보다는 초급반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들은 당장 초급반에서 어떻게 수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이다. 고급 한국어 수업과 국어 수업의 차이가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당장 현장에서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양성과정에는 이주민을 상대로 한 한국어교육 담당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나 지원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양성과정 이수 후 곧바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들의 학습 대상자인 이주민들은 대체로 초급이거나, 초급 이전의 기초 수준의 학습자가 훨씬 더 많다.

조별 활동을 통해서 모의 수업을 짧게 발표하는 이유로는 실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모의 수업을 담당하는 한두 명의 강사로는 양성과정 수강생 전원을 상대로 모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양성과정에서는 모의 수업이나 강의 참관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두어 곳의 양성과정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필수이수시간에 '강의 실습'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어교육 현장이 어떤가를 확인하기 위해 '강의 참관'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당장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위해 '모의 수업'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 내용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강의 참관'과 '모의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교육의 현장에 대해 논할 수 있고 이런 수업이 훈련의 한 과정으로 실효성이 있다는 데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의 실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수업에는 여러 변인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수업 환경이든(인위적으로 한국어 반을 조성하든 아니면 실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어느 한 반에 들어가든) ‘강의 실습’에 참여하는 강사의 실제 수업 환경과는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강의 실습이 양성과정 수강생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 양성과정에서는 ‘강의 실습’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을 묶어서 진행하기도 한다. 그것은 ‘강의 실습’ 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업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굳이 별도의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성과정에서 ‘강의 참관’과 ‘모의 수업’은 훈련의 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강의 실습’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훈련의 한 과정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강의 실습’은 한국어교원을 뽑으려는 교육 기관에서 수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양성과정에서 ‘강의 실습’은 바로 이 ‘수습’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강의 실습’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견도 있었다. 그것은 ‘검정시험’의 2차 구술시험과 관련된 것이다. 제1회부터 제4회에 이르는 ‘검정시험’에서 구술시험의 핵심은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소양’, ‘자질’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좀 더 실질적인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2차 구술시험에서 응시자에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소양’을 묻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객관적인 ‘교사로서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1차 필기시험의 주관식에서 출제한 ‘지도안 작성’을 2차 구술시험에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범 강의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교원 자격 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2차 구술시험에는 응시자별로 5분에서 10분 정도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시범 강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업 전체를 이 시간 동안에 다 할 수 없으므로 ‘도입’과 ‘전개’ 일부분 또는 ‘목표 및 내용’과 ‘수업 구조’의 일부분 등을 시범 강의로 하자는 것으로 ‘시범 강의’의 수업 전체를 굳이 다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시범 강의’로 전환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부수적인 효과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검정시험’을 염두에 둔 양성과정이나 예비 응시자들은 모두 이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모의 수업’이나 ‘강의 실습’에 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 실습과 관련하여 양성과정에서 매 과정마다 적정 인원으로 수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강생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문제이고, 수강생이 항상 많은 것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강 인원이 많아지면 양성과정 기관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수강생이 늘어남에 따라 강사나 수강생의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양성과정의 중요한 교과목이라 할 수 있는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강 인원의 변동이 작아지게 되면 강의 실습 등의 계획을 짜는 데에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자체 평가

양성과정에서 이론 수업에 대한 필기시험의 결과를 종합 평가에 반영하는 이유와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 수업에 대한 필기시험을 평가에 반영하는 이유는 수료자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결석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석을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수강생이 졸거나 딴생각을 하지 않게, 자리만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양성과정 수강생들은 '검정시험'의 잠재적 응시자이므로 자체적으로 치르는 종합 시험을 이에 대한 훈련의 하나로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다.

종합 시험을 시행하는 양성과정 실무자에 따르면 종합 시험은 양성과정 교과목 담당 강사에게 과목당 3~5문항 정도 출제를 의뢰하고 이를 종합 시험의 문항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문항을 다 사용하기도 하고 기출 문제를 일부 포함시켜 종합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수료 조건 항목 속에 종합 시험의 결과가 포함된 양성과정이 있다. 이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중 일부는 종합 시험의 점수가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재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재시험의 문제는 담당 강사가 출제한 3-5문항 중 일부 사용하지 않았던 문항들을 위주로 구성한다고 한다.

양성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종합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종합 시험을 이 과정의 수료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양성과정 이수자들 모두 이 과정을 수료한 후 '검정시험'을 꼭 치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검정시험'을 치를 이수자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론 수업에 대해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사) 수료 기준

양성과정에서는 수강생들에게 출석률이 매우 중요한 수료 조건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성과정에서는 이를 비교적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과정 담당 조교가 수업 전, 수업 중간, 수업 후 등 하루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을 수시로 점검하는 양성기관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양성과정에서는 담당 교과목의 강사에게 출석을 맡기기도 한다. 교과목 담당 강사들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출석을 부르기도 하고 부르지 않기도 한다.

이수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 '실제 몇몇 사람들이 수업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이수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것은 기관에 따라서 출석 관리가 소홀한 곳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 강사진

현재 국어기본법에서 제시된 필수이수 영역은 모두 다섯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이 그것이다. 심층 면접에서 실무자들은 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강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각 영역에 적합하고 만족할 만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1영역(한국어학)은 일반적으로 강사진을 구성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영역에 대한 이수자의 불만도 다른 영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1영역의 경우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교수들이나 해당 전공자들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4영역(한국문화)의 경우, 이 영역에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라는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이다. 이 영역은 양성과정의 운영 조건에 따라 주로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등 다양한 학과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2영역(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과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이다.

이수자 대상 설문에서 이수자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불만 중 하나는 강사에 대한 것이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수자 대상 설문 시 개방형 문항에 나타난 결과는 실제 강사진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강사진이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강사진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특징적인 내용이 없었다’, ‘교수님들의 전공이 적절하지 않았다’, ‘강의 내용을 일부러 늘이는 경향이 있거나 수업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하신다’, ‘한국어교육 전문 강사진의 부족’, ‘실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못하였고 너무 이론적이고...’ 등등이었다.

이는 국어교육, 국어학을 전공한 강사들이 3영역을 담당하거나 외국어 또는 외국어교육을 전공한 강사들이 3영역을 담당하는 경우 생긴 불만들로 보인다. 즉 이들 강사들은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외국인들을 가르칠 때 가질 수 있는 있는 여러 의문이나 궁금증을 수업 시간에 해소해 주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3영역의 강사들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의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강사 선정 결정권을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성과정이 끝난 직후 실시하는 자체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어도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어교육이 활성화된 대도시의 주요 대학이 아닌 경우, 3영역을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과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러한 결과가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양성과정도 적지 않다. 양성과정을 최초에 운영할 때와는 다르게 3영역의 담당 강사들을 한국어교육 현장의 경험자로 바꾸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외부 강사를 적극 섭외하기도 하고 내부 한국어학당 강사들 중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두루 갖춘 경우 이들을 3영역의 교과목 강사로 위촉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느 양성과정의 경우, 이수자들의 불만으로 자체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담당하는 강사들 중 박사 수료 이상으로 한국어교육 경력 3년 이상인 강사를 3영역 담당 강사들로 위촉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후 이수자 대상 자체 설문 조사에서 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부에서 강사를 위촉하기 쉽지 않은 어느 지역의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3영역의 모든 교과목을 해당 기관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들에게 맡긴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수자 평가도 매우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양성과정의 경우 이 영역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학력은 앞의 양성과정과 달리 석사학위를 취득한 정도의 학력이었다.

양성과정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이수자들이 긍정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강사가 (양성과정의) 수업을 하여 강의의 질이 낮아지는 것 같다’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강사가 자신의 경험담을 수강생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면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생생한 경험이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성과정 이수자들에게 오히려 해당 교과목 내용에 대한 일반화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의 변인들을 고려해 볼 때 양성과정의 강사 자격 조건은 모든 영역에서 적정한 수준의 학력과 현장 경험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으로 보인다. 실무자들은 박사 수료 이상의 학력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영역별로 강사진 구성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1~2영역은 박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3영역과 5영역은 기본적으로 박사 수료 이상의 학력을 기반으로 한국어교육 경력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4영역은 현장 경험과 박사 수료 이상의 학력 중 하나만 갖추어진 경우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강사의 수와 관련된 것이다.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보인다. 다양한 선생님들과 교류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과목마다 강사가 달라서 내용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모 대학의 경우 1명의 강사진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이수자들의 수강료 부담과 관련이 있다. 이 양성과정의 수강료는 30만원씩 2차례 받고 1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 양성과정은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기회를 주겠다는 운영 방침에 따라 수강료가 낮게 책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강사를 초빙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된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이 과정을 이수한 이수자

들은 정작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양성과정을 이끌어가는 강사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는 15년 이상의 한국어 강의 경력을 갖고 있고 국어국문과 출신의 석사학위 취득자이다. 이 강사에 따르면 3영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랜 현장 경험은 3영역과 5영역을 담당하기에 충분하고 1영역도 강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국어교원은 현장에서 초급부터 고급까지 단계별로 학습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한국어 교수요목을 가르쳐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1영역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1영역을 담당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2영역과 4영역이다. 이 강사는 4영역은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양성과정에서는 4영역을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리고 1영역도 핵심적이라 생각되는 교과목만을 가르치고 3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강사는 2영역이 오랜 경험의 한국어교원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라 판단하여 2영역의 강의를 위해 상당 시간 강의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

(4) 분석 결과의 주요 특징

심층 면접 결과의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과정 운영의 중요한 변인은 양성과정의 수강생이란 점이다. 그러므로 양성과정 실무자는 절대적 수의 수강생을 확보하는 쪽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수강생 모집부터 수강생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 기간, 1일 교육 시간 및 교육 시간대, 초급 위주의 강의 참관 및 모의 수업 운영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강사 위축도 수강생들의 반응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둘째, 양성과정 운영상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어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양성과정에서는 3영역의 교과목 강사 위축 및 섭외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자들과 담당 교과목의 강사 사이에 일정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담당 교과목의 학습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점, 입장에 따라서는 교과목명과 그 내용의 일치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다는 점 등이다.

(5) 조사 한계

심층 면접 대상 기관은 지역적, 운영 주체별, 운영 방식별 등에 따라서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면접 관계자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이 면접 내용이 해당 양성과정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

다는 다짐 아래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면담을 꺼리는 양성과정도 있어 면접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여러 사정상 짧게 면접을 한 경우도 있었다.

심층 면접에 응한 관계자는 양성과정을 담당하는 학교 행정 직원, 연구원, 조교, 강사 등 다양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있는 관계자를 상대로 면접을 하면서 면접에 응한 관계자가 양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시각에 차이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양성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2.4. 기관 운영 현황 조사

(1) 조사 개요

기관 현황 조사의 목적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이 현황 조사는 기관 설문 조사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조사에는 기관 설문 조사와는 달리 총 43개 양성과정(온라인 접수 35개 기관, 오프라인 접수 8개 기관) 협조하였다.

기관 현황 조사에 응한 43개 양성과정의 지역별,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 기관 현황 조사에 응한 양성과정의 지역별, 유형별 현황

지역	운영 기관 수	협조 기관 수	비율	유형 1		유형 2	
				온라인	오프라인	사설	대학
서울	24	12	50%	2	10	2	10
경기	8	4	50%	0	4	0	4
강원	5	4	80%	0	4	0	4
충청	16	7	44%	0	7	0	7
전라	9	3	33%	0	3	0	3
경상	16	13	81%	0	13	1	12
계	78	43	55%	2	41	3	40

이 조사에서 아쉬운 점은 양성과정들이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경상, 강원 지역의 양성과정은 참여율이 80% 이상이었으나 충청 지역과 전라 지역은 44%와 33%에 머물렀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과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의 현황은 각각 2~3건밖에 되지 않아 이들에 대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현황 조사에 협조한 양성과정 중에서도 일부 자료는 앞뒤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교과목 시수에서 영역별 시수와 총계가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그리고 외부 및 내부 강사의 숫자가 맞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2) 조사 항목

현황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5개 영역 1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현황 조사지는 부록 3 참고).

- 기본 사항 : 5개 항목
- 신입생 모집 : 3개 항목
- 교육과정 편성 : 3개 항목
- 교육과정 운영 및 수강생 교육 결과 : 2개 항목
- 교육 환경 : 5개 항목

(3) 현황 분석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 편성

1) 교육 횟수

양성과정 현황 조사 결과, '교육과정'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기관 현황 조사에 협조한 43개 양성과정 중 정기적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양성과정은 수시 운영을 포함해서 38개(88.3%) 기관이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7개 기관(16.2%)이다. 그리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2개 기관(4.6%)이다. 이에 대한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2> 연간 양성과정 운영 횟수별 현황

단위: 개소

수 시	비수시										계			
	정기적 운영					비정기적 운영								
1	연 1회		연 2회			연 4회			연 1-2회		연 5-6회	연 8회		
	2		19			16			5		1	1		
	방	중	학	방	중	학	방	중						학
	0	0	2	9	1	9	0	16						0
1	37								7(중복 2 포함)				45	
<참고> 방: 방학 중 개설, 중: 방학과 학기 모두 개설, 학 : 학기 중 개설														

양성과정이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연 1회 개설되는 양성과정은 학기 중에 운영한다. 그리고 연 2회 개설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만 개설하거나 아니면 학기 중에만 개설하는 특징이 있다. 연 2회 개설하면서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개설하는 양성과정은 1개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정기적으로 학기 중에 양성과정을 개설하는데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방학 중에도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연 4회 양성과정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1~2학기과 겨울, 여름 방학 등 총 4회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그 밖의 사항으로 항시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도 있다.

대학 부설 양성과정과는 상대적으로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적정 수강 인원이 채워져야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는 특히 적정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는다.

2) 교육 기간

‘교육 기간’은 학기 중에 운영하는 경우와 방학 중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① 학기 중 운영

학기 중에 운영하는 양성과정 30개의 교육 기간은 다양하다.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32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3> 학기 중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미표시	6주	7주	8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20주	21주	24주	32주	계
기관수	1	1	2	1	1	2	1	1	2	9	5	1	1	1	1	30

상기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학기 중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 기간을 15주(또는 16주)로 편성하는 양성과정이 제일 많다.

② 방학 중 운영

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양성과정 27개의 교육 기간은 학기 중에 운영되는 양성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다. 짧게는 3주 과정이 있고 길게는 8주 동안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4> 방학 중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 현황

단위 : 개소

교육 기간	미표시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16주	계
기관 수	1	1	10	4	2	2	6	1	27

상기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방학 중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 기간을 4주(또는 8주)로 편성하는 양성과정이 제일 많다.

③ 기타

대학 부설 기관이 아닌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은 3개 기관이다 그 중 하나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이다. 이 온라인 양성과정은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수시 모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양성과정은 대학 부설 양성과정과는 달리 부정기적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1일 교육 시간 및 교육 시간대

‘1일 교육 시간’ 역시 학기 중에 운영하는 경우와 방학 중에 운영하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다.

① 학기 중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양성과정의 1일 교육 시간은 총 교육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 기간에 관계없이 학기 중 진행하는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과 교육 시간대의 분포가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 학기 중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과 교육 시간대 현황

1일 교육 시간	3시간		3시간-4시간	4시간			6시간 이상	계
기관 수	13		4	11			1	29
시간대	오후	저녁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오전~저녁	
기관 수	2	11	4	1	2	8	1	

학기 중에 운영하는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은 주로, 적으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② 방학 중 운영

방학 중에 운영되는 대학 부설 양성과정은 조사된 40개 기관 중 27개(67.5%)에 해당된다.

방학 중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은 주로 3주에서 8주로 편성되었음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교육 기간에 상관없이 이 기간 동안 1일 총 교육 시간에 대한 양성과정 현황을 살펴보면 그것은 아래와 같다(미표시 양성과정은 제외).

<표 36> 방학 중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과 교육 시간대 현황

1일 교육 시간	3 시간		4 시간			5 시간	6 시간	6~7 시간	7 시간	8 시간		7~9 시간	계
기관 수	2		6			1	10	1	1	4		1	26
시간대	오 후	저 녁	오 전	오 후	저 녁	오전 또는 오후	오전 ~ 오후	오전 ~ 오후	오전 ~ 오후	오전 ~ 오후	오후 ~ 저녁	오전~ 오후	
기관 수	1	1	1	2	3	1	10	1	1	3	1	1	

위의 표를 통해서 방학 중에 운영하는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은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교육 시간은 대체로 120시간에서 130시간 내외로 정해져 있으므로 '4시간', '6시간', '8시간'의 세 유형으로 나뉘는 것은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른 문제로 보인다.

4) 총 이수시간

양성과정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양성과정의 총 이수시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7> 양성과정의 총 이수시간 현황

구분	120시간 미만	120시간	121-130시간	131-140시간	141시간 이상	계
기관 수	4(9.3%)	15(34.8%)	17(39.5%)	3(6.9%)	4(9.3%)	43(100%)

현재 43개 양성과정 중 32개 양성과정(74.3%)이 120시간~130시간으로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교과목 편성

1) 필수이수시간

기관 현황 조사에 협조한 총 43개 양성과정 중 대부분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

<표 38>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현황

구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비고
필수이수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 기관	26기관 (60.4%)	30기관 (69.7%)	14기관 (32.5%)	27기관 (62.7%)	22기관 (51.1%)	
필수이수시간보다 많이 운영한 기관	16기관 (37.2%)	11기관 (25.5%)	24기관 (55.8%)	12기관 (27.9%)	15기관 (34.8%)	
필수이수시간보다 적게 운영한 기관	1기관 (2.3%)	2기관 (4.6%)	5기관 (11.6%)	4기관 (9.3%)	6기관 (13.9%)	
계	43기관 (100%)	43기관 (100%)	43기관 (100%)	43기관 (100%)	43기관 (1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필수이수시간보다 많게 운영하고(55.8%) 있다.

2) 필수이수과목

기관 현황에 따르면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배우는 과목의 수는 최소 7과목에서 42과목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양성과정 중 온라인 1개 기관에서는 어떤 과목을 수업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제외한 42개 양성과정을 대상으로 평균 수업 과목을 확인한 결과 31과목으로 나타났다.

이 과목들의 수는 각 영역의 비중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1영역의 경우, 2과목에서 11과목까지 수업을 진행하여 평균적으로 7과목 정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영역은 한 과목도 가르치지 않는 양성과정도 있고, 6과목의 수업을 진행하는 양성과정도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의 평균 수업 과목의 수는 3.5과목이다. 3영역은 수업을 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17개의 과목으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평균은 13.2 과목이다. 그리고 4영역은 0~7과목, 5영역은 1~8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평균 과목 수는 각각 3.8 과목과 3.2과목이다.

<표 39> 양성과정의 영역별 이수과목 수 현황

구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계
평균 수업 과목 수	7	3.5	13.2	3.8	3.2	30.7
기관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영역별 과목 수와 분포	8(38%)	4(57.1%)	15(28.5%)	4(52.3%)	3(57.1%)	34

3) 실습 교과목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과목 중 ‘강의 참관’ 교과목을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이 그 다음 순이다.

<표 40> 양성과정 실습 교과목 개설 현황 I

구분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실시	42기관(97.6%)	37기관(86.0%)	37기관(86.0%)
유동적	0기관(0.0%)	0기관(0.0%)	1기관(02.3%)
미 실시	1기관(2.3%)	6기관(13.9%)	5기관(11.6%)
계	43기관(100%)		

위와 같은 현황은 2.2.1의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14> 참조).

이번에 조사된 현황에 따르면 5영역을 모두 시행하는 기관은 43개 기관 중 34개 기관(79.8%)이다. 그리고 세 과목 중 두 과목만 시행하는 기관은 6개 기관(13.9%)이고 세 과목 중 한 과목만 시행하는 기관은 2개 기관(4.6%)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1> 양성과정 실습 교과목 개설 현황 II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기관 수	비율	비고
○	○	○	34기관	79.8%	유동적 1 포함
○	○	×	2기관	4.6%	
○	×	○	4기관	9.3%	
○	×	×	2기관	4.6%	
×	○	×	1기관	2.3%	
계			43기관	100%	

① 강의 참관

각 양성과정의 강의 참관 이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양성과정 '강의 참관' 시수 현황

시간	0	2	3	4	5	6	7	8	9	10	12	20	145	계
기관 수	1	1	2	9	1	11	1	9	1	3	2	1	1	43
비율(%)	2.3	2.3	4.6	20.9	2.3	25.5	2.3	20.9	2.3	6.9	4.6	2.3	2.3	100
'20'과 '145' 시간은 '강의 참관' 뿐만 아니라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을 합친 시간이다.														

강의 참관은 주로 4시간이나 6시간 또는 8시간으로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② 모의 수업

각 양성과정의 모의 수업 시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양성과정 '모의 수업' 시수 현황

시간	0	2	3	4	5	6	7	8	9	10	11	12	14	계
기관 수	5	2	2	2	6	8	1	5	3	2	1	3	1	41
비율(%)	12.1	4.8	4.8	4.8	14.6	19.5	2.4	12.1	7.3	4.8	2.4	7.3	2.4	100
강의 참관의 '20'과 '145' 시간은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을 합친 시간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으며 위의 표에서 '14시간'은 강의 실습을 포함한 시간임.														

모의 수업은 주로 5~6시간이나 8시간으로 배정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모의 수업에서 '5시간', '6시간', '8시간' 등 이 세 종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46.3%'이다.

③ 강의 실습

각 양성과정의 강의 실습의 시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 양성과정 '강의 실습' 시수 현황

시간	0	2	3	4	5	6	7	8	9	10	12	16	계
기관 수	5	1	2	7	3	10	1	5	2	1	1	2	40
비율(%)	12.5	2.5	5	17.5	7.5	25	2.5	12.5	5	2.5	2.5	5	100
강의 참관의 '20'과 '145' 시간은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을 합친 시간이고 '모의 수업'의 '1시간'은 모의 수업에 강의 실습을 합친 수이므로 여기서는 제외함.													

강의 실습은 주로 4시간이나 6시간, 그리고 8시간으로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강의

실습에서 '4시간', '6시간', '8시간' 등 이 세 종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이다.

(다) 수강생 교육 평가

1) 출석

각 양성과정에서의 수료 조건은 대체로 출석률, 필기시험, 그리고 기타 등 크게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출석'과 관련하여 43개 양성과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5> 양성과정 요구 수강생 출석률 현황

구분	70% 미만	70%~79%	80%~89%	90% 이상	기타	계
기관 수	3(6.9%)	9(20.9%)	23(53.4%)	5(11.6%)	3(6.9%)	43

43개 양성과정 중 23개 양성과정이 80~90% 이상의 출석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양성과정이 수강생들의 출석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에 해당되는 3개 기관은 수료 조건에 출석률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2) 시험

수료의 조건에 관계없이 양성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은 총 42개 기관이다. 이때의 항목은 종합 시험, 출석, 기타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기타'는 '실습'이나 과제물 제출, 수업 지도안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6> 양성과정 자체 평가 세부 항목 현황

종합 시험 (32)	출석 (36)	기타 (32)	기관 수
×	×	×	1
×	×	○	0
×	○	×	3
×	○	○	6
○	×	×	0
○	×	○	5
○	○	×	6
○	○	○	21
알 수 없음			1
계			43

위의 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개의 양성과정에서는 자체 평가에 종합 시험, 출석, 기타 항목 등 어느 것도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3개의 양성과정에서는 오직 출석만을 자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고, 6개 양성과정에서는 출석과 기타 항목을 자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기타'만을 자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거나 '종합 시험'만을 자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한 양성과정은 없었다.

위의 표를 통해서 볼 때 이론 수업을 종합 평가에 반영하는 기관은 43개 양성과정 중 32개 기관에 해당된다.

양성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평가가 수료 조건의 하나가 되는 기관이 있다. 그 양성과정은 총 43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양성과정 수료 시 평가 반영률 현황

구분	계	자체 평가를 수료 조건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경우	자체 평가를 수료 조건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우				
			60%~69%	70%~79%	80%~	미표시	소계
기관 수	43	19	7	12	2	3	24

3) 수료 기준

기관 현황 조사 결과 각 양성과정의 수료 조건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수료 조건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출석률이 기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시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습과 관련된 조건(예를 들면 참관 수업 필수 참석, 참관 수업 및 실습 필수 참석 등), 수업 참여도, 강의안 필수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료 조건과 관련된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8> 양성과정의 수료 조건 현황

구분	종합 시험	출석	기타
반영 기관	23	41	24
반영 하지 않는 기관	19	1	18
알 수 없는 기관	1	1	1
계	43		

(라) 강사의 수

내부 강사는 0명에서 21명까지 다양하다. 외부 강사 역시 0명에서 21명까지 다양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9> 양성과정 강사 수 현황 I <표 50> 양성과정 강사 수 현황 II

인원	해당 양성과정 수	
	내부 강사	외부 강사
0명	5	3
1명	1	2
2명	1	4
3명	1	2
4명	1	2
5명	3	1
6명	6	1
7명	7	1
8명	3	5
9명	3	4
10명	0	2
11명	2	0
12명	2	4
13명	1	2
14명	1	3
15명	1	0
16명	1	2
17명	0	1
18명	0	0
19명	1	0
20명	1	2
21명 이상	2	1
미표시	1	2
계	43	43

인원	해당 양성과정 수	
	내부 강사	외부 강사
0명	5	3
1명~3명	2	8
4명~7명	17	5
8명~11명	8	11
12명~14명	4	9
15명 이상	5	6
미표시	1	2
계	43	43

위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체 내부 강사가 없는 곳은 5개 기관이다. 5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대학 부설 양성과정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민간 및 사설 기관이다. 대학 부설 양성과정에 내부 강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는 해당 대학 내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 외국어학과 등)가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양성과정의 강사 전원을 외부에서 위촉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 강사는 7~8명인 양성과정이 제일 많으며 외부 강사는 8명~10명 또는 12명인 양성과정이 가장 많다.

내부와 외부의 강사 구분 없이 양성과정의 총 강사 인원이 9명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에 양성과정의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저 8주 또는 최대 15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라) 교육 시설

1) 강의실

기관 현황 조사 결과 양성과정의 평균 수강 인원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강의실 규모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 양성과정 평균 수강 인원과 강의실 규모

구분	기관 수	수강 인원										
		15명	20명	25명	30명	35명	40명	45명	55명	60명	70명	미표시
20인용	7	1	3	0	3	0	0	0	0	0	0	0
30인용	6	1	4	1	0	0	0	0	0	0	0	0
40인용	8	1	1	0	5	0	1	0	0	0	0	0
50인용	7	0	4	0	0	1	0	1	0	0	0	1
60인용	8	0	1	1	2	0	4	0	0	0	0	0
70인용	2	0	0	0	1	0	1	0	0	0	0	0
80인용	1	0	0	0	0	0	0	0	1	0	0	0
90인용	1	0	0	0	0	0	0	0	0	0	1	0
100인용	1	0	0	0	0	0	0	1	0	0	0	0
100~200인용	1	0	0	0	0	0	0	0	0	1	0	0
미표시	1	0	0	0	0	0	0	0	0	0	0	1
	43	3	13	2	11	1	6	2	1	1	1	2

수강 인원 대비 적절한 강의실을 확보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추위나 더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강의의 효율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강 인원예 비해 강의실 규모가 2배 이상인 경우가 14개소(34.1%)이다(온라인이라 강의실이 필요 없는 1개 양성과정과 강의실 규모는 표시했으나 수강 인원을 표시하지 않은 1개 양성과정 등 2개 양성과정을 뺀 41개 양성과정을 100%로 하였다). 수강 인원이 30명임에도 불구하고 20인용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강 인원예 비하면 대체적으로 큰 강의실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재

양성과정의 교재는 자체 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52> 양성과정의 교재 현황

자체 제작	외부 출판 교재	미표시	계
39개 기관	3개 기관	1개 기관	43개 기관

(4) 현황 결과의 주요 특징

양성과정에서 제출한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이 있다.

무엇보다 조사 항목 대부분에 있어 운영 방식이 각 양성과정마다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각 양성과정의 운영 주체 또는 수강생의 요구에 따라서 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되는 양성과정들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교과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대학 부설 양성과정에서는 양성과정을 학기 중과 방학 중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연 2회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방학 중에만 운영하거나 아니면 학기 중에만 운영한다. 그리고 연 4회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학기 중에 2번, 방학 중에 2번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주로 15주에서 16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4주나 5주로 운영하거나 8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 시간은, 학기 중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운영하며 이때는 주로 저녁에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1일에 6시간으로 운영하며 이때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다음 순으로 4시간(저녁)과 8시간(오전~오후)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교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양성과정에서는 필수이수시간이 120~130시간으로 짜여 있으며 이 시간 동안 평균 약 31개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양성과정(34개 양성과정)에서는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실습 과목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강의 참관'을 비롯하여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은 모두 6시간씩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셋째, 수강생 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출석은 대체로 80%~89%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양성과정이 제일 많다. 그리고 양성과정 수료 후 자체 평가를 하는 양성과정이 그렇지 않은 양성정보다 조금 많다. 이 현황으로 볼 때 출석만 하는 것으로는 양성과정을 수료할 수 없다.

넷째, 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접수된 현황 상 양성과정의 강사 수가 평균 몇 명인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현황에서는 강사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었지만 내부와 외부의 개념이 작성자의 인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듯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본다면 내부 강사나 외부 강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부터 15명인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교육 시설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양성과정이 대학 부설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강의실은 수강 인원에 비해 넓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기관에 따라서는 수강 인원에 비해 좁게 사용하는 양성과정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넓게 강의실을 사용하는 기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성과정의 교재는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일부 양성과정에서만 이미 출판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2.2.5. 종합

2.2.1.과 2.2.2.에서는 대상자를 달리하는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기관에서 작성한 양성과정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을 2.2.4.에서 살펴보았으며 2.2.3에서는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실무자나 기관장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현황 조사에서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심층 면접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면 어떤 정보나 내용이 입장에 따라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어떤 것이 보다 정확한 현황에 대하여 언급한 것인지 단언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1) 이수자 설문 조사의 만족도와 기관 설문 조사의 만족도 불일치

이수자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만족도 결과와 기관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만족도 결과 사이에 차이가 나는 항목이 있다.

(가) 교과목과 그 내용의 일치성(61.1 : 85.6)

이수자들은 자신들이 수료한 양성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의 제목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질문한 결과, 일치한다는 의견이 51.0%로 나타났으며,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1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자들의 만족도 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할 때 61.1점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관 대상 설문에서 양성과정의 교과목 제목과 실제 교과목 강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 의견이 9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견은 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85.6점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는 이수자들은 교과목의 제목과 그 내용이 덜 일치했다는 인식을 하는 반면 양성과정에서는 담당 교과목의 강사가 담당 교과목에 맞게 강의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담당 교과목의 강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양성과정 수강생들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둘 모두에게 비롯된 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나) '강의 수준의 만족도'와 '학습 능력에 따른 구성'(58.7 : 76.6)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수료한 양성과정의 강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44.2%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12.9%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58.7점이다. 그런데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양성 과정이 수강생 학습 능력의 높이에 맞춰 교육 내용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 의견이 87.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견은 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는 76.6점이다.

기관 대상 설문을 통해서 담당 교과목의 강사는 수강생들의 학습 능력에 맞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지만 실제로 이를 교육받은 이수자들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 수준이 자신들과 맞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 역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짧게는 4주, 8주 그리고 길게는 15주 동안 약 30개 과목을 한 과목당 3-6시간 동안 교수하고 학습하는 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건 속에서 30여 과목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강생들의 배경 지식이나 학습 능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양성과정에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 '양성과정 수료 이후 정보 제공'과 '수강생 사후 관리 여부'(49.5% : 85.1%)

이수자들에게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양성과정에서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1,977명 중 49.5%가 제공받았다고 응답했으며, 50.5%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양성과정 기관에 수강생이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사후 관리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사후 관리를 한다'는 기관은 85.1%,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기관은 14.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를 받은 이수자의 경우 이수자들에게 그 종류를 질문한 결과, 75.2%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46.4%)', '양성과정 보수 교육(35.1%)',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정보(31.5%)'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강생이 수료한 후에도 사후 관리를 한다고 응답한 기관에게 그 종류를 질문한 결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어교원 채용관련 정보(70.0%)',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관련 정보(62.5%)', '수료자 DB관리(47.5%)', '양성과정 보수 교육(25.0%)', '기타(2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성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해당 이수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대개의 경우 양성과정에서 보낸 정보가 이수자들에게 스팸 메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때 이수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수자 대상 설문 결과, 이수자의 연령에 비례하여 양성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높은 연령층의 이수자들이 양성과정에서 이메일로 보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라)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과 내용의 적절성(66.1 : 79.3)

이수자들에게 양성과정의 교과 내용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은 63.0%였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기관에 양성과정의 교과 내용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 의견이 8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다른 항목들에 비하면 이 항목의 차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필수 교과 내용은 이수자와 기관 모두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예비 교원으로서 비교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라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수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어교육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나 실습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한국어교육 현장의 다양한 변인 속에서 소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차이의 결과로 보인다.

(2) 이수자 설문 조사 결과와 기관 현황 불일치

(가) 실습 교과목의 참여 비율

이수자들은 실습 교과목에 대한 평균 참여율이 82%라고 답한데 반해 기관에서는 실습 교과목의 실습률이 89.8%라고 답했다. 이들 실습 교과목 중 ‘강의 실습’은 그 차이가 20.9%로 가장 높다.

<표 53> 이수자와 기관의 실습 교과목 실습률 현황

	이수자 평균 실습률	기관 평균 실습률	비교
강의 참관	86.20%	97.6%	11.4%
모의 수업	94.40%	86.0%	8.4%
강의 실습	65.10%	86.0%	20.9%
평균	82%	89.8%	13.5%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일부 양성과정에서는 ‘강의 실습’을 ‘모의 수업’과 함께 묶어서 동시에 진행하지만 이수자들은 이 교과목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

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인다.

(3) 이수자 설문 조사의 만족도와 기관 설문 조사의 만족도 일치

(가) 강사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의 만족도와 강사 위촉 시 주안점 - 전문성 (75.2 : 95.7%)

이수자들에게 양성과정의 교육 강사가 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은 78.3%였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 강사 위촉 시 주안점을 두는 사항 1순위로 '전문성'이 95.7%로 가장 높았으며, '추천'과 '강사료'가 각각 2%, 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자들이 생각하는 강사의 전문성 정도는 양성과정에서 생각하는 전문성보다 낮기는 하지만 이 둘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필수이수시간 및 이수과목에 대한 불만(52.2 : 54.8)

이수자들에게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적절하다는 의견은 34.8%로 나타났으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2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52.2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기관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4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견은 25.6%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수자들과 양성과정 실무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교과 내용이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지만 필수이수시간 및 이수과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30여 개의 과목을 과목당 3-4시간 등 짧은 시간 안에 학습해야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항목별 실태조사 결과 분석

3.1. 교육과정

3.1.1.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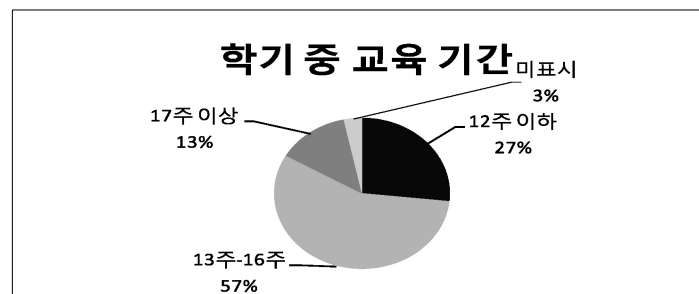
양성과정에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과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이 있음을 2.2.4.의 <표 32> ‘연간 양성과정 운영 횟수별 현황’에서 보았다. 대학 부설 양성과정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민간 및 사설 기관 또는 공공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은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온라인 양성과정은 운영 특성상 연중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1) 교육 기간

대학 부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은 학기 운영과 맞물려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방학(동계:1월~2월, 하계:7월~8월)과 학기(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로 나뉘어 양성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대학 부설 기관이 아닌 민간 및 사설 기관은 부정기적으로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학기 중에 운영하는 30개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은 다양하다.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32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학기 중에 운영하는 양성과정은 15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16주 과정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부설 양성과정에서 학기 중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4개월(12주~16주) 동안 운영하는 것이 57%이고, 3개월(11주 이하) 미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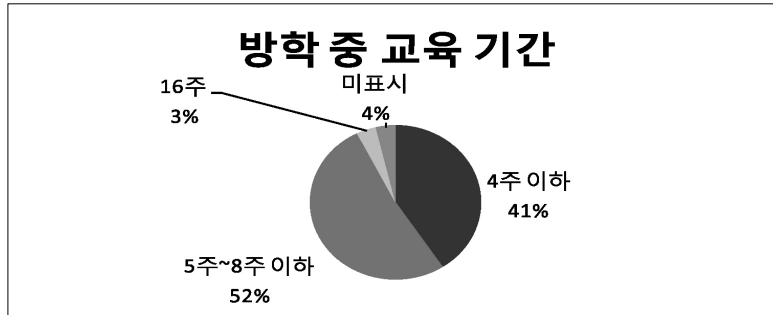
<그림 1. 양성과정의 학기 중 교육 기간>



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양성과정 27개의 교육 기간은 학기 중에 운영되는 양성과정과 달리 제한적이다. 짧게는 3주 과정부터 길게는 8주 과정까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학 중 양성과정을 운영할 경우 4주 동안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고 8주 과정이

그 다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부설 양성과정에서 방학 중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4주 동안 운영하는 것이 41%이고, 5주~8주까지 운영하는 곳이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양성과정의 방학 중 교육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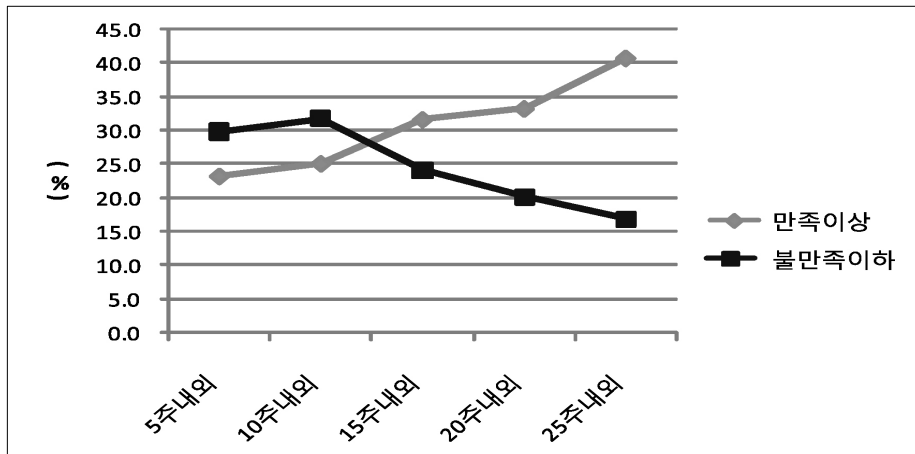


대학 부설이 아닌 온라인 양성과정은 연중 수시 모집을 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기관은 불규칙적으로 양성과정이 개설되고 있어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언급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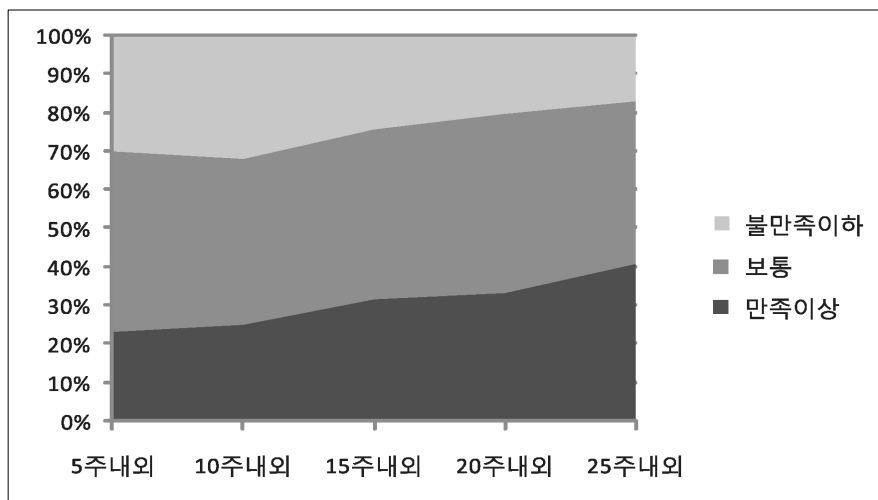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에 대해 이수자들의 설문 결과는 2.2.1.의 <표 19> '수료한 양성과정 교육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 자신들이 이수한 교육 기간은 '15주 내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주 내외', '25주 내외', '20주 내외', '5주 내외'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기간이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한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2.2.1.의 <표 20> '교육 기간의 적절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교육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5주 내외, 10주 내외의 교육 기간에 대한 수강생들의 응답은 적절하다는 응답에 비해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15주를 기점으로 반전하여 15주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적절치 않다는 응답의 수를 초과하였다.

<그림 3. 전체 교육 시간에 대한 만족도 1>



<그림 4. 전체 교육 시간에 대한 만족도 2>



상기 표를 통하여 우리는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이 15주 이상일 때부터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을 정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15주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2.4.에서 제시한 <표 33> ‘학기 중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 현황’과 <표 34> ‘방학 중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 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방학 중 운영하는 4~5주의 단기 양성과정의 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정시험’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주 미만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997명 중 333명인 전체 16.7%에 불과하다는 것은 10주 미만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중 ‘검정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0주 미만의 양성과정 이수자들의 낮은 응시율은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이수자들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전공자 출신들이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익힐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이 짧아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이수자들이 양성과정을 선택할 때에는 짧은 기간 안에 쉽게 수료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수자들은 실제로 양성과정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만 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절대 이수시간(120시간)이 짧다’, ‘1일 교육 시간이 너무 길다’, ‘수박 겉핥기식 교육’, ‘실습이 부족하다’ 등은 이것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수자들은 양성과정을 다니기 전의 인식과 수료한 다음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수자들의 이러한 두 가지 요구가 동시에 만족될 수는 없다. 즉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선택은 바로 교육의 절대 시간을 크게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은 적어도 15주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2.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교육 기간을 15주 이상으로 할 경우 이 과정을 개설하거나 운영

하기 힘든 양성과정도 적지 않은바, 표준 운영 지침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적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 기간을 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양성과정은 이론 강의의 수강 기간이 짧게는 2.5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온라인 과정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자율 학습 기간을 두어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수자를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라인 방식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 시간

(가) 필수이수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은 다음과 같다.

<표 5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 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필수이수시간은 120시간이다. 그리고 이 120시간은 각 영역별로 나뉘어 있다. 기관에서 제시한 현황에 따르면 120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으로 양

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43개 양성과정 중 39개 양성과정이다. 이는 전체의 90.6%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120~130시간을 총 이수시간으로 하는 양성과정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일부 양성과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리엔테이션’, ‘(성취도) 평가’ 등의 과목을 120시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 과목들은 국어기본법에서 제시하는 필수 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들 시간을 전체 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 자체가 너무 짧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이수자들의 총 21개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120시간의 적절성’을 묻는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인 48.2점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이수자들의 생각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에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실무자 대상 면접이나 기관 대상 설문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정규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여 최소한 45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학점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720시간이 된다. 이 시간은 양성과정의 120시간과 비교할 때 6배나 많은 것이다.

정규 학위과정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의 필수이수학점인 21학점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336시간이 된다(아래 <표 55> 참조). 이 시간은 양성과정의 필수이수시간과 비교할 때 2.8배나 많은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정규 학위과정의 학습자들이 비정규 과정의 수강생보다 학습량이 2.8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5> 정규 학위과정의 필수이수학점

구분		학점	주	시간	비고
대학	전공/복수전공	45학점	16주	720시간	3년 이상
	부전공	21학점	16주	336시간	2년 이상
대학원	전공	18학점	16주	288시간	2년 이상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자나 양성과정 실무자의 설문 조사 결과와 상기 이수시간의 절대 비교를 통해서 양성과정의 총 이수시간인 최저 120시간은 학위과정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날 뿐 아니라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비전공자로서 전문 지식을 쌓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표준 운영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표준 운영 지침 안에서 이상적인 필수이수시간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 1일 총 교육 시간

2.2.4.의 <표 35> '학기 중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과 교육 시간대 현황'에서 대학 부설 양성과정이 학기 중에 운영되는 경우, 주로 총 15주 내외의 교육 기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때 1일 총 교육 시간은 주로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학기 중에 진행되는 양성과정 중에서 1일 교육 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한 주에 2일이나 3일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기 중 1일 교육 시간이 4시간인 경우 주당 교육 일수에서 하루가 줄어든 2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학기 중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1일 교육 시간이 3시간이거나 4시간일 때가 가장 많고, 그럴 경우 주당 교육 일수는 2일에서 3일일 때가 가장 많다.

<표 56>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

1일 교육 시간	2시간 이하	3-4시간	5시간 이상	계
기관 수	0(0%)	28(96.5%)	1(3.4%)	29(100%)

1일 교육 시간이 3~4시간인 경우 주당 교육 일수는 다음과 같다.

<표 57> 1일 교육 시간이 3~4시간인 경우 주당 교육 일수

주당 교육 일	1일 이하	2-3일	4일 이상	계
기관 수	1(3.5%)	20(71.4%)	7(25%) (주 2-5, 주 3-4일 포함)	28(100%)

그리고 학기 중에 운영하는 대학 부설 양성과정의 시간대는 거의 절대적으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된다.

<표 58> 양성과정의 시간대별 운영 수

시간대	오전	오후	오전-저녁	저녁	소계	미표시	학기 중 운영 ×	사설 단체	계
기관 수	1	4	1	23	29	1	10	3	4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기 중의 양성과정은 1일 3-4시간, 일주일에 2-3회 수업 그리고 수업은 주로 야간에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36> '방학 중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과 교육 시간대 현황'에서 본 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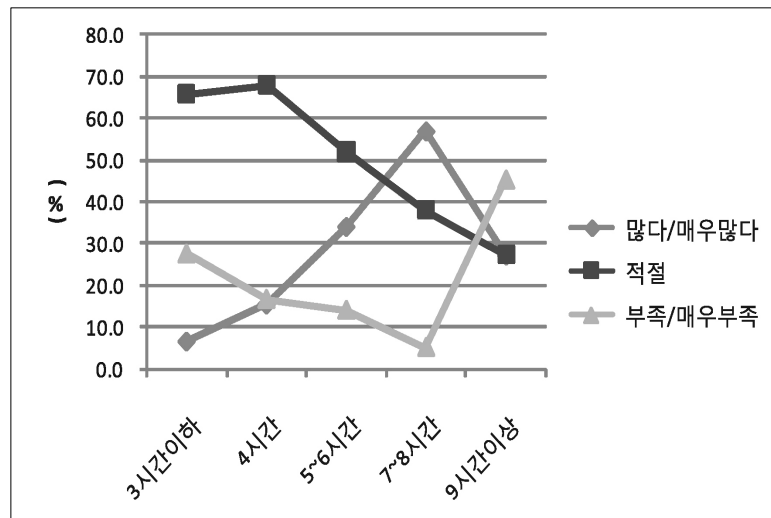
같이, 방학 중 운영하는 양성과정은 1일 교육 시간을 '6시간', '4시간' 그리고 '8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 4주 이하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에서는 1일 교육 시간을 6시간으로 운영하거나 그 이상의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 4주에서 5주 이상이 되면 1일 교육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 기간 동안의 1일 교육 시간은 4시간인 경우도 있고 5시간인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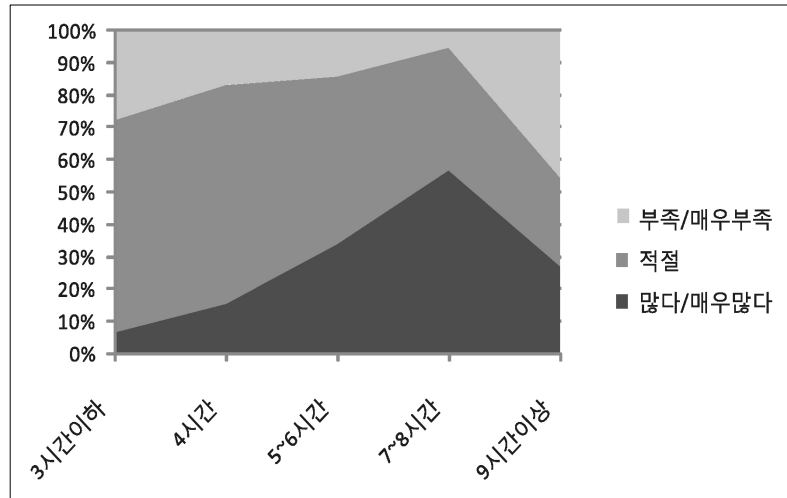
상기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방학 중의 양성과정은 교육 기간이 총 4주 이상 8주 이내로 운영된다는 점과 1일 교육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오전, 오후, 저녁 등 한나절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나 6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오전에 수업을 시작하여 저녁 전에 수업을 마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4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 시간대는 오전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대를 선호한다.

이수자들에게 방학 중 운영과 학기 중 운영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에 대한 설문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수자 대상 설문 시 1일 총 교육 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이수자들은 3시간 이하와 4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1일 교육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교육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볼 때, 1일 총 교육 시간은 4시간 이하일 때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1일 총 교육 시간별 만족도 1>



<그림 6. 1일 총 교육 시간별 만족도 2>



이것은 곧 일반 이수자들에게 하루 교육 시간이 4시간 이하일 때가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실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예비 수강생들이 단기간에 양성과정을 수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성과정에서는 이수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맞춰 양성과정을 운영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1일 총 교육 시간을 길게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성과정의 수강생들은 학업을 중단한지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난 연령대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다. 그런데 이수자들이 1일 교육 시간을 4시간 이하일 때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이런 표면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제도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1일 총 교육 시간이 당일 학습해야 하는 교과목의 수와 관계가 있다.

2.2.4.의 <표 39> ‘양성과정의 영역별 이수과목 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양성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은 평균 30여 개이다. 그리고 <표 37> ‘양성과정의 총 이수시간 현황’에서 보았듯이, 많은 양성과정이 120~130시간을 필수이수시간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한 과목당 배워야 하는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수자들은 한 과목을 배우는 데 할당된 시간이 4시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4\text{시간} = 120\text{시간} \div 30\text{과목}$). 따라서 1일 총 교육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개의 양성과정에서는 1일에 두 과목 이상을 편성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수자는 하루에 두 과목을 배우는 셈이다. 이때 한 강사가 두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나 또는 각각의 강사가 각각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수자가 하루에 두 과목 이상을, 그것도 어느 한 과목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두 과목이나 수강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곤란을 겪을 사람은 바로 이수자들이다. 이수자들이 한국어교

육과 관련이 없는 비전공자들인 경우는(관련 전공자들의 재교육 또는 보수 교육의 차원과는 다르게) 세 시간에 한 과목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두 과목(1일 교육 시간이 6시간인 경우) 또는 세 과목(1일 교육 시간이 9시간인 경우)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과목 시간을 편성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교육적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제는 강사가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강생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이수자들의 전공에 따라서 강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규 과정의 3학점 교과목은, 이를 산술적으로 말한다면 한 학기 동안 총 48시간(=16주 × 3시간) 진행되는 수업이다. 그런데 양성과정에서는 이런 과목을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또는 6시간 동안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학습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수자들이 교육 기간이 긴 양성과정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은 실제로 양성과정의 교육 시간이 많아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수자들이 이 교육 기간 동안 모든 교과목에 대한 학습과 이해에 필요한 절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양성과정에서는 오프라인보다는 한 과목이 여러 시간으로 나뉘어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강의 시간이 이렇게 짧게 나뉘어 있는 것은 이수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도움이 되는 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필수이수시간, 교육 기간, 1일 교육 시간 등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히 어느 하나만을 보완하여 이수자들의 불만 등을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운영 지침에서는 1일 총 교육 시간을 양성과정 운영의 총 교육 기간에 준하여 정하거나 1일 교육 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교육 기간을 제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3.1.2. 교과목 편성 - 영역별 분포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르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과목이어야 하고 이수자들은 이를 모두 이수하였을 때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수자들은 한국어교육 능력 향상에 있어 교과목 편성의 도움 정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개방형 질문의 응답 가운데에는 교과목 편성의 실제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수자들의 이런 반응은 양성과정의 교육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예비 수강생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양성과정을 수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이수자들이 한국

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준비 과정으로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보수 교육의 일환으로 수강하는 경우, 예비 교사로서 실제 교육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수강하는 경우에 따라서 교과목 편성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기관 입장은 교과목의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이수자들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기관 현황 조사에 협조한 총 43개의 양성과정 중 대부분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모두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양성과정에서는 특정 영역을 전혀 안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표 59> 영역별 교과목 미시행 기관 수

구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미 시행 기관	0	2	1	1	0

3영역은 2영역이나 4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영역이다. 이것은 양성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 3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영역에 어떤 과목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양성과정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대개의 양성과정에서 1, 2, 4영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필수이수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3영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필수이수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편성하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양성과정에서는 각 영역별로 필수이수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운영하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이수자들은 비록 ‘검정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양성과정에서 제출한 현황 자료가 사실이라면, 피해는 이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이수자에게 돌아간다.

<표 60>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준수 현황

구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비고
필수이수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 기관	26기관 (60.4%)	30기관 (69.7%)	14기관 (32.5%)	27기관 (62.7%)	22기관 (51.1%)	
필수이수시간보다 많이 운영한 기관	16기관 (37.2%)	11기관 (25.5%)	24기관 (55.8%)	12기관 (27.9%)	15기관 (34.8%)	
필수이수시간보다 적게 운영한 기관	1기관 (2.3%)	2기관 (4.6%)	5기관 (11.6%)	4기관 (9.3%)	6기관 (13.9%)	
계	43기관 (100%)	43기관 (100%)	43기관 (100%)	43기관 (100%)	43기관 (100%)	

교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표준 운영 지침에는 실습 교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

하다. 그것은 실습 교과목에 대한 이수자 참여율과 양성과정에서 제시한 실습물에 괴리가 있다는 점, 이수자들은 실습 교과목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근거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2.2.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3.1.3. 교재

교재의 내용이 교육 내용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재 내용의 질은 교육 내용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에 대한 검토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양성과정은 공인된 전문가가 집필한, 출판된 교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관 자체에서 교재를 제작할 경우 저자의 자격을 명시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저술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성과정의 교재는 기관 자체에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출판한 교재를 사용하는 기관도 3개 기관이 있다. 외부에서 출판한 교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개론’(허용 외, 2005년, 박이정 출판사),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김영만, 2005년, 역락), 학교문법과 문법교육(임지룡 외, 2005년, 박이정 출판사) 등 3종이다.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양성과정에서 사용한 교재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과정에서 사용한 교재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5.3점으로 전체 21개의 만족도 항목에서 16번째에 해당된다.

교육 환경에 관한 불만 사항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도 이러한 이수자들의 불만이 잘 반영되어 있다. 교재에 대한 불만 가운데에는 ‘양성과정 교재가 따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서 수료 후 참고할 만한 무엇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뿐 아니라 ‘교재가 미리 제공되지 않고 해당 시간 바로 전에 제공되어서 예습을 하기 어려웠다’는 응답, ‘집필 강사진들마다 중복되는 교재의 내용이 있었다’는 응답,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대비하기에 그 내용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개괄적이었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수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한국어교육의 질 높은 교육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교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해당 과목의 핵심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목차의 형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온라인 양성과정에서는 강의 교재로 동영상 강의에서 사용한 슬라이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강의는 동영상을 통해 교수 및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강사와 학습자 간의 능동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교육은 독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재는 이수자들이 독학이란 상황을 전제로 개념 중심의 충분한 예제와 설명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준 운영 지침에서 교재와 관련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수자나 교과목 담당자 그리고 기타 양성과정 운영 관계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양성과정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이 평균 30여 개임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 운영 지침에 어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또한 그것이 어떤 규정일지라도 그 규정이 궁극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3.2. 수업

3.2.1. 교과목의 내용

기관 현황 분석에 따르면 양성과정 교육 기간 동안 이수자들이 배우는 교과목의 수는 최소 7과목에서 42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목들의 수는 각 영역별 비중이 어떠한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비중이 높은 영역은 비중이 낮은 영역에 비해 여러 과목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한 양성과정에서 이수자들이 배우는 평균 과목의 수는 30.7과목이고 1영역부터 5영역까지 각각 7과목, 3.5과목, 13.2과목, 3.8과목, 3.2과목 등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목의 제목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1점을 받았다. 한편 이 항목의 만족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대학 기관에서 운영한 양성과정 출신자에 비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 출신자의 불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양성과정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점검 및 관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 교과목명과 그 교과목의 교육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 환경에 대한 이수자들의 설문 결과, 교과목명과 실제 수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수자들의 불만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강의의 교육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교과목명과 실제 수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교과목명과 교육 내용의 불일치를 언급한 대표적인 응답들은 다음과 같다.

- 강의 내용 중 자료와 강의 내용이 많이 상의하며 자리도 조금 불편하고 강사의 수업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과목마다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계획 단계에서 교수님들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쉬웠다.
- 적절한 교과과정이라 할지라도 실제 교육 내용은 그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 과목 이름과 맞지 않는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교수
- 많은 인원과 교과목과 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 한국어 양성과정이라는 하나의 틀이 아니라 각각의 과목과 내용이 따로인 듯했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았다.

이에 반해 기관 설문 조사에서는 양성과정의 교과목 제목과 실제 교과목 강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견은 2.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는 양성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결과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목명과 교육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재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수업 개요 혹은 수업 계획서를 점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매년 몇 곳의 양성기관을 임의로 지정해 교재 혹은 수업 개요, 수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인증제 혹은 허가제를 도입하여 양성과정 인증이나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교재, 수업 계획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검이나 관리 형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과목의 제목과 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듯이 수업 개요나 수업 계획서 역시 실질적인 강의 내용과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운영 지침에서는 다소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이라도 넣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양성과정의 운영’을 관리하는 감독 기관의 의무와 역할로 부여하지 않고 양성과정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이 표준 운영 지침의 실효성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양성과정 운영 기관에서는 각 영역별 교과목과 실제 수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사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이에 따른 강의안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 수료한 양성과정의 강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이는 전체 21개 항목 중 10번째에 해당한다. 또한 수료한 양성과정의 이론 수업 형태에 대한 만족도도 마찬가지다. 이는 전체 만족도를 묻는 21개 항목에서 12번째에 해당되며, 실습 수업(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의 만족도에 비하면 이 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61>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에 대한 이수자 만족도

구분	이론 수업	실습 수업		
		참관 수업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만족도(100점 만점)	59.6	66.2	65.5	64
평균	59.6	65.2		

이것은 이수자나 양성과정 실무자들은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부 강의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이수자들과 양성과정 실무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운영 지침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과정 전체 이수시간 및 과목, 영역별 강사의 자격 요건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2.2. 강의 참관/모의 수업/강의 실습

(1) 개요

기관 현황 조사에서는 실습 교과목인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중에서 ‘강의 참관’ 교과목을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은 그 다음 순이다. 이번에 조사된 현황에 따르면 5영역의 교과목 모두를 시행하는 기관은 43개 기관 중 34개 기관(79.8%)이다. 그리고 세 과목 중 두 과목만 시행하는 기관은 6개 기관(13.9%)이고 세 과목 중 한 과목만 시행하는 기관은 2개 기관(4.6%)이다. 즉, 대부분의 양성과정은 ‘한국어교육실습’의 모든 교과목을 충실하게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황은 이수자들의 응답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표 62> 실습 교과목 실시 여부에 대한 이수자 응답

구분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평균
예	86.2%	94.4%	65.1%	81.9%
아니요	13.8%	5.6%	34.9%	18.1%

응시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로는 ‘모의 수업’ 과목의 경험이 제일 많고, ‘강의 참관’, ‘강의 실습’ 과목의 수업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중에서도 ‘강의 실습’은 타 과목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관 현황상에서는 ‘강의 실습’이 전체 양성과정(43개) 중 86%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이수자들은 65.1%만 그 수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모의 수업’은 기관 현황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이수자들의 경험 수치가 높게 나왔다. 기관 현황에서는 86%로, 이수자 설문 결과는 94.4%로 나타난다. ‘모의 수업’이 다른 두 과목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양성과정의 운영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2.2.2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2) 강의 참관

각 양성과정에서는 ‘강의 참관’을 주로 4시간이나 6시간 또는 9시간으로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특성별로 한국어 강의 참관 유무를 조사한 결과, 대학 부설 기관의 경우에는 약 88%에 이르는 양성과정에서 ‘강의 참관’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그 밖의 기관의 경우, 각각 56.9%, 47.7%에 해당하는 양성과정이 이 교과목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 기관이 그 밖의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강의 참관'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 중 '강의 참관'이 '강의 실습'보다 비중이 높은 것은 '강의 참관'을 온라인 교육(동영상)으로 진행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 참관'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의 참관'에 비해 다양한 수업을 참관할 수 있고, 많은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이 수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 참관'은 교실 뒤편에 달린 일정한 방향의 화면을 통해서만 교실의 분위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실 참관의 목적은 담당 강사가 어떤 교수요목에 대해 '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만을 보기 위한 수업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강의 참관은 이수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역동적인 교육 상황을 한국어 강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교원 양성과정 운영 시 이수자들의 '강의 참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비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소 원론적인 것이라도 몇 가지 규정을 만들어 표준 운영 지침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강의 참관'은 예비 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이론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더라도 '강의 참관'은 오프라인 방식의 수업 진행을 원칙으로 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참관'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는 온라인 방식의 '강의 참관'이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온라인의 '강의 참관'은 단순히 수업 장면을 녹화한 화면을 이수자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각 수업의 단계별 교수-학습 장면을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유의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된 참관 자료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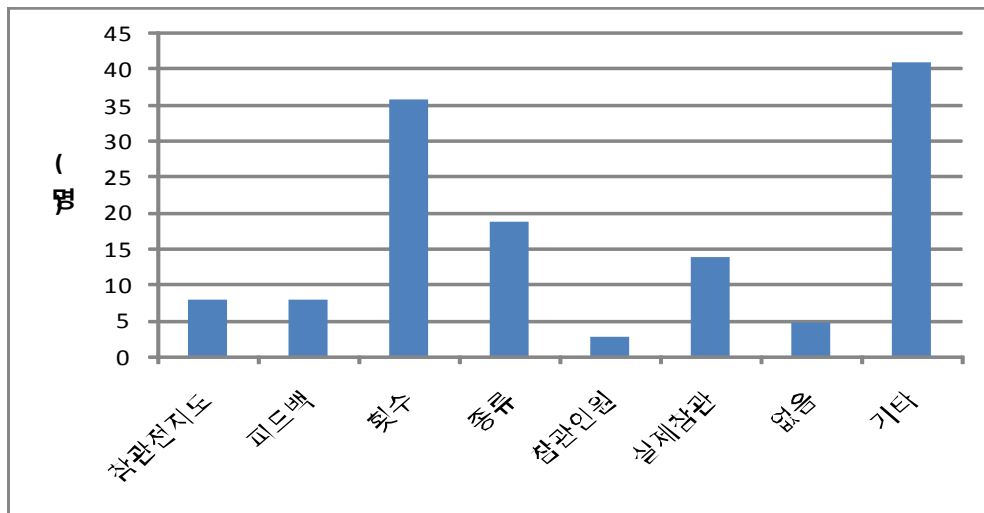
이수자 설문 결과 강의 참관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아래 <그림 7. 강의 참관에 대한 불만 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학생당 강의 참관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참관 기회가 더 많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수자들의 다양한 급별 수업, 기능별 수업의 참관이 필요하다.

수강생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수강생들이 기능별 수업, 급별 수업을 참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2언어 및 외국어 교수법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론을 통해 배운 기능별 교육 이론과, 교수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기능별 강의 참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능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교육 내용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교수법 및 교사의 수업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초·중·고급의 수업을 모두 참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수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수

강생들은 모든 급의 수업을 한 번씩 참관할 필요가 있다.

‘강의 참관’은 원론적으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별 수업을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참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수강생 1인당 강의 참관은 24회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강의 참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비교적 현실적이기도 하고 실효성도 얻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초·중·고급 숙달도별 수업에 참관하는 것이다.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이렇게 초, 중, 고급별 수업을 각 1회씩 총 3회를 참관하게 된다면 수강생들의 참관 기회가 현재의 1회보다 2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 또한 정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하루 4시간 수업 시 두 가지 이상의 기능별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급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수업을 고루 참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급을 달리하여서는 모든 기능별 수업을 고루 참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급, 다양한 기능별 수업을 참관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강의 참관에 대한 불만 사항>



이수자 설문 결과, 강의 참관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강의 참관 시 참관에 대한 안내 및 지도가 없어 참관의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 개방형 질문의 응답으로 강의 참관 수업에 대한 불만의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다.

- 수업 목표나 수업 내용이 먼저 학습자에게 고시가 된 후 참관을 해야 장단점을 파악할 텐데 강의 계획서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수업이었다.
- 참관 일정이 분명하지 않았고 교사가 어떤 수업 계획안을 가지고 지도하는지 불분명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고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다.
- 교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 참관이 딱 2반 정도였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기가 어려웠다. 교사

의 경력이나 수업 내용에 대한 사전적인 이야기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업을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았다.

- 다양한 수업을 참관하지 못했고 또한 참관한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할 만한 기준이 없었다.
- 강의 참관 시 필요한 참관할 강의에 사전 준비에 대한 예고가 없었고 그러므로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또한 강의 참관 시 교사의 교안이나 활동에 대한 자료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 정확하지 않은 피드백 준비 부족 참관 교육에 대한 명확한 교육 등등.

양성과정 수강생들은 한국어 수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을 참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지식이 없다. 따라서 양성과정에서는 이들의 효과적인 강의 참관을 위해 참관 전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강생들에게 체크리스트 혹은 참관 보고서, 참관 일지 등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강생들의 강의 참관이 한국어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관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 전에는 참관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 사항 외에 해당 참관 수업의 단계 및 학생 구성, 반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이는 해당 한국어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교사가 사전에 직접 안내하는 것이 좋다.

이수자 설문 결과, 강의 참관 후 지도가 없어 참관의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표적인 의견은 아래 제시된 바와 같다. 따라서 담당 강사는 강의 참관 이후 수강생들이 작성한 체크리스트, 참관 보고서, 참관 일지 등을 바탕으로 참관한 수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토론을 진행하되 참관 일지에 대한 피드백, 참관한 한국어 수업 강사와의 개별적인 질의응답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지도는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관 후의 만족스러운 피드백이 없었다.
- 그냥 구경하는 수준에 머문 것 같다. 참관의 기회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직 선생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참관 후에 서로 얘기할 기회도 가졌으면 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고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다.
- 동영상 참관과 더불어 실제 참관과 질의 시간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 강의 참관 후 피드백을 할 수 없어서..
- 정확하지 않은 피드백 준비 부족 참관 교육에 대한 명확한 교육 등등.
- 온라인 강의라 직접 첨삭이나 피드백이 용이하지 않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으로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이 예시되어 있다. 이 중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은 예비 교사들이 배운 한국어교육의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수업을 구성해 진행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초·중·고교로 파견되어 교생 실습을 하는 교직

이수자들도 ‘강의 참관’과 ‘강의 실습’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한국어교육의 교과목 실습 중 ‘강의 참관’과 ‘강의 실습’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현장 여건상 ‘강의 실습’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한 학기가 10주라는 점; 정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 양성과정이 개설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학습하는 성인 학습자라는 점; 교육비를 지불하고 스스로 교육 기관을 선택해 학습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큰데 예비 교사들의 잦은 실습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강의 참관’은 필수 교과목으로 하고, ‘강의 실습’이나 ‘모의 수업’은 양성과정의 사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의 참관’과 ‘강의 실습’의 경우 그 환경이 공통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장이라는 점에서 표준 운영 지침에 실습 기관의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실습 교과목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표준 운영 지침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의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모의 수업

2.2.4의 <표 43> ‘양성과정 ‘모의 수업’ 시수 현황’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각 양성과정의 ‘모의 수업’은 주로 5~6시간이나 8시간으로 배정하여 진행된다. 양성과정에서 모의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 내용에서, 이수자들의 94.4%는 자신이 이수한 양성과정에서 ‘모의 수업’이나 ‘연구 수업’ 등의 형식으로 실습 교과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모의 수업’이 ‘강의 참관’이나 ‘강의 실습’에 비해 실시율이 높은 이유는 기관 자체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않아도 이 수업의 실시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의 수업에 대한 이수자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불만 척도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로는 ‘대표 몇 명만 실시하여 모든 수강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 모의 수업에 피드백이 없었다는 점, 모의 수업의 횟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점’ 등 주로 이 네 가지를 꼽았다. 이 중 모든 수강생들에게 모의 수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모의 수업은 비록 실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배운 이론과 교수법을 토대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 본다는 점에서 교원 양성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수강생 전원을 상대로 모의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모든 수강생들이 1회 이상 모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수자 설문 결과, ‘모의 수업’에 관한 총 134건의 불만 사항 중 피드백 부재에 관한 응

답이 26건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모의 수업을 실시하기 전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의 수업 이후에도 역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응답이었다. 따라서 모의 수업을 실시하기 전 교안 작성 등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의 수업 이후에도 담당 강사의 피드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의 수업이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한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응답도 11건 나타났는데 이 역시 모의 수업을 위한 준비 과정 및 모의 수업 이후의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의 수업은 외국인 학습자는 물론이고 양성과정 동료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의 수업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실습은 중요한 교육 내용의 하나이다. 비록 시간이 짧더라도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모의 수업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의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지역이나 양성과정 운영의 여건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업은 절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모의 수업’의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다른 수업의 시수를 줄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¹⁾ 그러므로 모의 수업에 대한 원칙적인 방안을 표준 운영 지침에 제시할 것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각 양성과정의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4) 강의 실습

2.2.4.의 <표 44> ‘양성과정 ‘강의 실습’ 시수 현황’에서 이미 보아 알 수 있듯이, 각 양성과정의 ‘강의 실습’은 주로 4시간이나 6시간, 그리고 8시간으로 배정된다.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이수자들에게 강의 실습이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있었다’는 응답이 ‘없었다’는 응답에 비해 30%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습 교과목 중에 이 과목의 실시 비율이 가장 낮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실습률이 낮은 이유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에 아직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예비 교원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부설의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1) 수강 인원이 30명이고 모의 수업을 6시간으로 배정하게 되면, 1인당 모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산술적인 시간은 10분에 불과하다.(300분(=6시간×50분)÷30명=10분) 그런데 실제 모의 수업을 하기 전 준비 단계와 모의 수업을 한 다음의 모의 수업 대한 평가가 있을 때에는 1인당 10분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수자 설문 결과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 총 1,433명의 응답자 중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의 실습 교과목이 충분치 못하였다는 응답이 25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이수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면 실습 교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일부 학생들에게만 ‘강의 실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수강생들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 실습이 교원 양성과정의 핵심 부분의 하나이므로 가급적 모든 수강생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강의 실습’도 실습 전과 후에 담당 강사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의 수업과 비교했을 때 ‘강의 실습’은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수업료를 내고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강의 실습 전에 더욱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며 모든 수강생들이 각각 수업에 투입되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므로 모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의 실습에 대한 표준 운영 지침도 앞서 언급한 모의 수업에 준하여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 역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는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3. 평가

3.3.1. 출석 관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일반적인 이수시간인 120시간은 한국어교원이 되기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현장 경험을 쌓기에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므로 수강생들에게 정해진 시수를 성실히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2.2.4.의 <표 45> ‘양성과정 요구 수강생 출석률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3개의 양성과정 중 23개 양성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80~90% 이상 출석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이와 같은 양성과정의 출석률은 매우 엄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높은 출석률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필수 이수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필수 이수시간’인 ‘120시간’을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20시간’을 양성과정에서 운영하는 최소한의 교육 시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전자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은 비록 이 기관에서 양성과정 수강생들에게 출석률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수강생이 총 이수시간이 120시간인 양성과정을 보통의 양성과정에서 제시하는 출석률(80%~89%)로 이수한다고 할 때 이 수강생의 실제 이수시간은 96시간~106.8시간이 된다. 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에 작게는 13.2시간, 많게는 24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따라서 수강생들에게 수료 조건으로 출석 80% 이상을 요구하려면 적어도 양성과정의 총 이수시간은 150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할 경우, 이수자들이 150시간 중 80%만 출석하여도 최소한 120시간은 이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이해한다면, 양성과정에서는 출석률 90%를 기준으로 1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출석률을 고려한 영역별 이수시간은 아래 <표 63> 참조). 또한 출석이나 결석도 총 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양성과정에서 수강생들의 지각과 출석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120시간’이 현재 거의 모든 양성과정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양성과정 교육 시간으로 이해한다면 현재의 양성과정이 요구하는 출석률은 매우 엄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3> 최소한 120시간 이수 기준, 출석률 고려 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구분 (120시간 대비 비율)	1영역 (25%)	2영역 (10%)	3영역 (38.3%)	4영역 (10%)	5영역 (16.6%)	계	출석률	미참석 시 수료 불가 시간
시간 수	30	12	46	12	20	120.0	100%	1초 이상
	31.5	12.6	48.4	12.6	21.0	126.3	95%	6.3시간 이상
	33.3	13.3	51.0	13.3	22.2	133.3	90%	13.3시간 이상
	35.2	14.1	54.0	14.1	23.5	141.1	85%	21.2시간 이상
	37.5	15.0	57.5	15.0	25.0	150.0	80%	30시간 이상
	40.0	16.0	61.3	16.0	26.6	160.0	75%	40시간 이상
	42.8	17.1	65.7	17.1	28.5	171.4	70%	51시간 이상

거의 모든 양성과정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필수이수시간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표준 운영 지침에서도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을 양성과정의 최소 교육 시간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출석률을 양성과정 실태조사 시 이들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출석률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실습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기본적으로 매우 짧게 제시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양성과정에서 무엇보다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온라인 방식에서의 출석 관리는 오프라인 방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히려 통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현재 온라인 방식에서는 강의 시간 동안 접속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여부로만 출석 점검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수강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실제로 보지 않고 그저 접속만 유지하며 수강 시간을 채울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 수업 시간에 CBT 방식의 퀴즈를 풀게 함으로써 거짓 수강을 방지하고 나아가 수업의 피드백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3.3.2. 시험 / 실습 평가

(1) 시험

2.2.4.의 <표 47> ‘양성과정 수료 시 평가 반영률 현황’에서 보았듯이, 양성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평가가 수료의 조건의 하나가 되는 기관이 있다. 총 43개 중 24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양성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 평가에 꼭 이론 수업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19개 양성과정의 자체 평가 중에 10개 양성과정에서는 이론 수업에 대한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양성과정에서는 출석과 기타

(한국어교육 세미나, 실습 등) 항목 등으로 수강생을 평가하고 있다.

양성과정이 자체적으로 치르는 필기시험이 양성과정 수강생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양성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교과목 시간에 수강생들의 관심은 시험 예상 문항에 관심이 모아지는 경우가 많다. 한 교과목의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강의하기도 바쁘는데 그 가운데 예상 문항을 풀이한다든가 ‘검정시험’의 기출 문제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한 교과목의 강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양성과정의 교육 목표를 변질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표준 운영 지침에서는 이론 수업 전반에 대한 필기시험의 시행을 권고하였다. 양성과정마다 자체 필기시험에 대한 시행 양상이 달라 수강생들이나 예비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필기시험 시행이 양성과정 운영 목적에 다소 걸림돌이 되더라도 수강생의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강생들에게 유익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평가에 대한 규정을 넣어 양성과정 운영상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필기시험은 양성과정의 모든 이론 수업을 성실하게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시험 영역 역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일부 온라인 방식의 양성과정에서는 이론 수업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양성과정과 달리, 온라인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동시에 수료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생긴 결과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제각각 수료하게 되는 이들을 상대로 매번 필기시험을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과정에서는 ‘검정시험’은 자격 취득의 한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수자들에게 ‘검정시험’을 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온라인 양성과정에서도 이론 수업에 대한 평가는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실습 평가

기관 현황 조사 결과 자체적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43개 기관 중 4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기관 중에서 종합 평가의 항목으로 ‘기타’를 포함시킨 기관은 32개 기관에 해당되며, 이 기타 항목에서 ‘실습’을 넣은 기관은 26개 기관에 해당된다. 이 중 전 평가 항목 100% 대비 실습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는 기관이 6기관이다(전체 43개 기관 대상 13.9%, 26개 기관 대상 23%). 이것은 실습 수업이 예비 교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데 중요한 항목임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이다.

실습 교과목은 이론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원 양성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전체 양성과정을 잘 이수했는지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 할 수 있다.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의 실습 교과목에 대해 평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습 교과목은 필수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론 수업에 대한 필기시험과 더불어 실습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표준 운영 지침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습 교과목은 수강생들에게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이 한국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가로부터의 전문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므로 수강생들의 진로 선택 및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향후 준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3.3. 수료 기준

2.2.4.의 <표 48> ‘양성과정 수료 조건 현황’에서 보았듯이, 각 양성과정의 수료 조건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이들 양성과정의 수료 조건을 분류해 보면 크게 3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출석률이 몇 %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시험에서 몇 %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타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습과 관련된 조건(예를 들면 참관 수업 필히 참석, 참관 수업 및 실습 필히 참석 등), 수업 참여도, 강의안 필히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료의 기준도 양성과정마다 시행 양상이 다르므로 수강생들이나 예비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표준 운영 지침에 수료 기준에 대한 규정을 형식적으로나마 넣어 양성과정 운영상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대체로 평균 60점 이상 득점의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국어기본법은 필수이수시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검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 자격증의 부여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출석 기준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성과정에서 이를 잘 지키기 위해 일부 양성과정처럼 양성과정 실무 담당자에게 수시로 출석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양성과정의 수료 조건 중 하나인 ‘기타 항목’의 실질적인 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실습은 주로 출석의 연장선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실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습에 참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참석과 불참만으로는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 항목으로서 충분하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습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양성과정 운영 속에 수강생의 한국어교육실습 평가를 포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검정시험'에서도 '실습'에 대한 평가가 없기 때문이다. '검정시험'에서는 필답 고사의 주관식 문항으로 이수자들의 '교안 작성' 능력만 검증하고 있다. 예비 교원의 전문성의 유무에 대한 검증 항목으로 '실습'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나 현재의 '검정시험' 운영 여건상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검정시험'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습 수업'에 대한 평가가 양성과정에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실습 교과목 역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평가 결과를 수료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평가로서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실습 교과목의 평가 결과를 수료 기준에 반영하되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강사진 및 강사진 구성

3.4.1. 강사진

2.2.1.의 <표 9> ‘영역 및 항목별 이수자 만족도 현황’에서 보았듯이,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에서 이수자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다른 아닌 ‘강사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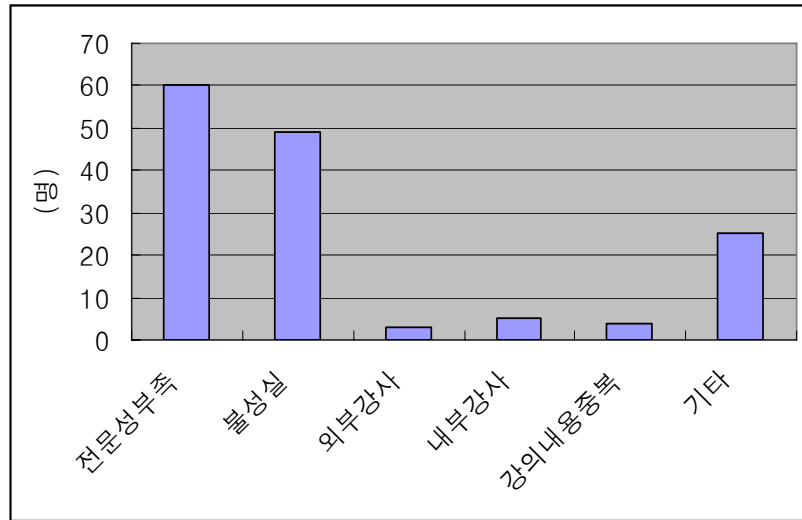
그런데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 총 1,433명의 응답자 중 강사에 대한 불만은 177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목 편성이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담당 교수의 자질을 꼽은 응답자가 있다. 그러므로 지침에서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강사가 수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담당 교수에 대한 불만 사항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강의 준비가 부족하고 불성실하다는 것의 두 가지 응답이 가장 많다. 우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구체적으로 담당 교수가 한국어교육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경험 이 없어 담당 교과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관련 교과목 및 실습 교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수자들의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양성과정 본연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표준 운영 지침은 강사진을 세부 영역별 전공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습 교과목의 경우는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진이 이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3영역의 경우도 한국어교육학 영역이므로 한국어교육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어교육 현장의 경력자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모두 갖춘 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1, 2, 4 영역과는 달리 현재 한국어교육전공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영역의 자격은 ‘박사 과정 수료자 이상’ 등으로 하향 조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5영역은 실습 교과목이다. 이 영역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국어 강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은 석사학위만 취득한 경우가 많아서 이 영역의 자격은 이론 수업인 3영역보다 학력을 더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수업을 담당하는 데 현장 경험 역시 중요하므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양성 과정에서 현장 실습을 지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8. 강사에 대한 불만 요인>



- 강사진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함 (대다수가 국문학이나 국어교육인 관계로) 또한 한국어 강의에 대한 실습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함
- 우수한 강사진이 있는가 한 반면 한국어교육에 종사한 경험도 없는 강사도 있어서 한국어교육에 대해 수업을 받은 것인지 국어 교육에 대해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강사진이 국문과 전공 교수들이어서 한국어교육에는 관련 지식이 없는 것 같음. 한국어교육에는 한국어 전공 출신의 강사들이 가르쳤으면 함.
-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 국어교육 또는 국어전공 교수님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
- 대부분의 강사들이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기타 외국어의 교.강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다.
- 한국어교육에 관한 현장 경험이 없는 전임교수진들의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음
- 국문학을 전공한 강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에 적합하지 않은 강의를 많았음
- 강사가 실제 국어 선생님이므로 접근 방식이 학교 수업하듯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와 닿지가 않았으며 자격증 시험대비반으로 수업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의 수업이라든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교수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 교수진의 구성이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니라 국어 또는 교육학 쪽이 대다수여서 실제 한국어 교육하고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 국립대학에서 개설한 강의 때문인지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가 아닌 영문학 교수까지 참여한 커리큘럼의 전문성이 떨어졌었고 교수진의 적극성도 부족했다.(교수 평가 기회도 없었음) 일부 교수는 한국어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러웠다.

3.4.2. 강사진 구성

2.2.4.의 <표 49> ‘양성과정 강사 수 현황Ⅰ’과 <표 50> ‘양성과정 강사 수 현황Ⅱ’에서 알 수 있듯이, 강사의 수도 양성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황 조사에서는 강사를 내부와 외부의 두 부류로 나누었다. 여기서 내부라 함은 대학 부설 양성과정인 경우 그 대학 내 어학원 소속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와 그 학교에 재직 중인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강사를 포함한다. 그리고 외부 강사는 내부 강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강사를 말한다.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체 내부 강사가 없는 경우가 5개 기관이나 된다. 이 5개 기관 중 2개 기관은 대학 부설 양성과정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다. 대학 부설 양성과정에 내부 강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은 대학 내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 외국어학과 등)가 없어서 양성과정 운영 시 강사 전원을 위촉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어교육과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또는 기타 언어(교육)학과가 없는 대학은 물론이고 민간 및 사설 기관의 양성과정에서도 내부 강사 없이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성과정에 내부 강사가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강사에 대한 의존도 역시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내부 강사가 3명 이하인 7개 기관은 1개 기관만 제외한 6개 기관에서 강사를 총 3명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3명의 강사가 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강사 3명이 120시간을 동등하게 나누어 강의한다고 할 때 한 강사가 담당해야 할 강의 시간이 40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양성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교과목에 3시간에서 4시간을 배정하는데 한 강사가 40시간을 담당한다는 것은 적어도 10과목 이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6개 양성과정은 적은 강사로 양성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인지 15주 정도 내외의 교육 기간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내부와 외부의 강사 구분 없이 양성과정의 총 강사 인원이 9명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총 8개 기관이 9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저 8주에서 최대 15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준 운영 지침에서 강사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여 제시하기란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표준 운영 지침에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표준 운영 지침 개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강사 소속의 비율과는 관계없이 강사의 총 인원에 최소 인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성과정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미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한국어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등을 영역별로 비중을 달리하였으므로 양성과정의 강사진도 산술적으로나마 영역별 비중에 따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64> 영역별 비중에 따른 강사의 적정 수

구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계
120시간 대비 비율	25%	10%	38.3%	10%	16.6%	100.0%
시간 수	30시간	12시간	46시간	12시간	20시간	120.0시간
강사의 수	2.5명	1명	3.8명	1명	1.7명	10명

위와 같이 영역별 비중에 따라 산술적으로 강사의 수를 정하게 되면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모두 10명이 된다. 그리고 각각의 강사는 최대한 총 12시간 정도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한 과목당 3시간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할 경우 강사는 최대한 4과목을 담당하게 되고, 한 과목당 4시간일 경우 강사는 최대한 3과목을 담당하게 된다.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된 영역을 묶어서 강사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표 65> 관련 영역별 강사진 구성

구분	1영역	2영역	4영역	3영역	5영역	계
(120시간 대비 비율)	35%		10.0%	54.9%		100.0%
시간 수	42시간		12시간	66시간		120.0시간
강사의 수	3.5명		1명	5.5명		10명

이때 각 영역을 담당하는 강사의 조건은 3.4.1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지침에는 절대 인원의 강사진 확보 차원에서 각 영역별로 최소 2인 이상으로 강사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3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비중이 높으므로 최소 3명 이상의 강사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안이라 생각한다.

3.5. 기관 운영

3.5.1. 강의실

2.2.4.의 <표 51> ‘양성과정 평균 수강 인원과 강의실 규모’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양성과정은 수강 인원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큰 강의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강 인원이 30명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수에 비해 작은 강의실을 사용하는 양성과정도 있다.

이수자들은 ‘강의실에 비해 인원이 많았다’ 또는 ‘인원에 비해 강의실이 너무 컸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불만은 강의실의 규모가 수강 인원에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총 21개 항목의 만족도 조사 결과 ‘수강 인원 대비 강의실 크기 만족도’는 100점 만점의 62.4점으로 6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항목의 만족도는 21개의 평균 만족도가 59.5점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점수라 할 수는 없다.

2.2.1.에서 강의실과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 ‘민간 및 사설 기관’의 만족도가 ‘대학 부설’이나 ‘정부/자자체/공공 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육 기차재 활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민간 및 사설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온다.

온라인을 위주로 하는 양성과정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강의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오프라인 수업일 때 수강생들이 한 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양성과정 운영자는 이들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일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학 기간 중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용 강의실에 냉난방 시설은 필수적이다. 가장 덥고 추울 때 양성과정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의 경우는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양성과정이든 냉난방 시설을 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강 인원 대비 강의실 규모에 큰 차이가 없을 때 비로소 냉난방 시설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중앙식 냉난방에서 개별 냉난방으로 바뀌는 것이 최근의 추세여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이수자들의 만족도는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확인한 현황에서와 같이 수강 인원 대비 2배 이상의 강의실 규모로 양성과정을 운영한다면 여전히 이수자들의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민간 및 사설 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창문을 폐쇄하는 등 여러 조치들로 이수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냉난방과 관련하여 환기 시설, 예를 들면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창문을 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수자 설문 시 ‘밀폐된 공간’, ‘불쾌한 공기’ 등

으로 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양성과정과는 달리 온라인 양성과정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상의 제약은 없다. 오히려 온라인 양성과정에서의 교육 환경은 '온라인 접속 환경'과 '동영상 강의의 화면, 녹화의 질'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양성과정의 수강생이 웹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도중에 '일시 중지'를 할 경우 동영상이 중간에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수강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양성과정에서 수강생이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보다 강의 내용을 자기 컴퓨터에 내려받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환경 역시 양성과정이 어느 특정 제품, 예를 들면 익스플로러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학습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웹 환경을 보다 유연한 환경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3.5.2. 기자재

교육 기자재 활용에 대한 이수자의 만족도는 다른 문항에 비해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수업 시간에 교육 기자재를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대학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나 공공 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칠판과 분필은 물론,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등을 모두를 갖추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멀티미디어실로 강의실을 꾸미고 있어 실시간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 및 사설 기관'의 경우 교육 기자재가 대학만 못하다는 이수자들의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양성과정에서 교수-학습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온라인 환경이 어떤지 살펴야 한다. 이수자 설문 중에서는 녹화 및 편집이 매끄럽지 않아 수업이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불만과, 녹음의 음질도 좋지 못해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다. 온라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이를 극복할 방도가 없다. 따라서 온라인 동영상에 대해서는 녹화 상태나 음질 등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의 특성상 똑같은 내용의 강의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 동영상 강의는 실제로 제작된 시점보다 더 오래 전에 제작된 강의인 듯한 착각이 든다. 이는 이수자들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영상 강의는 내용이든 형식이든 주기적으로 갱신하

는 것이 필요하다.

3.5.3. 기타

설문에 응한 이수자들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만이 자신들이 이수한 양성과정에서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1.의 ‘(라) 학습 평가 및 사후 관리’ 참조). 특히 60대 이상인 이수자들은 다른 연령층과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양성과정을 수료한 이후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양성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데, 60대 이상 연령층 이수자들의 온라인 매체 사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이해된다. 양성과정에서는 향후 사후 정보를 제공할 때 전달 방법에 있어서 이들 연령층 이수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이수자들이 받은 정보 대부분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련 정보’이며 이 외에도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 ‘양성과정 보수 교육’,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정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을 양성과정의 실제 중점 사항으로 두고 있는 양성과정이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을 실제 중점 사항으로 두고 있는 기관에 비해 사후 관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강생이 수료한 후에도 사후 관리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련 정보’, 다음으로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관련 정보’, ‘수료자 DB관리(47.5%)’, ‘양성과정 보수 교육(25.0%)’, ‘기타(20.0%)’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표준 운영 지침의 내용

4.1. 표준 운영 지침의 구성

표준 운영 지침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강사진, 기관 운영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영역은 이수자 설문과 기관 심층 면접,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영역을 선정하여 이를 대영역의 하위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를 테면, 지침에서는 ‘교육과정’을 대영역의 하나로 선정하고 여기에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교과목 편성’, ‘교재’ 등을 소영역의 세부 항목으로 선정하여 다룬 것이다. 이 밖에도 ‘수업’의 하위 영역으로는 ‘교과목의 내용’과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실습 교과목 각각을 포함하였는데 실습 교과목의 경우 교육 방식 및 교육 내용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각 과목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평가’에 관한 지침은 특정 양성과정의 경우 평가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실시하고 있더라도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하여 양성과정의 교육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석’, ‘필기시험’, ‘실습 교과목 평가’, ‘수료 기준’ 등 평가 일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포함하였다.

‘강사진’에 대한 지침은 ‘강사의 자격’과 ‘강사진의 구성’ 등 두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기관 운영’에서는 ‘교육 기본 시설’, ‘행정 직원’과 ‘프로그램 평가’를 하위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 | | |
|-----------------|------------|
| 1) 교육과정 | - 출석 관리 |
| -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 - 평가 |
| - 교과목 편성 | - 수료 기준 |
| - 교재 | |
| 2) 수업 | 4) 강사진 |
| - 교과목의 내용 | - 강사의 자격 |
| - 강의 참관 | - 강사진의 구성 |
| - 모의 수업 | |
| - 강의 실습 | 5) 기관 운영 |
| | - 교육 기본 시설 |
| | - 행정 직원 |
| 3) 평가 | - 프로그램 평가 |

4.2. 표준 운영 지침의 세부 내용

4.2.1. 교육과정

(1)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은 15주 이상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4주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은 4시간 이하가 적합하며 최대 7시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총 교육 기간 및 1일 교육 시간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 효과, 만족도,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안이 필요하다.

(2) 교과목 편성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 1에서 정한 바대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 영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육 시간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 한국어교육실습(5영역)의 경우 '강의 참관'은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실태조사 결과,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을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중의 하나로만 운영하는 기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수자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현장 사정과 운영 및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강의 참관'을 필수 과목으로 제시하고,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은 최소한 두 과목 중에 하나를 반드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재

- 양성과정의 교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 출판 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관 자체의 교재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편찬에 참여했거나 감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듯이 양성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이수자의 불만은 매우 높으므로 원론적으로나마 교재 선정 및 활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2.2. 수업

(1) 교과목의 내용

- 각 영역별 교과목명과 실제 수업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 모든 강사에게 이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강의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실태조사 결과, 양성과정에서는 강의 진행(수업 내용, 강의 수준, 강의 형식 등)이 강사 고유의 재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영역의 교과목은 그 수업 내용이 적절하지 않는다는 이수자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2) 강의 참관

- ‘강의 참관’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수업을 대상으로 한다.
- ‘강의 참관’의 횟수는 초, 중, 고급별 각 1회 이상이 바람직하다. 수준별 참관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다.
- ‘강의 참관’ 전후에 참관 일지 작성, 참관 평가 등 참관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교과목 편성'에서 기술한 것처럼 '강의 참관'은 실습 영역의 필수 과목으로 제시하였다. '강의 참관'은 학습자 수준별 강의에 각각 참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양성과정 운영 기관에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고, 모든 급별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현실안도 필요하다.

(3) 모의 수업

- '모의 수업'은 외국인 학습자, 양성과정 동료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모의 수업'은 양성과정 전체 수강생들에게 1회 이상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 '모의 수업' 전후에 교안 작성에 대한 안내,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의 실습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실태조사 결과, '모의 수업'을 수강생 중의 일부만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급적 전체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양성과정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강의 실습

- '강의 실습'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또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어야 한다.
- '강의 실습'은 양성과정 전체 수강생들에게 1회 이상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 강의 실습 전과 강의 실습 후에 실습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강의 실습'이 수강생 중의 일부만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급적 전체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양성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2.3. 평가

(1) 출석 관리

- 원칙적으로 총 교육 시간의 85% 이상 출석률을 수료 조건으로 한다.
 - 단, 실습 영역의 경우 반드시 20시간 이상은 출석해야 한다.
- 수강생의 출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출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실태조사 결과,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습' 영역의 경우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이수시간(2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평가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영역은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은 수강생의 실습 내용을 평가하도록 한다.

실태조사 결과, 이론이나 실습에 대한 평가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목 실습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과목 실습을 평가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수료 기준

- 수료 기준은 출석 기준에 부합하고 필기시험 및 실습 영역 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한다.

‘수료 기준’이 양성과정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어 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4.2.4. 강사진

(1) 강사의 자격

- 1, 2, 4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대학(원)의 해당 분야 전공학과 전임강사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3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대학(원)의 해당 분야 전공학과 전임강사 이상인 자
 -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5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실태조사 결과, 교과목 담당 강사의 수업 내용이 교과목명과 차이가 난다는 이수자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각 영역에 따른 전공자가 반드시 강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3영역과 5영역은 한국어교육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강사의 자격 조건에 차이를 둔다.

(2) 강사진의 구성

- 강사진은 영역별로 최소 2인 이상(3영역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10명 이상의 강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향후 일부 강사진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영역별 강사진 구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2.5. 기관 운영

(1) 교육 기본 시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 수강 인원에 적절한 강의실이어야 한다.
- 전용 강의실은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의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양성과정 운영 시 수업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강생 대비 적절한 강의실 확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2) 행정 직원

- 양성과정 운영 기간 동안 수강생들을 지원할 행정 직원 또는 교육 조교가 상주하거나 지원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양성과정 운영 시 수강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 직원의 상주 또는 지원 창구의 운영이 필요하다.

(3) 프로그램 평가

- 매 학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차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양성과정 시행 후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수강생들의 불만 사항을 양성과정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맺음말

이 과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인 기준 및 지침도 없는 현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양성과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현황 조사, 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설문 조사, 양성과정 기관 대상 설문 조사, 양성과정 심층 면접 조사, 양성과정 기관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 현행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지침의 기본 내용을 마련하였다. 이 과제는 이 지침을 통해 양성과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어교원의 질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현황 조사 결과 2009년 12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양성과정은 총 78개로 2006년도 대비 2.5배의 양적 성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던 기관이 운영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 또는 대학 내의 양성과정 운영 기관이 변경되는 등 일부 기관은 다소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중 ‘교육 기간’, ‘1일 교육 시간’, ‘총 교육 시간’이다. 이것은 이수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항목들이며 동시에 이수자들이 양성과정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수자들은 양성과정을 선택할 때 단기간에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실제 120여 시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이 과정이 갖고 있는 체계상의 문제로 이수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 5일을 매일같이 3-9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야 하고 적어도 3-4시간에 한 과목 전체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양성과정 본연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표준 운영 지침에서는 양성과정에서의 교육 기간 및 1일 교육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양성과정의 필수이수시간이라 할 수 있는 총 교육 시간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을 하지 않은 채 현재의 국어기본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다. 향후 법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완하여야 할 때 교원 양성과정의 필수이수시간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과정의 총 이수시간을 제외한 교육 기간 및 1일 총 교육 시간에 대한 지침은 이수

자들이 예비 한국어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천천히 익힐 수 있도록 절대 시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수자들이 예비 한국어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양성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하고자 하는 이수자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운영 방침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단기간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기관이나 또는 쉽게 양성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예비 수강생들을 최소화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이번 연구 조사에서는 양성과정의 '교육 운영' 중 '강의 수준', '교과목명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 일치' 등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부분은 특히 양성과정 실무자들에게는 감지되지 않고 이수자들만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는 특징이 있다. 이수자들은 양성과정의 교과목 담당 강사들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강의하는 수업 내용이 수강생들 수준과 맞지 않거나 또는 강의 내용이 해당 교과목 내용과 달라서 비전공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운영 지침에서는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모든 담당 강사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강의안을 제출하게 하는 등 이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양성과정에서의 강사 위촉 시 강사들의 자격 조건을 확실히 명시하고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몇 명 이상의 강사가 필요한지 등의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다만 양성과정 운영상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각 영역에 맞게 강사의 자격 조건에 차이를 두어 이를 제안하였다. 표준 운영 지침 중 강사의 자격 요건에서 '1, 2, 4' 영역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학력을 한정하는 반면 3영역과 5영역의 강사 자격에서는 '박사학위 수료자'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력을 다소 낮추었다. 한편 3영역과 5영역은 다른 영역과 달리 '한국어교육 현장 경력'이란 조건을 넣었는데 이것 역시 양성과정 운영상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것은 양성과정 운영 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일부 강사들에 대한 이수자들의 강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강사진 구성'에 대한 지침에서도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해당 영역의 강사진 수에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 강사진 구성에 관한 이 지침은 일부 강사진으로 전체 과정을 운영하려는 양성과정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표준 운영 지침에서 양성과정의 강사 자격이나 강사진 구성 등에 제한을 두고, 형식적으로나마 해당 교과목명과 수업 내용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수자들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지적(知的) 욕구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지침은 일부 양성과정에서 소수의 타 전공자를 활용하여 이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하여 제약을 가함으로써 예비 양성과정 수강생들에게 미칠 피해를 미연에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양성과정의 '교육 환경'에서는 '교육 기자재 활용에 대한 만족도'나 '수강 인원 대비 강

의실 크기 만족도' 등이 이수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내용 역시 이수자들이 갖고 있는 사소한 불만의 하나로 간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대해서 지침에서는 양성과정의 교육 기본 시설로 기자재를 갖춘 전용 강의실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 교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데 교과목 실습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표준 운영 지침에서는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에 대한 학습 대상, 환경 그리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강의 참관은 외국인 대상의 실제 한국어 수업이어야 한다', '모의 수업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양성과정 동료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등은 교과목 실습의 실제 대상이나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여기서 '실제'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강의 참관'을 온라인으로 하는 양성과정이 일부 있는데 온라인상의 '강의 참관'이 갖고 있는 단편적이면서도 수동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생동감 넘치고 능동적 교육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강의 참관'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강의 참관'이 초급, 중급, 고급별 각 1회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든지 '모의 수업'에서 양성과정 전체 수강생들에게 1회 이상의 수업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 등은 '횟수'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한편 표준 운영 지침에서 교과목 실습 시 강의 전후에 교수자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한 것은 과거 일부 양성과정에서 '교과목 실습'을 단지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 운영 지침은 양성과정의 전반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양성과정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이수자들의 요구와, 양성과정의 운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한 것이다. '강사의 자격'에 있어서 영역별로 차별한 것이나,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을 15주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침에서 최소한 4주 이상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이러한 양성과정의 운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비학위과정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인증의 첫 단계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는 양성과정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양질의 한국어교원을 배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표준 운영 지침을 개발하는 것만으로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다. 지침 개발 이후에는 양성과정에서 표준 운영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침을 모든 양성과정에서 준수하고, 새로운 양성 기관에서 준수하고자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표준 운영 지침이 보다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양성과정과 '검정시험'의 상관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의 상관관계로 인해 표준 운영 지침을 제안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학위과정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양성과정

을 다니는 이수자들은 물론이고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실무자들도 이수자들의 최종 목표는 '검정시험' 합격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검정시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양성과정이 '검정시험'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성과정의 교육 목표와 '검정시험'의 시행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이라 하겠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 차이의 대표적인 예는 '교과목 실습'이다. 교원 양성과정에서 '교과목 실습'은 매우 중요한 교과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검정시험'에서는 이 영역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양성과정의 목표가 '검정시험'에 맞추어져 본연의 목표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학위과정에서와는 달리, 학위과정에서의 3급은 '한국어교육'을 부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들이 총 21학점을 이수할 경우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학점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양성과정의 약 세 배에 해당된다. 학위과정에서의 부전공자들이 이수하는 시간 수에 비하면 양성과정의 이수시간은 1/3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검정시험'을 통해서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본래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양성과정이 '검정시험'에 종속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둘의 관계가 현재와 같이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이 둘의 상관관계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표준 운영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리라 본다.



부 록

부록 1. 이수자 대상 설문지

부록 2. 기관 대상 설문지

부록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현황 양식

부록 4. 이수자 대상 설문 통계

부록 5. 기관 대상 설문 통계

부록 6. 양성과정 기관 목록

부록 1. 이수자 대상 설문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현황 조사

〈 이 수 자 〉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의뢰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실제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기관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한국어교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원 양성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는 데 기여할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설문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해당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 10.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오광근

사무실 전화번호 : 02-2669-9786

전자우편 : task2009@glokorean.org

응답자 기본 정보

성명		전화번호	
----	--	------	--

I. 양성과정에 대한 정보 및 선택 관련

문1.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은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포털 검색 ② 블로그 ③ 카페 ④ 스팸 메일
 ⑤ 학과 교수나 선배의 소개 ⑥ 친구나 동창의 소개
 ⑦ 직장이나 직장 동료의 소개 ⑧ 인지도
 ⑨ 양성과정의 모집 광고 및 홍보 ⑩ 기타 (_____)

문2.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교육 기간 ② 수강료 ③ 인지도
 ④ 추천 ⑤ 통학 거리 ⑥ 수료의 용이성

문2-1. (문2에 대해 응답자가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가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 기간이 짧아서
 ② 교육 기간이 길어 차근차근 배울 수 있으므로
 ③ 개인 일정과 교육 기간의 일정이 부합하므로
 ④ 교육 기간과 관계없이 오전, 오후에는 수강할 수 있으므로
 ⑤ 교육 기간에 관계없이 저녁에 수강할 수 있으므로

문2-2. (문2에 대해 응답자가 ②를 선택한 경우) 귀하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타 양성과정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했으므로
 ② 양성과정의 내용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했으므로
 ③ 타 양성과정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므로
 ④ 양성과정의 내용에 비해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므로
 ⑤ 기타 (_____)

II. 교육과정 편성 관련

문3.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교육 기간은?

- ① 5주 내외 ② 10주 내외 ③ 15주 내외
 ④ 20주 내외 ⑤ 25주 내외

문3-1.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전체 교육 기간이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4.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총 교육 시간은?

- ① 120시간 미만 ② 120~130시간 미만 ③ 130~140시간 미만
 ④ 140~150시간 미만 ⑤ 150시간 이상 (구체적으로 : _____ 시간)

문4-1.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전체 교육 시간이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5.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1일 평균 교육시간 총량은?

- ① 3시간 이하 ② 4시간 ③ 5~6시간 ④ 7~8시간
 ⑤ 9시간 이상 (구체적으로 : _____ 시간)

문5-1. 1일 교육 시간의 총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적절하다	조금 많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6.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교과목 편성이 한국어 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6-1. (문6에 대해 응답자가 ①~②를 선택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7.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에 한국어 강의 참관이 있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 문8번으로)

문7-1. (문7에 대해 응답자가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한국어 강의 참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문7-2. (문7-1에 대해 응답자가 ①~②를 선택한 경우) 만약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8.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에서 한국어 모의 수업 또는 연구 수업(선생님이나 수강생들 앞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문9번으로)

문8-1. (문8에 대해 응답자가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에서 한국어 모의 수업 또는 연구 수업(선생님이나 수강생들 앞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문8-2. (문8-1에 대해 응답자가 ①~②를 선택한 경우) 만약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9.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의 실습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문10번으로)

문9-1. (문9에 대해 응답자가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의 실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문9-2. (문9-1에 대해 응답자가 ①~②를 선택한 경우) 만약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문10-1.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0-2.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에서 제시 한 교과목의 제목과 실제 교과목 의 강의 내용의 일치 여부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0-3.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강의 수준이 자신의 학습 능력에 비해 높게 진행되었거나 낮게 진행된 점 등에 대해 귀하의 만족도는?	①	②	③	④	⑤
문10-4. 귀하가 다닌 양성과정에서 이론 수업은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① 온라인 ② 오프라인 ③ 온-오프라인 ④ 기타 ()				
문10-5. 이론 수업 형태에 대해 만족하십 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0-6.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에서 시행 한 교수 학습 방법(강의, 토론, 실 습 등)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Ⅳ. 학습 평가 및 사후 관리 관련

문11.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학습 평가에 대한 결과 활용(수료증 부여, 교원 채용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1-1. (문11에 대해 응답자가 ①~②를 선택한 경우)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2. 귀하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양성과정에서 ‘한국어교육’ 관련하여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문13번으로)

문12-1. (문12에 대해 응답자가 ①을 선택한 경우) 제공받은 것은 어떤 정보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시행 관련 정보(접수, 시험일, 합격일 등)
- ② 양성과정 보수 교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련 문제 풀이반 개설 등)
- ③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관련 정보
- ④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
- ⑤ 기타 (_____)

V. 교육 환경 관련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문13-1.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수강 인원 대비 강의실 크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3-2.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교육 기자재의 활용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3-3.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에서 사용한 교재(주교재, 부교재 포함)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4.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교육 강사는 담당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에서 교육 환경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우수한 강사진
- ② 쾌적한 강의실
- ③ 훌륭한 교육 기자재(빔프로젝터, 실물화상기, PC, 화이트 보드, OHP 등)
- ④ 풍부한 실습(수업 참관, 모의 수업 등) 여건
- ⑤ 기타 (_____)

문16. 귀하가 수료한 양성과정의 교육 환경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VI. 기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17-1. 귀하가 이수한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7-2. 귀하가 이수한 양성과정의 수료증이 한국어교육 현장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7-3. 귀하가 취득한 한국어교원자격증이 관련 업종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7-4.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18.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및 한국어교원 자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기본 정보

SQ1. 귀하가 이수한 양성과정은 무엇입니까? (예: ~대학 평생교육원, ~대학 언어교육원 등)

(_____)

SQ2. 귀하가 이수한 양성과정의 성격 또는 운영 주체는?

- ① 대학 부설(어학원, 평생교육원, 국어문화원 등 포함)
- ②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 ③ 민간 및 사설 단체(종교 단체, 봉사 단체, 사설 학원 등)
- ④ 기타 (_____)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SQ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5. 귀하는 양성과정을 다니기 전 한국어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SQ6. 귀하는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한국어교육 현장에 계십니까?

- ① 예 (☞ SQ6-1번으로)
- ② 아니요 (☞ 설문종료)

SQ6-1.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한국어교육 전공 대학원
- ②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교원
- ③ 봉사 차원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교원
- ④ 기타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기관 대상 설문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현황 조사

< 기 관 >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의뢰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어 예비 교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양성과정의 여러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현행 한국어교원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한국어교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원 양성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는 데 기여할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해당하는 질문에 **2009년 11월 10일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 10.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오광근

사무실 전화번호 : 02-2669-9786

전자우편 : task2009@glokorean.org

※ 담당자 설문은 아래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과정 현황을 입력하실 파일도 업로드 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입력 사이트 및 다운로드 사이트 주소 안내:

<http://mrts.urx.co.kr/5410/organ.html>

응답자 기본 정보

성명		전화번호	
기관명		Fax	
		E-mail	

I. 교과 운영의 적절성 관련

문1. 귀 양성과정에서 실제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②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③ 없음 ④ 기타 ()

문2. 귀 양성과정의 교과목의 제목과 실제 교과목의 강의 내용은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3. 귀 양성과정은 수강생 학습 능력의 높이에 맞춰 교육 내용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4.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귀 기관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예: 한국어학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4-1번으로) ②
없다 (☞ 문5번으로)

문4-1. 귀 기관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프로그램(예: 한국어학당)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온라인 ② 오프라인 ③ 둘 다 ④ 기타 ()

문5. 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 내용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II. 교육 환경 관련

문6. 내부 또는 외부 강사 위촉 시 주안점을 두는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4순위:_____

① 추천 ② 지명도 ③ 강사료 ④ 전문성 ⑤ 기타 ()

문7. 귀 기관에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강의료는 얼마입니까? (이론 과정 담당 강사에 한함)

① 3~4만 원 ② 5~6만 원 ③ 7~8만 원 ④ 9~10만 원 ⑤ 기타(_____만원)

문8. 귀 기관에서는 양성과정의 운영을 시기에 따라 기관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서 개설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8-1번으로)

② 아니요 (☞ 문9번으로)

문8-1. 어느 지역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셨습니다? (예) 중국 길림성 ○○ 대학
()

문9. 귀 기관에서는 수강생이 수료한 이후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① 예 (☞ 문9-1번으로)

② 아니요 (☞ 문10번으로)

문9-1. 귀 기관에서는 수강생이 수료한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시행 관련 정보(접수, 시험일, 합격일 등)
- ② 양성과정 보수 교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관련 문제 풀이반 개설 등)
- ③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관련 정보
- ④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
- ⑤ 수료자 DB 관리 (관리 기간 : _____년)
- ⑥ 기타 (_____)

Ⅲ. 기타

문10.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예비 한국어교원에게 한국어교육 능력을 갖추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현재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을 제외한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현황을 조사한 후 이 양성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기준(가칭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보통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	매우 그럴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개설 기관에 대한 자격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귀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보통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	매우 그럴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3.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사전에 심의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보통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	매우 그럴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서 한국어교원 제도와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기관 운영 현황 조사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현황

(작성자 성명: 연락처:)

양성 기관명	예시) ○○대학 평생교육원, ○○ 대학 언어교육원 등		
설립 (운영) 근거	예)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등		
주소			
전화번호		전송 번호	

※ 담당자 설문은 아래의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과정 현황을 입력하실 파일도 업로드 하였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입력 사이트 및 다운로드 사이트 주소 안내:

<http://alpha.mrts.urx.co.kr/mrts.mrts?sid=5410&uid=aries81&pid=ALPHA>

I. 신입생 모집

입학 요건	예시) 대학 2년 재학 이상, 전공, 20세 이상, 한국어 교육 현장 경험, 요건 제한 없음 등
선발 방법	예시) 대학 2년 재학 이상, 전공, 20세 이상, 한국어 교육 현장 경험, 요건 제한 없음 등
수강료	※ 수강생이 수강 신청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

II. 교육과정 편성

1. 교육 횟수

부정기적 운영	예) 1회/연	정기적 운영	예) 4회/연
---------	---------	--------	---------

2. 기간 및 기간별 평균 수강 인원

- ① 최근 1년간 개설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먼저, 1시간 수업의 정확한 시간을 명시해 주십시오. 가령 50분 단위가 1시간인지 45분 단위가 1시간인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1시간 수업: _____분

기간	과정 교육 총 시간	수업 시간	1일 평균 교육 시간	인원
예)1학기 중(3월~6월)	예)135시간 =3시간(1일)×3일(주)×15주	예) (18:00~22:00)	예) 2시간	예) 30명 내외
예)1학기 방학 중(7월~8월)		예) (09:00~16:00)	예) 6시간	
예)2학기 중(9월~12월)		예) (13:00~16:00)	예) 3시간	
예)2학기 방학 중(1월~2월)		예) (13:00~22:00)	예) 8시간	

3. 교과목 명 및 시수 : 가장 최근의 개설 학기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번호	영역	시행령 안	실제 교과목	수업 시간 수	이수 시간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문법론	예) 형태론, 통사론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 어문규범론	예) 한글 맞춤법	6	
		기타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기타			
3	외국어로써 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 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 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한국어표현교육법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 (듣기)			
		한국어이해교육법 (읽기)			
		한국어 발음교육론	예) 한국어발음교수법	3	
		한국어 문법교육론			
		한국어 어휘교육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 문화교육론			
		한국어 한자교육론			
		한국어 교육정책론			
		한국어 번역론			
		기타			
4	한국문화	한국 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 현장 실습			
		한국 현대문화 비평			
		한국문학의 이해			
		기타			
5	한국어 교육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기타			
			소계		
6	기타	오리엔테이션, 시험 등			
			총계		

※ 귀 기관의 프로그램이 상기 표와 맞지 않을 경우 별도의 표를 작성해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시간표를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Ⅲ. 교육과정 운영 및 수강생 교육 결과

1. 수업 형태

	오프라인 방식	온라인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해당 사항 없음
이론 수업(1~4영역)			예시) ○	
전통문화 현장 실습(4영역 中)				
강의 참관				
모의 수업(또는 연구 수업)				
강의 실습				

2. 수업 후 수강생 평가

	내용
평가 규정 유무	예) 있다, 없다
평가 방식	예) 출석률 %, 필기시험 %, 모의수업 %, 교사로서의 자질(학습 능력, 대인 관계, 언어생활 등) %
수료 조건 (※평가 항목과 다른 경우)	예) 참관 수업 불참 시 수료 불가, 출석률 00% 미만 시 수료 불가 등
평가 결과의 활용	예) 수료증 부여, 교원 채용, 상장 수여

Ⅳ. 교육 환경

1. 양성과정 강의 요원 현황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원		계
	운영 기관 내부	운영 기관 외부	
인원(단위: 명)			

2. 교수진 명단

※ ‘관련 논저 유무’는 학위논문을 제외한 ‘학진등재후보지’ 2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강의 경력 유무’는 대학교 전공 강의 이상인 경우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담당교수	소속	학위	관련 논저 유무	관련 강의 경력 유무
응용언어학	△ △ △	한국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

3. 교육 시설

	위치	규모	자체 기자재	시설
전담 강의실	예) 대학 내 강의실	예) 20인용	예) PC, 빔프로젝터, 마이크, 화이트보드, 칠판, 기타...	예) 에어컨, 난방기, 선풍기, 냉온수기 등
	※ 대학 부설이 아닌 경우 강의실의 소재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기자재	예) 노트북, 빔프로젝터, 마이크, 화이트보드, OHP, 실물화상기, 오디오 시설 기타...			

4. 교재/교육 자료

교재 구분	교재명	교재 수급 방법
주교재		*출판사/지원(처)/자체 제작 등
부교재		

5. 실습 장소 및 방법

실제 수업의 유무		모의 수업의 유무		참관 수업의 유무	
실제 수업을 진행(o)	실제 수업 진행 않음(x)	모의 수업 (o)	모의 수업 (X)	참관(o)	참관(x)
○			×	○	

※ 그 밖에 실제 수업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관 방식: 실습 참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프로그램 활용 ②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프로그램과 연계 또는 위탁 ③ 기타 () - 타 기관일 경우의 기관명:	- 강의 실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프로그램 활용 ②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프로그램과 연계 또는 위탁 ③ 기타 () -타 기관일 경우의 기관명:
- 기타 사항	- 기타 사항

부록 4. 이수자 대상 설문 통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통계 분석 : (주)Metrix

<표 1> 전체 응답자 특성

조사 현황		사례 수 (빈도)	비율 %
전체		(1,997)	100.0
양성과정	대학 부설	(1,874)	93.8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2.9
	민간 및 사설 단체	(44)	2.2
	기타	(21)	1.1
성별	남자	(334)	16.7
	여자	(1,663)	83.3
연령	20대	(613)	30.7
	30대	(660)	33.0
	40대	(484)	24.2
	50대	(218)	10.9
	60대 이상	(22)	1.1
한국어교육 경험	있음	(569)	28.5
	없음	(1,428)	71.5
한국어교육 현장	있음	(793)	39.7
	없음	(1,204)	60.3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65.1
	현장 조사	(697)	34.9

<표 2> 양성과정 정보경로(중복응답)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양성과정의 모집 광고/홍보		학과 교수나 선배의 소개		친구나 동창의 소개		포털 검색		직장이나 직장 동료의 소개		인지도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790)	39.6	(382)	19.1	(366)	18.3	(350)	17.5	(138)	6.9	(127)	6.4	(146)	7.3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740)	39.5	(369)	19.7	(348)	18.6	(318)	17.0	(128)	6.8	(125)	6.7	(133)	7.1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28)	48.3	(6)	10.3	(10)	17.2	(8)	13.8	(8)	13.8	(0)	0.0	(5)	8.6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8)	40.9	(2)	4.5	(4)	9.1	(18)	40.9	(1)	2.3	(0)	0.0	(6)	13.6
	기타	(21)	(4)	19.0	(5)	23.8	(4)	19.0	(6)	28.6	(1)	4.8	(2)	9.5	(2)	9.5
성별	남자	(334)	(148)	44.3	(64)	19.2	(49)	14.7	(73)	21.9	(24)	7.2	(25)	7.5	(14)	4.2
	여자	(1,663)	(642)	38.6	(318)	19.1	(317)	19.1	(277)	16.7	(114)	6.9	(102)	6.1	(132)	7.9
연령	20대	(613)	(247)	40.3	(184)	30.0	(103)	16.8	(98)	16.0	(17)	2.8	(24)	3.9	(44)	7.2
	30대	(660)	(248)	37.6	(108)	16.4	(118)	17.9	(145)	22.0	(47)	7.1	(52)	7.9	(49)	7.4
	40대	(484)	(203)	41.9	(62)	12.8	(97)	20.0	(74)	15.3	(43)	8.9	(32)	6.6	(30)	6.2
	50대	(218)	(83)	38.1	(25)	11.5	(41)	18.8	(30)	13.8	(29)	13.3	(17)	7.8	(22)	10.1
	60대 이상	(22)	(9)	40.9	(3)	13.6	(7)	31.8	(3)	13.6	(2)	9.1	(2)	9.1	(1)	4.5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213)	37.4	(109)	19.2	(84)	14.8	(102)	17.9	(57)	10.0	(40)	7.0	(49)	8.6
	없음	(1,428)	(577)	40.4	(273)	19.1	(282)	19.7	(248)	17.4	(81)	5.7	(87)	6.1	(97)	6.8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301)	38.0	(171)	21.6	(124)	15.6	(131)	16.5	(77)	9.7	(58)	7.3	(60)	7.6
	없음	(1,204)	(489)	40.6	(211)	17.5	(242)	20.1	(219)	18.2	(61)	5.1	(69)	5.7	(86)	7.1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551)	42.4	(260)	20.0	(230)	17.7	(200)	15.4	(96)	7.4	(95)	7.3	(85)	6.5
	현장 조사	(697)	(239)	34.3	(122)	17.5	(136)	19.5	(150)	21.5	(42)	6.0	(32)	4.6	(61)	8.8

<표 3>양성과정 선택 이유(중복 응답)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통학 거리		교육 기간		인지도		수료의 용이성		수강료		추천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677)	33.9	(673)	33.7	(629)	31.5	(459)	23.0	(369)	18.5	(281)	14.1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650)	34.7	(640)	34.2	(607)	32.4	(431)	23.0	(321)	17.1	(261)	13.9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12)	20.7	(16)	27.6	(10)	17.2	(11)	19.0	(24)	41.4	(12)	20.7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1)	25.0	(15)	34.1	(3)	6.8	(13)	29.5	(21)	47.7	(6)	13.6
	기타	(21)	(4)	19.0	(2)	9.5	(9)	42.9	(4)	19.0	(3)	14.3	(2)	9.5
성별	남자	(334)	(107)	32.0	(114)	34.1	(101)	30.2	(74)	22.2	(64)	19.2	(45)	13.5
	여자	(1,663)	(570)	34.3	(559)	33.6	(528)	31.7	(385)	23.2	(305)	18.3	(236)	14.2
연령	20대	(613)	(215)	35.1	(180)	29.4	(172)	28.1	(175)	28.5	(115)	18.8	(113)	18.4
	30대	(660)	(216)	32.7	(230)	34.8	(216)	32.7	(139)	21.1	(132)	20.0	(92)	13.9
	40대	(484)	(162)	33.5	(173)	35.7	(162)	33.5	(100)	20.7	(73)	15.1	(53)	11.0
	50대	(218)	(76)	34.9	(80)	36.7	(74)	33.9	(41)	18.8	(45)	20.6	(20)	9.2
	60대 이상	(22)	(8)	36.4	(10)	45.5	(5)	22.7	(4)	18.2	(4)	18.2	(3)	13.6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190)	33.4	(188)	33.0	(199)	35.0	(129)	22.7	(95)	16.7	(66)	11.6
	없음	(1,428)	(487)	34.1	(485)	34.0	(430)	30.1	(330)	23.1	(274)	19.2	(215)	15.1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262)	33.0	(286)	36.1	(276)	34.8	(149)	18.8	(133)	16.8	(114)	14.4
	없음	(1,204)	(415)	34.5	(387)	32.1	(353)	29.3	(310)	25.7	(236)	19.6	(167)	13.9
응답구분	온라인 조사	(1,300)	(466)	35.8	(476)	36.6	(456)	35.1	(305)	23.5	(219)	16.8	(175)	13.5
	현장 조사	(697)	(211)	30.3	(197)	28.3	(173)	24.8	(154)	22.1	(150)	21.5	(106)	15.2

<표 4> 양성과정의 선택 이유(교육 기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개인 일정과 교육 기간의 일정이 부합하므로		교육 기간이 짧아서		교육 기간에 관계없이 저녁에 수강할 수 있어서		교육 기간이 길어 차근차근 배울 수 있으므로		교육 기간과 관계없이 오전, 오후에는 수강할 수 있으므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673)	(408)	60.6	(104)	15.5	(86)	12.8	(53)	7.9	(22)	3.3
양성 과정	대학 부설	(640)	(394)	61.6	(97)	15.2	(82)	12.8	(46)	7.2	(21)	3.3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16)	(8)	50.0	(5)	31.3	(0)	0.0	(3)	18.8	(0)	0.0
	민간 및 사설 단체	(15)	(6)	40.0	(2)	13.3	(2)	13.3	(4)	26.7	(1)	6.7
	기타	(2)	(0)	0.0	(0)	0.0	(2)	100.0	(0)	0.0	(0)	0.0
성별	남자	(114)	(62)	54.4	(21)	18.4	(16)	14.0	(11)	9.6	(4)	3.5
	여자	(559)	(346)	61.9	(83)	14.8	(70)	12.5	(42)	7.5	(18)	3.2
연령	20대	(180)	(109)	60.6	(35)	19.4	(16)	8.9	(14)	7.8	(6)	3.3
	30대	(230)	(140)	60.9	(33)	14.3	(30)	13.0	(17)	7.4	(10)	4.3
	40대	(173)	(112)	64.7	(24)	13.9	(23)	13.3	(11)	6.4	(3)	1.7
	50대	(80)	(45)	56.3	(10)	12.5	(12)	15.0	(10)	12.5	(3)	3.8
	60대 이상	(10)	(2)	20.0	(2)	20.0	(5)	50.0	(1)	10.0	(0)	0.0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188)	(99)	52.7	(36)	19.1	(24)	12.8	(19)	10.1	(10)	5.3
	없음	(485)	(309)	63.7	(68)	14.0	(62)	12.8	(34)	7.0	(12)	2.5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286)	(168)	58.7	(46)	16.1	(34)	11.9	(28)	9.8	(10)	3.5
	없음	(387)	(240)	62.0	(58)	15.0	(52)	13.4	(25)	6.5	(12)	3.1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476)	(305)	64.1	(58)	12.2	(74)	15.5	(34)	7.1	(5)	1.1
	현장 조사	(197)	(103)	52.3	(46)	23.4	(12)	6.1	(19)	9.6	(17)	8.6

<표 5>양성과정의 선택 이유(수강료)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타 양성과정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했으므로		타 양성과정에 비해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양성과정의 내용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양성과정의 내용에 비해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므로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69)	(202)	54.7	(63)	17.1	(39)	10.6	(20)	5.4	(45)	12.2
양성 과정	대학 부설	(321)	(172)	53.6	(59)	18.4	(34)	10.6	(20)	6.2	(36)	11.2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24)	(16)	66.7	(1)	4.2	(3)	12.5	(0)	0.0	(4)	16.7
	민간 및 사설 단체	(21)	(12)	57.1	(3)	14.3	(2)	9.5	(0)	0.0	(4)	19.0
	기타	(3)	(2)	66.7	(0)	0.0	(0)	0.0	(0)	0.0	(1)	33.3
성별	남자	(64)	(33)	51.6	(11)	17.2	(8)	12.5	(8)	12.5	(4)	6.3
	여자	(305)	(169)	55.4	(52)	17.0	(31)	10.2	(12)	3.9	(41)	13.4
연령	20대	(115)	(58)	50.4	(22)	19.1	(13)	11.3	(1)	0.9	(21)	18.3
	30대	(132)	(82)	62.1	(20)	15.2	(10)	7.6	(9)	6.8	(11)	8.3
	40대	(73)	(36)	49.3	(17)	23.3	(5)	6.8	(5)	6.8	(10)	13.7
	50대	(45)	(24)	53.3	(4)	8.9	(11)	24.4	(3)	6.7	(3)	6.7
	60대 이상	(4)	(2)	50.0	(0)	0.0	(0)	0.0	(2)	50.0	(0)	0.0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95)	(47)	49.5	(18)	18.9	(12)	12.6	(5)	5.3	(13)	13.7
	없음	(274)	(155)	56.6	(45)	16.4	(27)	9.9	(15)	5.5	(32)	11.7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133)	(73)	54.9	(21)	15.8	(15)	11.3	(5)	3.8	(19)	14.3
	없음	(236)	(129)	54.7	(42)	17.8	(24)	10.2	(15)	6.4	(26)	11.0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219)	(112)	51.1	(44)	20.1	(27)	12.3	(14)	6.4	(22)	10.0
	현장 조사	(150)	(90)	60.0	(19)	12.7	(12)	8.0	(6)	4.0	(23)	15.3

<표 6> 수료한 양성과정 교육 기간 - 응답자 특성별

조사현황		사례 수	5주 내외		10주 내외		15주 내외		20주 내외		25주 내외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333)	16.7	(388)	19.4	(548)	27.4	(360)	18.0	(368)	18.4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327)	17.4	(371)	19.8	(526)	28.1	(327)	17.4	(323)	17.2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2)	3.4	(7)	12.1	(14)	24.1	(13)	22.4	(22)	37.9
	민간 및 사설 단체	(44)	(3)	6.8	(5)	11.4	(7)	15.9	(15)	34.1	(14)	31.8
	기타	(21)	(1)	4.8	(5)	23.8	(1)	4.8	(5)	23.8	(9)	42.9
성별	남자	(334)	(59)	17.7	(63)	18.9	(104)	31.1	(62)	18.6	(46)	13.8
	여자	(1,663)	(274)	16.5	(325)	19.5	(444)	26.7	(298)	17.9	(322)	19.4
연령	20대	(613)	(116)	18.9	(143)	23.3	(164)	26.8	(101)	16.5	(89)	14.5
	30대	(660)	(109)	16.5	(137)	20.8	(181)	27.4	(115)	17.4	(118)	17.9
	40대	(484)	(79)	16.3	(72)	14.9	(142)	29.3	(87)	18.0	(104)	21.5
	50대	(218)	(27)	12.4	(34)	15.6	(51)	23.4	(51)	23.4	(55)	25.2
	60대 이상	(22)	(2)	9.1	(2)	9.1	(10)	45.5	(6)	27.3	(2)	9.1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104)	18.3	(102)	17.9	(131)	23.0	(108)	19.0	(124)	21.8
	없음	(1,428)	(229)	16.0	(286)	20.0	(417)	29.2	(252)	17.6	(244)	17.1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140)	17.7	(167)	21.1	(210)	26.5	(134)	16.9	(142)	17.9
	없음	(1,204)	(193)	16.0	(221)	18.4	(338)	28.1	(226)	18.8	(226)	18.8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216)	16.6	(235)	18.1	(356)	27.4	(252)	19.4	(241)	18.5
	현장 조사	(697)	(117)	16.8	(153)	22.0	(192)	27.5	(108)	15.5	(127)	18.2

<표 7> 교육 기간의 적절성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
전체		(1,997)	(60)	3.0	(432)	21.6	(889)	44.5	(550)	27.5	(66)	3.3	51.6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57)	3.0	(409)	21.8	(833)	44.5	(515)	27.5	(60)	3.2	51.5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0)	0.0	(14)	24.1	(25)	43.1	(17)	29.3	(2)	3.4	53.0
	민간 및 사설 단체	(44)	(3)	6.8	(2)	4.5	(21)	47.7	(14)	31.8	(4)	9.1	58.0
	기타	(21)	(0)	0.0	(7)	33.3	(10)	47.6	(4)	19.0	(0)	0.0	46.4
성별	남자	(334)	(14)	4.2	(57)	17.1	(137)	41.0	(114)	34.1	(12)	3.6	54.0
	여자	(1,663)	(46)	2.8	(375)	22.5	(752)	45.2	(436)	26.2	(54)	3.2	51.2
연령	20대	(613)	(18)	2.9	(133)	21.7	(270)	44.0	(168)	27.4	(24)	3.9	51.9
	30대	(660)	(22)	3.3	(146)	22.1	(304)	46.1	(174)	26.4	(14)	2.1	50.5
	40대	(484)	(14)	2.9	(109)	22.5	(201)	41.5	(143)	29.5	(17)	3.5	52.1
	50대	(218)	(5)	2.3	(40)	18.3	(101)	46.3	(61)	28.0	(11)	5.0	53.8
	60대 이상	(22)	(1)	4.5	(4)	18.2	(13)	59.1	(4)	18.2	(0)	0.0	47.7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18)	3.2	(96)	16.9	(275)	48.3	(153)	26.9	(27)	4.7	53.3
	없음	(1,428)	(42)	2.9	(336)	23.5	(614)	43.0	(397)	27.8	(39)	2.7	51.0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27)	3.4	(181)	22.8	(334)	42.1	(210)	26.5	(41)	5.2	51.8
	없음	(1,204)	(33)	2.7	(251)	20.8	(555)	46.1	(340)	28.2	(25)	2.1	51.5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37)	2.8	(292)	22.5	(567)	43.6	(354)	27.2	(50)	3.8	51.7
	현장 조사	(697)	(23)	3.3	(140)	20.1	(322)	46.2	(196)	28.1	(16)	2.3	51.5

<표 8> 교육 기간의 적절성 - 교육 기간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
전체	(1,997)	(60)	3.0	(432)	21.6	(889)	44.5	(550)	27.5	(66)	3.3	51.6
5주 내외	(333)	(14)	4.2	(86)	25.8	(156)	46.8	(70)	21.0	(7)	2.1	47.7
10주 내외	(388)	(14)	3.6	(110)	28.4	(167)	43.0	(89)	22.9	(8)	2.1	47.9
15주 내외	(548)	(20)	3.6	(113)	20.6	(242)	44.2	(155)	28.3	(18)	3.3	51.7
20주 내외	(360)	(7)	1.9	(66)	18.3	(168)	46.7	(109)	30.3	(10)	2.8	53.4
25주 내외	(368)	(5)	1.4	(57)	15.5	(156)	42.4	(127)	34.5	(23)	6.3	57.2

<표 9> 수료한 양성과정의 총 교육 시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120시간 미만		120~130시간		130~140시간		140~150시간		150시간 이상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206)	10.3	(1,237)	61.9	(203)	10.2	(182)	9.1	(169)	8.5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96)	10.5	(1,186)	63.3	(195)	10.4	(167)	8.9	(130)	6.9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4)	6.9	(26)	44.8	(3)	5.2	(6)	10.3	(19)	32.8
	민간 및 사설 단체	(44)	(2)	4.5	(17)	38.6	(4)	9.1	(5)	11.4	(16)	36.4
	기타	(21)	(4)	19.0	(8)	38.1	(1)	4.8	(4)	19.0	(4)	19.0
성별	남자	(334)	(40)	12.0	(210)	62.9	(36)	10.8	(26)	7.8	(22)	6.6
	여자	(1,663)	(166)	10.0	(1,027)	61.8	(167)	10.0	(156)	9.4	(147)	8.8
연령	20대	(613)	(41)	6.7	(413)	67.4	(56)	9.1	(64)	10.4	(39)	6.4
	30대	(660)	(75)	11.4	(399)	60.5	(66)	10.0	(55)	8.3	(65)	9.8
	40대	(484)	(67)	13.8	(297)	61.4	(43)	8.9	(45)	9.3	(32)	6.6
	50대	(218)	(17)	7.8	(121)	55.5	(36)	16.5	(17)	7.8	(27)	12.4
	60대 이상	(22)	(6)	27.3	(7)	31.8	(2)	9.1	(1)	4.5	(6)	27.3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51)	9.0	(349)	61.3	(51)	9.0	(58)	10.2	(60)	10.5
	없음	(1,428)	(155)	10.9	(888)	62.2	(152)	10.6	(124)	8.7	(109)	7.6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97)	12.2	(500)	63.1	(65)	8.2	(52)	6.6	(79)	10.0
	없음	(1,204)	(109)	9.1	(737)	61.2	(138)	11.5	(130)	10.8	(90)	7.5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63)	12.5	(770)	59.2	(127)	9.8	(134)	10.3	(106)	8.2
	현장 조사	(697)	(43)	6.2	(467)	67.0	(76)	10.9	(48)	6.9	(63)	9.0

<표 10> 교육 시간의 적절성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
전체		(1,997)	(68)	3.4	(544)	27.2	(892)	44.7	(451)	22.6	(42)	2.1	48.2
양성 과정	대학부설	(1,874)	(64)	3.4	(518)	27.6	(838)	44.7	(416)	22.2	(38)	2.0	47.9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15)	25.9	(24)	41.4	(18)	31.0	(0)	0.0	50.4
	민간 및 사설 단체	(44)	(2)	4.5	(5)	11.4	(20)	45.5	(13)	29.5	(4)	9.1	56.8
	기타	(21)	(1)	4.8	(6)	28.6	(10)	47.6	(4)	19.0	(0)	0.0	45.2
성별	남자	(334)	(12)	3.6	(78)	23.4	(139)	41.6	(100)	29.9	(5)	1.5	50.6
	여자	(1,663)	(56)	3.4	(466)	28.0	(753)	45.3	(351)	21.1	(37)	2.2	47.7
연령	20대	(613)	(18)	2.9	(167)	27.2	(278)	45.4	(135)	22.0	(15)	2.4	48.5
	30대	(660)	(30)	4.5	(191)	28.9	(288)	43.6	(143)	21.7	(8)	1.2	46.5
	40대	(484)	(15)	3.1	(130)	26.9	(213)	44.0	(116)	24.0	(10)	2.1	48.8
	50대	(218)	(4)	1.8	(49)	22.5	(105)	48.2	(51)	23.4	(9)	4.1	51.4
	60대 이상	(22)	(1)	4.5	(7)	31.8	(8)	36.4	(6)	27.3	(0)	0.0	46.6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18)	3.2	(121)	21.3	(278)	48.9	(135)	23.7	(17)	3.0	50.5
	없음	(1,428)	(50)	3.5	(423)	29.6	(614)	43.0	(316)	22.1	(25)	1.8	47.3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28)	3.5	(222)	28.0	(353)	44.5	(169)	21.3	(21)	2.6	47.9
	없음	(1,204)	(40)	3.3	(322)	26.7	(539)	44.8	(282)	23.4	(21)	1.7	48.4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45)	3.5	(371)	28.5	(577)	44.4	(278)	21.4	(29)	2.2	47.6
	현장 조사	(697)	(23)	3.3	(173)	24.8	(315)	45.2	(173)	24.8	(13)	1.9	49.3

<표 11> 교육 시간의 적절성 - 교육 시간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
전체	(1,997)	(68)	3.4	(544)	27.2	(892)	44.7	(451)	22.6	(42)	2.1	48.2
120시간 미만	(206)	(8)	3.9	(69)	33.5	(88)	42.7	(39)	18.9	(2)	1.0	44.9
120~130시간 미만	(1,237)	(47)	3.8	(366)	29.6	(549)	44.4	(254)	20.5	(21)	1.7	46.7
130~140시간 미만	(203)	(4)	2.0	(42)	20.7	(100)	49.3	(56)	27.6	(1)	0.5	51.0
140~150시간 미만	(182)	(3)	1.6	(42)	23.1	(92)	50.5	(39)	21.4	(6)	3.3	50.4
150시간 이상	(169)	(6)	3.6	(25)	14.8	(63)	37.3	(63)	37.3	(12)	7.1	57.4

<표 12> 1일 평균 교육 시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3시간 이하		4시간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553)	27.7	(756)	37.9	(425)	21.3	(251)	12.6	(12)	0.6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520)	27.7	(714)	38.1	(389)	20.8	(240)	12.8	(11)	0.6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15)	25.9	(21)	36.2	(20)	34.5	(2)	3.4	(0)	0.0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0)	22.7	(13)	29.5	(13)	29.5	(7)	15.9	(1)	2.3
	기타	(21)	(8)	38.1	(8)	38.1	(3)	14.3	(2)	9.5	(0)	0.0
성별	남자	(334)	(90)	26.9	(120)	35.9	(73)	21.9	(50)	15.0	(1)	0.3
	여자	(1,663)	(463)	27.8	(636)	38.2	(352)	21.2	(201)	12.1	(11)	0.7
연령	20대	(613)	(153)	25.0	(228)	37.2	(144)	23.5	(82)	13.4	(6)	1.0
	30대	(660)	(192)	29.1	(260)	39.4	(133)	20.2	(73)	11.1	(2)	0.3
	40대	(484)	(145)	30.0	(175)	36.2	(96)	19.8	(64)	13.2	(4)	0.8
	50대	(218)	(58)	26.6	(83)	38.1	(49)	22.5	(28)	12.8	(0)	0.0
	60대 이상	(22)	(5)	22.7	(10)	45.5	(3)	13.6	(4)	18.2	(0)	0.0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128)	22.5	(226)	39.7	(126)	22.1	(85)	14.9	(4)	0.7
	없음	(1,428)	(425)	29.8	(530)	37.1	(299)	20.9	(166)	11.6	(8)	0.6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199)	25.1	(321)	40.5	(171)	21.6	(98)	12.4	(4)	0.5
	없음	(1,204)	(354)	29.4	(435)	36.1	(254)	21.1	(153)	12.7	(8)	0.7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383)	29.5	(506)	38.9	(246)	18.9	(163)	12.5	(2)	0.2
	현장 조사	(697)	(170)	24.4	(250)	35.9	(179)	25.7	(88)	12.6	(10)	1.4

<표 13>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적절성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적절하다		조금 많다		매우 많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56)	2.8	(302)	15.1	(1191)	59.6	(422)	21.1	(26)	1.3	50.8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51)	2.7	(282)	15.0	(1121)	59.8	(395)	21.1	(25)	1.3	50.8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2)	3.4	(10)	17.2	(31)	53.4	(14)	24.1	(1)	1.7	50.9
	민간 및 시설 단체	(44)	(2)	4.5	(7)	15.9	(24)	54.5	(11)	25.0	(0)	0.0	50.0
	기타	(21)	(1)	4.8	(3)	14.3	(15)	71.4	(2)	9.5	(0)	0.0	46.4
성별	남자	(334)	(11)	3.3	(47)	14.1	(206)	61.7	(66)	19.8	(4)	1.2	50.4
	여자	(1,663)	(45)	2.7	(255)	15.3	(985)	59.2	(356)	21.4	(22)	1.3	50.8
연령	20대	(613)	(13)	2.1	(76)	12.4	(356)	58.1	(159)	25.9	(9)	1.5	53.1
	30대	(660)	(21)	3.2	(93)	14.1	(398)	60.3	(138)	20.9	(10)	1.5	50.9
	40대	(484)	(16)	3.3	(89)	18.4	(294)	60.7	(82)	16.9	(3)	0.6	48.3
	50대	(218)	(5)	2.3	(39)	17.9	(129)	59.2	(41)	18.8	(4)	1.8	50.0
	60대 이상	(22)	(1)	4.5	(5)	22.7	(14)	63.6	(2)	9.1	(0)	0.0	44.3
교육 경험	있음	(569)	(16)	2.8	(67)	11.8	(341)	59.9	(134)	23.6	(11)	1.9	52.5
	없음	(1,428)	(40)	2.8	(235)	16.5	(850)	59.5	(288)	20.2	(15)	1.1	50.1
교육 현장	있음	(793)	(20)	2.5	(115)	14.5	(486)	61.3	(165)	20.8	(7)	0.9	50.8
	없음	(1,204)	(36)	3.0	(187)	15.5	(705)	58.6	(257)	21.3	(19)	1.6	50.7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31)	2.4	(185)	14.2	(821)	63.2	(252)	19.4	(11)	0.8	50.5
	현장 조사	(697)	(25)	3.6	(117)	16.8	(370)	53.1	(170)	24.4	(15)	2.2	51.2

<표 14> 1일 평균 교육 시간의 적절성 - 1일평균 교육 시간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적절하다		조금 많다		매우 많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56)	2.8	(302)	15.1	(1,191)	59.6	(422)	21.1	(26)	1.3	50.8
3시간 이하	(553)	(26)	4.7	(127)	23.0	(363)	65.6	(36)	6.5	(1)	0.2	43.6
4시간	(756)	(19)	2.5	(110)	14.6	(510)	67.5	(114)	15.1	(3)	0.4	49.1
5~6시간	(425)	(10)	2.4	(50)	11.8	(220)	51.8	(136)	32.0	(9)	2.1	54.9
7~8시간	(251)	(1)	0.4	(12)	4.8	(95)	37.8	(131)	52.2	(12)	4.8	64.0
9시간 이상	(12)	(0)	0.0	(3)	25.0	(3)	25.0	(5)	41.7	(1)	8.3	58.3

<표 15> 한국어교육 능력 향상에 있어 교과목 편성의 도움정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26)	1.3	(209)	10.5	(730)	36.6	(918)	46.0	(114)	5.7	61.1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23)	1.2	(197)	10.5	(683)	36.4	(865)	46.2	(106)	5.7	61.1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7)	12.1	(22)	37.9	(27)	46.6	(1)	1.7	58.6
	민간 및 사설 단체	(44)	(2)	4.5	(3)	6.8	(14)	31.8	(18)	40.9	(7)	15.9	64.2
	기타	(21)	(0)	0.0	(2)	9.5	(11)	52.4	(8)	38.1	(0)	0.0	57.1
성별	남자	(334)	(6)	1.8	(27)	8.1	(122)	36.5	(158)	47.3	(21)	6.3	62.1
	여자	(1,663)	(20)	1.2	(182)	10.9	(608)	36.6	(760)	45.7	(93)	5.6	60.9
연령	20대	(613)	(6)	1.0	(57)	9.3	(243)	39.6	(281)	45.8	(26)	4.2	60.8
	30대	(660)	(12)	1.8	(80)	12.1	(226)	34.2	(304)	46.1	(38)	5.8	60.5
	40대	(484)	(5)	1.0	(43)	8.9	(178)	36.8	(227)	46.9	(31)	6.4	62.2
	50대	(218)	(3)	1.4	(26)	11.9	(77)	35.3	(97)	44.5	(15)	6.9	60.9
	60대 이상	(22)	(0)	0.0	(3)	13.6	(6)	27.3	(9)	40.9	(4)	18.2	65.9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7)	1.2	(53)	9.3	(222)	39.0	(246)	43.2	(41)	7.2	61.5
	없음	(1,428)	(19)	1.3	(156)	10.9	(508)	35.6	(672)	47.1	(73)	5.1	60.9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13)	1.6	(79)	10.0	(301)	38.0	(352)	44.4	(48)	6.1	60.8
	없음	(1,204)	(13)	1.1	(130)	10.8	(429)	35.6	(566)	47.0	(66)	5.5	61.3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8)	1.4	(149)	11.5	(451)	34.7	(599)	46.1	(83)	6.4	61.2
	현장 조사	(697)	(8)	1.1	(60)	8.6	(279)	40.0	(319)	45.8	(31)	4.4	60.9

<표 16> 한국어 강의 참관 유무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예		아니요	
		(빈도)	(빈도)	%	(빈도)	%
전체		(1,997)	(1,722)	86.2	(275)	13.8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655)	88.3	(219)	11.7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25)	43.1	(33)	56.9
	민간 및 사설 단체	(44)	(23)	52.3	(21)	47.7
	기타	(21)	(19)	90.5	(2)	9.5
성별	남자	(334)	(287)	85.9	(47)	14.1
	여자	(1,663)	(1,435)	86.3	(228)	13.7
연령	20대	(613)	(542)	88.4	(71)	11.6
	30대	(660)	(561)	85.0	(99)	15.0
	40대	(484)	(416)	86.0	(68)	14.0
	50대	(218)	(181)	83.0	(37)	17.0
	60대 이상	(22)	(22)	100.0	(0)	0.0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502)	88.2	(67)	11.8
	없음	(1,428)	(1,220)	85.4	(208)	14.6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695)	87.6	(98)	12.4
	없음	(1,204)	(1,027)	85.3	(177)	14.7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131)	87.0	(169)	13.0
	현장 조사	(697)	(591)	84.8	(106)	15.2

<표 17> 한국어 강의 참관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11)	0.6	(127)	7.4	(613)	35.6	(828)	48.1	(143)	8.3	64.0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1)	0.7	(123)	7.4	(584)	35.3	(797)	48.2	(140)	8.5	64.1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0)	0.0	(3)	12.0	(15)	60.0	(7)	28.0	(0)	0.0	54.0
	민간 및 사설 단체	(44)	(0)	0.0	(1)	4.3	(6)	26.1	(14)	60.9	(2)	8.7	68.5
	기타	(21)	(0)	0.0	(0)	0.0	(8)	42.1	(10)	52.6	(1)	5.3	65.8
성별	남자	(334)	(2)	0.7	(16)	5.6	(103)	35.9	(145)	50.5	(21)	7.3	64.5
	여자	(1,663)	(9)	0.6	(111)	7.7	(510)	35.5	(683)	47.6	(122)	8.5	63.9
연령	20대	(613)	(3)	0.6	(40)	7.4	(164)	30.3	(262)	48.3	(73)	13.5	66.7
	30대	(660)	(4)	0.7	(48)	8.6	(198)	35.3	(275)	49.0	(36)	6.4	63.0
	40대	(484)	(2)	0.5	(28)	6.7	(164)	39.4	(202)	48.6	(20)	4.8	62.6
	50대	(218)	(2)	1.1	(9)	5.0	(80)	44.2	(78)	43.1	(12)	6.6	62.3
	60대 이상	(22)	(0)	0.0	(2)	9.1	(7)	31.8	(11)	50.0	(2)	9.1	64.8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2)	0.4	(30)	6.0	(190)	37.8	(230)	45.8	(50)	10.0	64.7
	없음	(1,428)	(9)	0.7	(97)	8.0	(423)	34.7	(598)	49.0	(93)	7.6	63.7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7)	1.0	(57)	8.2	(267)	38.4	(316)	45.5	(48)	6.9	62.3
	없음	(1,204)	(4)	0.4	(70)	6.8	(346)	33.7	(512)	49.9	(95)	9.3	65.2
응답 구분	온라인조 사	(1,300)	(5)	0.4	(87)	7.7	(394)	34.8	(554)	49.0	(91)	8.0	64.1
	현장 조사	(697)	(6)	1.0	(40)	6.8	(219)	37.1	(274)	46.4	(52)	8.8	63.8

<표 18> 양성과정의 한국어 수업 유무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예		아니요	
		(빈도)	(빈도)	%	(빈도)	%
전체		(1,997)	(1,886)	94.4	(111)	5.6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778)	94.9	(96)	5.1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51)	87.9	(7)	12.1
	민간 및 사설 단체	(44)	(38)	86.4	(6)	13.6
	기타	(21)	(19)	90.5	(2)	9.5
성별	남자	(334)	(307)	91.9	(27)	8.1
	여자	(1,663)	(1,579)	94.9	(84)	5.1
연령	20대	(613)	(585)	95.4	(28)	4.6
	30대	(660)	(620)	93.9	(40)	6.1
	40대	(484)	(456)	94.2	(28)	5.8
	50대	(218)	(203)	93.1	(15)	6.9
	60대 이상	(22)	(22)	100.0	(0)	0.0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540)	94.9	(29)	5.1
	없음	(1,428)	(1,346)	94.3	(82)	5.7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755)	95.2	(38)	4.8
	없음	(1,204)	(1,131)	93.9	(73)	6.1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241)	95.5	(59)	4.5
	현장 조사	(697)	(645)	92.5	(52)	7.5

<표 19> 한국어 수업의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886)	(12)	0.6	(125)	6.6	(642)	34.0	(894)	47.4	(213)	11.3	65.5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778)	(11)	0.6	(116)	6.5	(596)	33.5	(855)	48.1	(200)	11.2	65.7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1)	(0)	0.0	(6)	11.8	(23)	45.1	(19)	37.3	(3)	5.9	59.3
	민간 및 사설 단체	(38)	(1)	2.6	(2)	5.3	(14)	36.8	(13)	34.2	(8)	21.1	66.4
	기타	(19)	(0)	0.0	(1)	5.3	(9)	47.4	(7)	36.8	(2)	10.5	63.2
성별	남자	(307)	(2)	0.7	(20)	6.5	(98)	31.9	(146)	47.6	(41)	13.4	66.6
	여자	(1,579)	(10)	0.6	(105)	6.6	(544)	34.5	(748)	47.4	(172)	10.9	65.3
연령	20대	(585)	(5)	0.9	(45)	7.7	(176)	30.1	(261)	44.6	(98)	16.8	67.2
	30대	(620)	(5)	0.8	(47)	7.6	(212)	34.2	(291)	46.9	(65)	10.5	64.7
	40대	(456)	(2)	0.4	(18)	3.9	(171)	37.5	(240)	52.6	(25)	5.5	64.7
	50대	(203)	(0)	0.0	(14)	6.9	(76)	37.4	(91)	44.8	(22)	10.8	64.9
	60대 이상	(22)	(0)	0.0	(1)	4.5	(7)	31.8	(11)	50.0	(3)	13.6	68.2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40)	(2)	0.4	(24)	4.4	(202)	37.4	(242)	44.8	(70)	13.0	66.4
	없음	(1,346)	(10)	0.7	(101)	7.5	(440)	32.7	(652)	48.4	(143)	10.6	65.2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55)	(4)	0.5	(51)	6.8	(266)	35.2	(348)	46.1	(86)	11.4	65.3
	없음	(1,131)	(8)	0.7	(74)	6.5	(376)	33.2	(546)	48.3	(127)	11.2	65.7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241)	(9)	0.7	(89)	7.2	(403)	32.5	(597)	48.1	(143)	11.5	65.6
	현장 조사	(645)	(3)	0.5	(36)	5.6	(239)	37.1	(297)	46.0	(70)	10.9	65.3

<표 20> 양성과정의 외국어 대상 한국어 강의 실습 유무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예		아니오	
		(빈도)	(빈도)	%	(빈도)	%
전체		(1,997)	(1300)	65.1	(697)	34.9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250)	66.7	(624)	33.3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20)	34.5	(38)	65.5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8)	40.9	(26)	59.1
	기타	(21)	(12)	57.1	(9)	42.9
성별	남자	(334)	(233)	69.8	(101)	30.2
	여자	(1,663)	(1,067)	64.2	(596)	35.8
연령	20대	(613)	(397)	64.8	(216)	35.2
	30대	(660)	(386)	58.5	(274)	41.5
	40대	(484)	(343)	70.9	(141)	29.1
	50대	(218)	(156)	71.6	(62)	28.4
	60대 이상	(22)	(18)	81.8	(4)	18.2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391)	68.7	(178)	31.3
	없음	(1,428)	(909)	63.7	(519)	36.3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507)	63.9	(286)	36.1
	없음	(1,204)	(793)	65.9	(411)	34.1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833)	64.1	(467)	35.9
	현장 조사	(697)	(467)	67.0	(230)	33.0

<표 21>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의 실습 만족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300)	(5)	0.4	(70)	5.4	(446)	34.3	(635)	48.8	(144)	11.1	66.2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250)	(5)	0.4	(65)	5.2	(424)	33.9	(617)	49.4	(139)	11.1	66.4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20)	(0)	0.0	(3)	15.0	(8)	40.0	(7)	35.0	(2)	10.0	60.0
	민간 및 사설 단체	(18)	(0)	0.0	(1)	5.6	(8)	44.4	(7)	38.9	(2)	11.1	63.9
	기타	(12)	(0)	0.0	(1)	8.3	(6)	50.0	(4)	33.3	(1)	8.3	60.4
성별	남자	(233)	(1)	0.4	(14)	6.0	(75)	32.2	(113)	48.5	(30)	12.9	66.8
	여자	(1,067)	(4)	0.4	(56)	5.2	(371)	34.8	(522)	48.9	(114)	10.7	66.1
연령	20대	(397)	(1)	0.3	(18)	4.5	(108)	27.2	(200)	50.4	(70)	17.6	70.2
	30대	(386)	(1)	0.3	(22)	5.7	(132)	34.2	(190)	49.2	(41)	10.6	66.1
	40대	(343)	(2)	0.6	(18)	5.2	(139)	40.5	(166)	48.4	(18)	5.2	63.1
	50대	(156)	(1)	0.6	(12)	7.7	(62)	39.7	(69)	44.2	(12)	7.7	62.7
	60대 이상	(18)	(0)	0.0	(0)	0.0	(5)	27.8	(10)	55.6	(3)	16.7	72.2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391)	(0)	0.0	(23)	5.9	(132)	33.8	(192)	49.1	(44)	11.3	66.4
	없음	(909)	(5)	0.6	(47)	5.2	(314)	34.5	(443)	48.7	(100)	11.0	66.1
한 국어 교육현장	있음	(507)	(3)	0.6	(32)	6.3	(185)	36.5	(239)	47.1	(48)	9.5	64.6
	없음	(793)	(2)	0.3	(38)	4.8	(261)	32.9	(396)	49.9	(96)	12.1	67.2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833)	(4)	0.5	(51)	6.1	(274)	32.9	(406)	48.7	(98)	11.8	66.3
	현장 조사	(467)	(1)	0.2	(19)	4.1	(172)	36.8	(229)	49.0	(46)	9.9	66.1

<표 22> 교육 목표와 내용에 대한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18)	0.9	(163)	8.2	(816)	40.9	(898)	45.0	(102)	5.1	61.3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6)	0.9	(146)	7.8	(765)	40.8	(851)	45.4	(96)	5.1	61.5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11)	19.0	(23)	39.7	(21)	36.2	(2)	3.4	55.2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	2.3	(4)	9.1	(16)	36.4	(20)	45.5	(3)	6.8	61.4
	기타	(21)	(0)	0.0	(2)	9.5	(12)	57.1	(6)	28.6	(1)	4.8	57.1
성별	남자	(334)	(2)	0.6	(33)	9.9	(130)	38.9	(152)	45.5	(17)	5.1	61.2
	여자	(1,663)	(16)	1.0	(130)	7.8	(686)	41.3	(746)	44.9	(85)	5.1	61.3
연령	20대	(613)	(4)	0.7	(44)	7.2	(260)	42.4	(270)	44.0	(35)	5.7	61.7
	30대	(660)	(7)	1.1	(57)	8.6	(267)	40.5	(296)	44.8	(33)	5.0	61.0
	40대	(484)	(4)	0.8	(41)	8.5	(200)	41.3	(220)	45.5	(19)	3.9	60.8
	50대	(218)	(3)	1.4	(18)	8.3	(84)	38.5	(100)	45.9	(13)	6.0	61.7
	60대 이상	(22)	(0)	0.0	(3)	13.6	(5)	22.7	(12)	54.5	(2)	9.1	64.8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7)	1.2	(40)	7.0	(231)	40.6	(253)	44.5	(38)	6.7	62.1
	없음	(1,428)	(11)	0.8	(123)	8.6	(585)	41.0	(645)	45.2	(64)	4.5	61.0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8)	1.0	(64)	8.1	(327)	41.2	(347)	43.8	(47)	5.9	61.4
	없음	(1,204)	(10)	0.8	(99)	8.2	(489)	40.6	(551)	45.8	(55)	4.6	61.3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2)	0.9	(115)	8.8	(526)	40.5	(584)	44.9	(63)	4.8	61.0
	현장 조사	(697)	(6)	0.9	(48)	6.9	(290)	41.6	(314)	45.1	(39)	5.6	61.9

<표 23> 교육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일치		불일치		보통		일치		매우 일치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17)	0.9	(213)	10.7	(750)	37.6	(900)	45.1	(117)	5.9	61.1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5)	0.8	(197)	10.5	(695)	37.1	(859)	45.8	(108)	5.8	61.3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9)	15.5	(23)	39.7	(23)	39.7	(2)	3.4	56.9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	2.3	(4)	9.1	(21)	47.7	(12)	27.3	(6)	13.6	60.2
	기타	(21)	(0)	0.0	(3)	14.3	(11)	52.4	(6)	28.6	(1)	4.8	56.0
성별	남자	(334)	(1)	0.3	(32)	9.6	(129)	38.6	(150)	44.9	(22)	6.6	62.0
	여자	(1,663)	(16)	1.0	(181)	10.9	(621)	37.3	(750)	45.1	(95)	5.7	60.9
연령	20대	(613)	(1)	0.2	(75)	12.2	(216)	35.2	(279)	45.5	(42)	6.9	61.7
	30대	(660)	(9)	1.4	(67)	10.2	(239)	36.2	(310)	47.0	(35)	5.3	61.2
	40대	(484)	(4)	0.8	(46)	9.5	(204)	42.1	(204)	42.1	(26)	5.4	60.4
	50대	(218)	(3)	1.4	(23)	10.6	(81)	37.2	(98)	45.0	(13)	6.0	60.9
	60대 이상	(22)	(0)	0.0	(2)	9.1	(10)	45.5	(9)	40.9	(1)	4.5	60.2
한 국어 교육경험	있음	(569)	(8)	1.4	(66)	11.6	(198)	34.8	(257)	45.2	(40)	7.0	61.2
	없음	(1,428)	(9)	0.6	(147)	10.3	(552)	38.7	(643)	45.0	(77)	5.4	61.1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8)	1.0	(86)	10.8	(300)	37.8	(349)	44.0	(50)	6.3	60.9
	없음	(1,204)	(9)	0.7	(127)	10.5	(450)	37.4	(551)	45.8	(67)	5.6	61.2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2)	0.9	(139)	10.7	(486)	37.4	(594)	45.7	(69)	5.3	60.9
	현장 조사	(697)	(5)	0.7	(74)	10.6	(264)	37.9	(306)	43.9	(48)	6.9	61.4

<표 24> 강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22)	1.1	(236)	11.8	(856)	42.9	(788)	39.5	(95)	4.8	58.7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9)	1.0	(218)	11.6	(800)	42.7	(748)	39.9	(89)	4.7	58.9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9)	15.5	(25)	43.1	(21)	36.2	(2)	3.4	56.0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	2.3	(5)	11.4	(19)	43.2	(15)	34.1	(4)	9.1	59.1
	기타	(21)	(1)	4.8	(4)	19.0	(12)	57.1	(4)	19.0	(0)	0.0	47.6
성별	남자	(334)	(2)	0.6	(38)	11.4	(135)	40.4	(144)	43.1	(15)	4.5	59.9
	여자	(1,663)	(20)	1.2	(198)	11.9	(721)	43.4	(644)	38.7	(80)	4.8	58.5
연령	20대	(613)	(5)	0.8	(71)	11.6	(270)	44.0	(232)	37.8	(35)	5.7	59.0
	30대	(660)	(14)	2.1	(87)	13.2	(270)	40.9	(260)	39.4	(29)	4.4	57.7
	40대	(484)	(1)	0.2	(55)	11.4	(207)	42.8	(206)	42.6	(15)	3.1	59.2
	50대	(218)	(2)	0.9	(22)	10.1	(100)	45.9	(80)	36.7	(14)	6.4	59.4
	60대 이상	(22)	(0)	0.0	(1)	4.5	(9)	40.9	(10)	45.5	(2)	9.1	64.8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8)	1.4	(74)	13.0	(240)	42.2	(217)	38.1	(30)	5.3	58.2
	없음	(1,428)	(14)	1.0	(162)	11.3	(616)	43.1	(571)	40.0	(65)	4.6	58.9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7)	0.9	(104)	13.1	(324)	40.9	(321)	40.5	(37)	4.7	58.7
	없음	(1,204)	(15)	1.2	(132)	11.0	(532)	44.2	(467)	38.8	(58)	4.8	58.7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4)	1.1	(173)	13.3	(549)	42.2	(504)	38.8	(60)	4.6	58.1
	현장 조사	(697)	(8)	1.1	(63)	9.0	(307)	44.0	(284)	40.7	(35)	5.0	59.9

<표 25> 이론 수업의 형태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214)	10.7	(1,484)	74.3	(268)	13.4	(31)	1.6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201)	10.7	(1,390)	74.2	(258)	13.8	(25)	1.3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8)	13.8	(43)	74.1	(4)	6.9	(3)	5.2
	민간 및 사설 단체	(44)	(4)	9.1	(36)	81.8	(3)	6.8	(1)	2.3
	기타	(21)	(1)	4.8	(15)	71.4	(3)	14.3	(2)	9.5
성별	남자	(334)	(40)	12.0	(238)	71.3	(52)	15.6	(4)	1.2
	여자	(1,663)	(174)	10.5	(1,246)	74.9	(216)	13.0	(27)	1.6
연령	20대	(613)	(57)	9.3	(512)	83.5	(39)	6.4	(5)	0.8
	30대	(660)	(79)	12.0	(499)	75.6	(79)	12.0	(3)	0.5
	40대	(484)	(45)	9.3	(339)	70.0	(91)	18.8	(9)	1.9
	50대	(218)	(29)	13.3	(124)	56.9	(53)	24.3	(12)	5.5
	60대 이상	(22)	(4)	18.2	(10)	45.5	(6)	27.3	(2)	9.1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56)	9.8	(434)	76.3	(71)	12.5	(8)	1.4
	없음	(1,428)	(158)	11.1	(1,050)	73.5	(197)	13.8	(23)	1.6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73)	9.2	(604)	76.2	(100)	12.6	(16)	2.0
	없음	(1,204)	(141)	11.7	(880)	73.1	(168)	14.0	(15)	1.2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19)	9.2	(1,008)	77.5	(161)	12.4	(12)	0.9
	현장 조사	(697)	(95)	13.6	(476)	68.3	(107)	15.4	(19)	2.7

<표 26> 이론 수업 형태에 대한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21)	1.1	(225)	11.3	(825)	41.3	(821)	41.1	(105)	5.3	59.6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20)	1.1	(215)	11.5	(763)	40.7	(780)	41.6	(96)	5.1	59.6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0)	0.0	(6)	10.3	(31)	53.4	(18)	31.0	(3)	5.2	57.8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	2.3	(3)	6.8	(18)	40.9	(17)	38.6	(5)	11.4	62.5
	기타	(21)	(0)	0.0	(1)	4.8	(13)	61.9	(6)	28.6	(1)	4.8	58.3
성별	남자	(334)	(0)	0.0	(32)	9.6	(141)	42.2	(138)	41.3	(23)	6.9	61.4
	여자	(1,663)	(21)	1.3	(193)	11.6	(684)	41.1	(683)	41.1	(82)	4.9	59.2
연령	20대	(613)	(5)	0.8	(64)	10.4	(245)	40.0	(259)	42.3	(40)	6.5	60.8
	30대	(660)	(9)	1.4	(86)	13.0	(283)	42.9	(251)	38.0	(31)	4.7	57.9
	40대	(484)	(5)	1.0	(49)	10.1	(207)	42.8	(203)	41.9	(20)	4.1	59.5
	50대	(218)	(2)	0.9	(25)	11.5	(81)	37.2	(96)	44.0	(14)	6.4	60.9
	60대 이상	(22)	(0)	0.0	(1)	4.5	(9)	40.9	(12)	54.5	(0)	0.0	62.5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12)	2.1	(63)	11.1	(219)	38.5	(241)	42.4	(34)	6.0	59.8
	없음	(1,428)	(9)	0.6	(162)	11.3	(606)	42.4	(580)	40.6	(71)	5.0	59.5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7)	0.9	(93)	11.7	(331)	41.7	(317)	40.0	(45)	5.7	59.5
	없음	(1,204)	(14)	1.2	(132)	11.0	(494)	41.0	(504)	41.9	(60)	5.0	59.6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4)	1.1	(141)	10.8	(534)	41.1	(545)	41.9	(66)	5.1	59.8
	현장 조사	(697)	(7)	1.0	(84)	12.1	(291)	41.8	(276)	39.6	(39)	5.6	59.2

<표 27> 학습 방법(강의/토론/실습 등)의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17)	0.9	(239)	12.0	(765)	38.3	(869)	43.5	(107)	5.4	60.1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6)	0.9	(222)	11.8	(706)	37.7	(831)	44.3	(99)	5.3	60.3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0)	0.0	(10)	17.2	(27)	46.6	(19)	32.8	(2)	3.4	55.6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	2.3	(4)	9.1	(19)	43.2	(14)	31.8	(6)	13.6	61.4
	기타	(21)	(0)	0.0	(3)	14.3	(13)	61.9	(5)	23.8	(0)	0.0	52.4
성별	남자	(334)	(1)	0.3	(40)	12.0	(129)	38.6	(144)	43.1	(20)	6.0	60.6
	여자	(1,663)	(16)	1.0	(199)	12.0	(636)	38.2	(725)	43.6	(87)	5.2	60.0
연령	20대	(613)	(5)	0.8	(77)	12.6	(223)	36.4	(262)	42.7	(46)	7.5	60.9
	30대	(660)	(7)	1.1	(94)	14.2	(250)	37.9	(279)	42.3	(30)	4.5	58.8
	40대	(484)	(4)	0.8	(41)	8.5	(205)	42.4	(217)	44.8	(17)	3.5	60.4
	50대	(218)	(1)	0.5	(25)	11.5	(82)	37.6	(97)	44.5	(13)	6.0	61.0
	60대 이상	(22)	(0)	0.0	(2)	9.1	(5)	22.7	(14)	63.6	(1)	4.5	65.9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7)	1.2	(62)	10.9	(212)	37.3	(253)	44.5	(35)	6.2	60.9
	없음	(1,428)	(10)	0.7	(177)	12.4	(553)	38.7	(616)	43.1	(72)	5.0	59.9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7)	0.9	(94)	11.9	(315)	39.7	(335)	42.2	(42)	5.3	59.8
	없음	(1,204)	(10)	0.8	(145)	12.0	(450)	37.4	(534)	44.4	(65)	5.4	60.4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2)	0.9	(161)	12.4	(493)	37.9	(579)	44.5	(55)	4.2	59.7
	현장 조사	(697)	(5)	0.7	(78)	11.2	(272)	39.0	(290)	41.6	(52)	7.5	61.0

<표 28> 학습 평가에 대한 결과 활용 적절성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100점) 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70)	3.5	(340)	17.0	(867)	43.4	(651)	32.6	(69)	3.5	53.9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67)	3.6	(319)	17.0	(811)	43.3	(614)	32.8	(63)	3.4	53.8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11)	19.0	(23)	39.7	(20)	34.5	(3)	5.2	55.6
	민간 및 시설 단체	(44)	(1)	2.3	(5)	11.4	(23)	52.3	(12)	27.3	(3)	6.8	56.3
	기타	(21)	(1)	4.8	(5)	23.8	(10)	47.6	(5)	23.8	(0)	0.0	47.6
성별	남자	(334)	(10)	3.0	(50)	15.0	(133)	39.8	(130)	38.9	(11)	3.3	56.1
	여자	(1,663)	(60)	3.6	(290)	17.4	(734)	44.1	(521)	31.3	(58)	3.5	53.4
연령	20대	(613)	(17)	2.8	(97)	15.8	(261)	42.6	(216)	35.2	(22)	3.6	55.3
	30대	(660)	(26)	3.9	(116)	17.6	(307)	46.5	(190)	28.8	(21)	3.2	52.4
	40대	(484)	(18)	3.7	(77)	15.9	(208)	43.0	(164)	33.9	(17)	3.5	54.4
	50대	(218)	(8)	3.7	(45)	20.6	(81)	37.2	(76)	34.9	(8)	3.7	53.6
	60대 이상	(22)	(1)	4.5	(5)	22.7	(10)	45.5	(5)	22.7	(1)	4.5	50.0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20)	3.5	(95)	16.7	(239)	42.0	(188)	33.0	(27)	4.7	54.7
	없음	(1,428)	(50)	3.5	(245)	17.2	(628)	44.0	(463)	32.4	(42)	2.9	53.5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23)	2.9	(134)	16.9	(348)	43.9	(258)	32.5	(30)	3.8	54.4
	없음	(1,204)	(47)	3.9	(206)	17.1	(519)	43.1	(393)	32.6	(39)	3.2	53.6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58)	4.5	(268)	20.6	(541)	41.6	(391)	30.1	(42)	3.2	51.8
	현장 조사	(697)	(12)	1.7	(72)	10.3	(326)	46.8	(260)	37.3	(27)	3.9	57.8

<표 29> 양성과정 이후 정보 제공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예		아니오	
		(빈도)	(빈도)	%	(빈도)	%
전체		(1,997)	(989)	49.5	(1008)	50.5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924)	49.3	(950)	50.7
	정부/지자체/공공 기관	(58)	(26)	44.8	(32)	55.2
	민간 및 사설 단체	(44)	(30)	68.2	(14)	31.8
	기타	(21)	(9)	42.9	(12)	57.1
성별	남자	(334)	(177)	53.0	(157)	47.0
	여자	(1,663)	(812)	48.8	(851)	51.2
연령	20대	(613)	(334)	54.5	(279)	45.5
	30대	(660)	(307)	46.5	(353)	53.5
	40대	(484)	(234)	48.3	(250)	51.7
	50대	(218)	(106)	48.6	(112)	51.4
	60대 이상	(22)	(8)	36.4	(14)	63.6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284)	49.9	(285)	50.1
	없음	(1,428)	(705)	49.4	(723)	50.6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396)	49.9	(397)	50.1
	없음	(1,204)	(593)	49.3	(611)	50.7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558)	42.9	(742)	57.1
	현장 조사	(697)	(431)	61.8	(266)	38.2

<표 30> 양성과정 후 제공받은 정보의 종류(중복 응답)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한국어교육능력 시험 관련 정보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		양성과정 보수 교육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정보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989)	(744)	75.2	(459)	46.4	(347)	35.1	(312)	31.5	(67)	6.8
양성 과정	대학 부설	(924)	(695)	75.2	(437)	47.3	(329)	35.6	(295)	31.9	(63)	6.8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26)	(17)	65.4	(10)	38.5	(5)	19.2	(8)	30.8	(1)	3.8
	민간 및 사설 단체	(30)	(26)	86.7	(9)	30.0	(10)	33.3	(6)	20.0	(2)	6.7
	기타	(9)	(6)	66.7	(3)	33.3	(3)	33.3	(3)	33.3	(1)	11.1
성별	남자	(177)	(138)	78.0	(79)	44.6	(73)	41.2	(57)	32.2	(6)	3.4
	여자	(812)	(606)	74.6	(380)	46.8	(274)	33.7	(255)	31.4	(61)	7.5
연령	20대	(334)	(257)	76.9	(163)	48.8	(124)	37.1	(113)	33.8	(18)	5.4
	30대	(307)	(217)	70.7	(149)	48.5	(102)	33.2	(81)	26.4	(23)	7.5
	40대	(234)	(177)	75.6	(104)	44.4	(75)	32.1	(74)	31.6	(17)	7.3
	50대	(106)	(87)	82.1	(39)	36.8	(43)	40.6	(40)	37.7	(8)	7.5
	60대 이상	(8)	(6)	75.0	(4)	50.0	(3)	37.5	(4)	50.0	(1)	12.5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284)	(218)	76.8	(129)	45.4	(101)	35.6	(87)	30.6	(17)	6.0
	없음	(705)	(526)	74.6	(330)	46.8	(246)	34.9	(225)	31.9	(50)	7.1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396)	(291)	73.5	(203)	51.3	(128)	32.3	(132)	33.3	(23)	5.8
	없음	(593)	(453)	76.4	(256)	43.2	(219)	36.9	(180)	30.4	(44)	7.4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558)	(425)	76.2	(306)	54.8	(212)	38.0	(197)	35.3	(28)	5.0
	현장 조사	(431)	(319)	74.0	(153)	35.5	(135)	31.3	(115)	26.7	(39)	9.0

<표 31> 수강 인원 대비 강의실 크기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24)	1.2	(218)	10.9	(667)	33.4	(921)	46.1	(167)	8.4	62.4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21)	1.1	(205)	10.9	(612)	32.7	(876)	46.7	(160)	8.5	62.7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4)	6.9	(23)	39.7	(26)	44.8	(4)	6.9	62.1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	2.3	(7)	15.9	(21)	47.7	(12)	27.3	(3)	6.8	55.1
	기타	(21)	(1)	4.8	(2)	9.5	(11)	52.4	(7)	33.3	(0)	0.0	53.6
성별	남자	(334)	(4)	1.2	(43)	12.9	(98)	29.3	(158)	47.3	(31)	9.3	62.6
	여자	(1,663)	(20)	1.2	(175)	10.5	(569)	34.2	(763)	45.9	(136)	8.2	62.3
연령	20대	(613)	(7)	1.1	(59)	9.6	(212)	34.6	(265)	43.2	(70)	11.4	63.5
	30대	(660)	(8)	1.2	(88)	13.3	(217)	32.9	(299)	45.3	(48)	7.3	61.0
	40대	(484)	(6)	1.2	(42)	8.7	(159)	32.9	(249)	51.4	(28)	5.8	63.0
	50대	(218)	(3)	1.4	(27)	12.4	(75)	34.4	(93)	42.7	(20)	9.2	61.5
	60대 이상	(22)	(0)	0.0	(2)	9.1	(4)	18.2	(15)	68.2	(1)	4.5	67.0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7)	1.2	(58)	10.2	(194)	34.1	(266)	46.7	(44)	7.7	62.4
	없음	(1,428)	(17)	1.2	(160)	11.2	(473)	33.1	(655)	45.9	(123)	8.6	62.4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9)	1.1	(85)	10.7	(251)	31.7	(377)	47.5	(71)	9.0	63.1
	없음	(1,204)	(15)	1.2	(133)	11.0	(416)	34.6	(544)	45.2	(96)	8.0	61.9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5)	1.2	(128)	9.8	(399)	30.7	(645)	49.6	(113)	8.7	63.7
	현장 조사	(697)	(9)	1.3	(90)	12.9	(268)	38.5	(276)	39.6	(54)	7.7	59.9

<표 32> 교육 기자재 활용에 대한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33)	1.7	(266)	13.3	(867)	43.4	(732)	36.7	(99)	5.0	57.5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30)	1.6	(245)	13.1	(807)	43.1	(697)	37.2	(95)	5.1	57.8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8)	13.8	(32)	55.2	(16)	27.6	(1)	1.7	53.4
	민간 및 사설 단체	(44)	(0)	0.0	(10)	22.7	(20)	45.5	(11)	25.0	(3)	6.8	54.0
	기타	(21)	(2)	9.5	(3)	14.3	(8)	38.1	(8)	38.1	(0)	0.0	51.2
성별	남자	(334)	(5)	1.5	(40)	12.0	(139)	41.6	(129)	38.6	(21)	6.3	59.1
	여자	(1,663)	(28)	1.7	(226)	13.6	(728)	43.8	(603)	36.3	(78)	4.7	57.2
연령	20대	(613)	(6)	1.0	(80)	13.1	(242)	39.5	(241)	39.3	(44)	7.2	59.7
	30대	(660)	(14)	2.1	(91)	13.8	(299)	45.3	(235)	35.6	(21)	3.2	56.0
	40대	(484)	(5)	1.0	(65)	13.4	(215)	44.4	(182)	37.6	(17)	3.5	57.3
	50대	(218)	(8)	3.7	(30)	13.8	(101)	46.3	(63)	28.9	(16)	7.3	55.6
	60대 이상	(22)	(0)	0.0	(0)	0.0	(10)	45.5	(11)	50.0	(1)	4.5	64.8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18)	3.2	(82)	14.4	(231)	40.6	(206)	36.2	(32)	5.6	56.7
	없음	(1,428)	(15)	1.1	(184)	12.9	(636)	44.5	(526)	36.8	(67)	4.7	57.8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11)	1.4	(114)	14.4	(344)	43.4	(284)	35.8	(40)	5.0	57.2
	없음	(1,204)	(22)	1.8	(152)	12.6	(523)	43.4	(448)	37.2	(59)	4.9	57.7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22)	1.7	(183)	14.1	(553)	42.5	(480)	36.9	(62)	4.8	57.3
	현장 조사	(697)	(11)	1.6	(83)	11.9	(314)	45.1	(252)	36.2	(37)	5.3	57.9

<표 33> 교재(주교재, 부교재 포함)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현 황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49)	2.5	(347)	17.4	(822)	41.2	(689)	34.5	(90)	4.5	55.3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45)	2.4	(322)	17.2	(769)	41.0	(652)	34.8	(86)	4.6	55.5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2)	3.4	(12)	20.7	(23)	39.7	(20)	34.5	(1)	1.7	52.6
	민간 및 사설 단체	(44)	(0)	0.0	(10)	22.7	(17)	38.6	(14)	31.8	(3)	6.8	55.7
	기타	(21)	(2)	9.5	(3)	14.3	(13)	61.9	(3)	14.3	(0)	0.0	45.2
성별	남자	(334)	(5)	1.5	(55)	16.5	(138)	41.3	(117)	35.0	(19)	5.7	56.7
	여자	(1,663)	(44)	2.6	(292)	17.6	(684)	41.1	(572)	34.4	(71)	4.3	55.0
연령	20대	(613)	(13)	2.1	(111)	18.1	(239)	39.0	(217)	35.4	(33)	5.4	56.0
	30대	(660)	(27)	4.1	(114)	17.3	(283)	42.9	(210)	31.8	(26)	3.9	53.6
	40대	(484)	(7)	1.4	(83)	17.1	(195)	40.3	(184)	38.0	(15)	3.1	56.0
	50대	(218)	(2)	0.9	(37)	17.0	(94)	43.1	(70)	32.1	(15)	6.9	56.8
	60대 이상	(22)	(0)	0.0	(2)	9.1	(11)	50.0	(8)	36.4	(1)	4.5	59.1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17)	3.0	(106)	18.6	(226)	39.7	(192)	33.7	(28)	4.9	54.7
	없음	(1,428)	(32)	2.2	(241)	16.9	(596)	41.7	(497)	34.8	(62)	4.3	55.5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20)	2.5	(148)	18.7	(309)	39.0	(276)	34.8	(40)	5.0	55.3
	없음	(1,204)	(29)	2.4	(199)	16.5	(513)	42.6	(413)	34.3	(50)	4.2	55.3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29)	2.2	(245)	18.8	(545)	41.9	(425)	32.7	(56)	4.3	54.5
	현장 조사	(697)	(20)	2.9	(102)	14.6	(277)	39.7	(264)	37.9	(34)	4.9	56.8

<표 34> 강사의 전문 지식 보유 정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2)	0.1	(51)	2.6	(381)	19.1	(1057)	52.9	(506)	25.3	75.2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	0.1	(49)	2.6	(351)	18.7	(997)	53.2	(476)	25.4	75.3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0)	0.0	(13)	22.4	(32)	55.2	(12)	20.7	73.3
	민간 및 사설 단체	(44)	(0)	0.0	(1)	2.3	(10)	22.7	(16)	36.4	(17)	38.6	77.8
	기타	(21)	(0)	0.0	(1)	4.8	(7)	33.3	(12)	57.1	(1)	4.8	65.5
성별	남자	(334)	(0)	0.0	(6)	1.8	(69)	20.7	(168)	50.3	(91)	27.2	75.7
	여자	(1,663)	(2)	0.1	(45)	2.7	(312)	18.8	(889)	53.5	(415)	25.0	75.1
연령	20대	(613)	(1)	0.2	(21)	3.4	(108)	17.6	(310)	50.6	(173)	28.2	75.8
	30대	(660)	(1)	0.2	(13)	2.0	(134)	20.3	(344)	52.1	(168)	25.5	75.2
	40대	(484)	(0)	0.0	(8)	1.7	(92)	19.0	(278)	57.4	(106)	21.9	74.9
	50대	(218)	(0)	0.0	(9)	4.1	(44)	20.2	(113)	51.8	(52)	23.9	73.9
	60대 이상	(22)	(0)	0.0	(0)	0.0	(3)	13.6	(12)	54.5	(7)	31.8	79.5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0)	0.0	(15)	2.6	(116)	20.4	(311)	54.7	(127)	22.3	74.2
	없음	(1,428)	(2)	0.1	(36)	2.5	(265)	18.6	(746)	52.2	(379)	26.5	75.6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0)	0.0	(23)	2.9	(153)	19.3	(415)	52.3	(202)	25.5	75.1
	없음	(1,204)	(2)	0.2	(28)	2.3	(228)	18.9	(642)	53.3	(304)	25.2	75.3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0)	0.0	(39)	3.0	(221)	17.0	(712)	54.8	(328)	25.2	75.6
	현장 조사	(697)	(2)	0.3	(12)	1.7	(160)	23.0	(345)	49.5	(178)	25.5	74.6

<표 35> 교육 환경의 장점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우수한 강사진		쾌적한 강의실		풍부한 실습 여건		훌륭한 교육 기자재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97)	(1284)	64.3	(713)	35.7	(572)	28.6	(402)	20.1	(186)	9.3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214)	64.8	(675)	36.0	(538)	28.7	(380)	20.3	(173)	9.2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27)	46.6	(19)	32.8	(15)	25.9	(10)	17.2	(6)	10.3
	민간 및 사설 단체	(44)	(29)	65.9	(11)	25.0	(14)	31.8	(8)	18.2	(4)	9.1
	기타	(21)	(14)	66.7	(8)	38.1	(5)	23.8	(4)	19.0	(3)	14.3
성별	남자	(334)	(226)	67.7	(116)	34.7	(105)	31.4	(81)	24.3	(22)	6.6
	여자	(1,663)	(1058)	63.6	(597)	35.9	(467)	28.1	(321)	19.3	(164)	9.9
연령	20대	(613)	(390)	63.6	(229)	37.4	(187)	30.5	(117)	19.1	(49)	8.0
	30대	(660)	(427)	64.7	(224)	33.9	(171)	25.9	(112)	17.0	(78)	11.8
	40대	(484)	(315)	65.1	(175)	36.2	(144)	29.8	(106)	21.9	(36)	7.4
	50대	(218)	(138)	63.3	(76)	34.9	(61)	28.0	(59)	27.1	(21)	9.6
	60대 이상	(22)	(14)	63.6	(9)	40.9	(9)	40.9	(8)	36.4	(2)	9.1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350)	61.5	(183)	32.2	(186)	32.7	(117)	20.6	(63)	11.1
	없음	(1,428)	(934)	65.4	(530)	37.1	(386)	27.0	(285)	20.0	(123)	8.6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513)	64.7	(286)	36.1	(227)	28.6	(153)	19.3	(60)	7.6
	없음	(1,204)	(771)	64.0	(427)	35.5	(345)	28.7	(249)	20.7	(126)	10.5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864)	66.5	(516)	39.7	(383)	29.5	(275)	21.2	(109)	8.4
	현장 조사	(697)	(420)	60.3	(197)	28.3	(189)	27.1	(127)	18.2	(77)	11.0

<표 36> 교육 내용이 한국어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19)	1.0	(113)	5.7	(607)	30.4	(1080)	54.1	(178)	8.9	66.1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17)	0.9	(103)	5.5	(566)	30.2	(1019)	54.4	(169)	9.0	66.3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0)	0.0	(7)	12.1	(17)	29.3	(33)	56.9	(1)	1.7	62.1
	민간 및 사실 단체	(44)	(2)	4.5	(2)	4.5	(13)	29.5	(19)	43.2	(8)	18.2	66.5
	기타	(21)	(0)	0.0	(1)	4.8	(11)	52.4	(9)	42.9	(0)	0.0	59.5
성별	남자	(334)	(7)	2.1	(21)	6.3	(97)	29.0	(176)	52.7	(33)	9.9	65.5
	여자	(1,663)	(12)	0.7	(92)	5.5	(510)	30.7	(904)	54.4	(145)	8.7	66.2
연령	20대	(613)	(4)	0.7	(38)	6.2	(204)	33.3	(309)	50.4	(58)	9.5	65.5
	30대	(660)	(12)	1.8	(38)	5.8	(190)	28.8	(372)	56.4	(48)	7.3	65.4
	40대	(484)	(0)	0.0	(28)	5.8	(150)	31.0	(266)	55.0	(40)	8.3	66.4
	50대	(218)	(3)	1.4	(8)	3.7	(56)	25.7	(125)	57.3	(26)	11.9	68.7
	60대 이상	(22)	(0)	0.0	(1)	4.5	(7)	31.8	(8)	36.4	(6)	27.3	71.6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7)	1.2	(23)	4.0	(178)	31.3	(304)	53.4	(57)	10.0	66.7
	없음	(1,428)	(12)	0.8	(90)	6.3	(429)	30.0	(776)	54.3	(121)	8.5	65.8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9)	1.1	(46)	5.8	(241)	30.4	(405)	51.1	(92)	11.6	66.6
	없음	(1,204)	(10)	0.8	(67)	5.6	(366)	30.4	(675)	56.1	(86)	7.1	65.8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15)	1.2	(88)	6.8	(409)	31.5	(666)	51.2	(122)	9.4	65.2
	현장 조사	(697)	(4)	0.6	(25)	3.6	(198)	28.4	(414)	59.4	(56)	8.0	67.7

<표 37> 양성과정 수료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점
전체		(1,997)	(88)	4.4	(297)	14.9	(676)	33.9	(804)	40.3	(132)	6.6	57.4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85)	4.5	(282)	15.0	(637)	34.0	(744)	39.7	(126)	6.7	57.3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0)	0.0	(6)	10.3	(17)	29.3	(33)	56.9	(2)	3.4	63.4
	민간 및 사설 단체	(44)	(3)	6.8	(4)	9.1	(16)	36.4	(17)	38.6	(4)	9.1	58.5
	기타	(21)	(0)	0.0	(5)	23.8	(6)	28.6	(10)	47.6	(0)	0.0	56.0
성별	남자	(334)	(17)	5.1	(49)	14.7	(136)	40.7	(119)	35.6	(13)	3.9	54.6
	여자	(1,663)	(71)	4.3	(248)	14.9	(540)	32.5	(685)	41.2	(119)	7.2	58.0
연령	20대	(613)	(23)	3.8	(89)	14.5	(194)	31.6	(255)	41.6	(52)	8.5	59.1
	30대	(660)	(26)	3.9	(103)	15.6	(229)	34.7	(263)	39.8	(39)	5.9	57.0
	40대	(484)	(26)	5.4	(71)	14.7	(173)	35.7	(187)	38.6	(27)	5.6	56.1
	50대	(218)	(12)	5.5	(31)	14.2	(72)	33.0	(91)	41.7	(12)	5.5	56.9
	60대 이상	(22)	(1)	4.5	(3)	13.6	(8)	36.4	(8)	36.4	(2)	9.1	58.0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30)	5.3	(80)	14.1	(182)	32.0	(240)	42.2	(37)	6.5	57.6
	없음	(1,428)	(58)	4.1	(217)	15.2	(494)	34.6	(564)	39.5	(95)	6.7	57.4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35)	4.4	(108)	13.6	(236)	29.8	(343)	43.3	(71)	9.0	59.7
	없음	(1,204)	(53)	4.4	(189)	15.7	(440)	36.5	(461)	38.3	(61)	5.1	56.0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71)	5.5	(226)	17.4	(451)	34.7	(469)	36.1	(83)	6.4	55.1
	현장 조사	(697)	(17)	2.4	(71)	10.2	(225)	32.3	(335)	48.1	(49)	7.0	61.8

<표 38> 양성과정 수료증이 관련 업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점
전체		(1,997)	(58)	2.9	(202)	10.1	(647)	32.4	(922)	46.2	(168)	8.4	61.8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56)	3.0	(184)	9.8	(613)	32.7	(861)	45.9	(160)	8.5	61.8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1)	1.7	(6)	10.3	(15)	25.9	(33)	56.9	(3)	5.2	63.4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	2.3	(6)	13.6	(12)	27.3	(20)	45.5	(5)	11.4	62.5
	기타	(21)	(0)	0.0	(6)	28.6	(7)	33.3	(8)	38.1	(0)	0.0	52.4
성별	남자	(334)	(14)	4.2	(42)	12.6	(123)	36.8	(138)	41.3	(17)	5.1	57.6
	여자	(1,663)	(44)	2.6	(160)	9.6	(524)	31.5	(784)	47.1	(151)	9.1	62.6
연령	20대	(613)	(18)	2.9	(55)	9.0	(193)	31.5	(279)	45.5	(68)	11.1	63.2
	30대	(660)	(17)	2.6	(65)	9.8	(224)	33.9	(307)	46.5	(47)	7.1	61.4
	40대	(484)	(13)	2.7	(56)	11.6	(150)	31.0	(231)	47.7	(34)	7.0	61.2
	50대	(218)	(9)	4.1	(21)	9.6	(76)	34.9	(96)	44.0	(16)	7.3	60.2
	60대 이상	(22)	(1)	4.5	(5)	22.7	(4)	18.2	(9)	40.9	(3)	13.6	59.1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17)	3.0	(45)	7.9	(186)	32.7	(275)	48.3	(46)	8.1	62.7
	없음	(1,428)	(41)	2.9	(157)	11.0	(461)	32.3	(647)	45.3	(122)	8.5	61.4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15)	1.9	(65)	8.2	(219)	27.6	(401)	50.6	(93)	11.7	65.5
	없음	(1,204)	(43)	3.6	(137)	11.4	(428)	35.5	(521)	43.3	(75)	6.2	59.3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47)	3.6	(147)	11.3	(440)	33.8	(557)	42.8	(109)	8.4	60.3
	현장 조사	(697)	(11)	1.6	(55)	7.9	(207)	29.7	(365)	52.4	(59)	8.5	64.6

<표 39>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이 한국어교육 능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응답자 특성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전체		(1,997)	(78)	3.9	(433)	21.7	(791)	39.6	(624)	31.2	(71)	3.6	52.2
양성 과정	대학 부설	(1,874)	(72)	3.8	(409)	21.8	(749)	40.0	(577)	30.8	(67)	3.6	52.1
	정부/지자체/ 공공 기관	(58)	(3)	5.2	(11)	19.0	(21)	36.2	(21)	36.2	(2)	3.4	53.4
	민간 및 사설 단체	(44)	(1)	2.3	(12)	27.3	(10)	22.7	(19)	43.2	(2)	4.5	55.1
	기타	(21)	(2)	9.5	(1)	4.8	(11)	52.4	(7)	33.3	(0)	0.0	52.4
성별	남자	(334)	(19)	5.7	(64)	19.2	(127)	38.0	(109)	32.6	(15)	4.5	52.8
	여자	(1,663)	(59)	3.5	(369)	22.2	(664)	39.9	(515)	31.0	(56)	3.4	52.1
연령	20대	(613)	(25)	4.1	(129)	21.0	(252)	41.1	(183)	29.9	(24)	3.9	52.1
	30대	(660)	(32)	4.8	(160)	24.2	(262)	39.7	(191)	28.9	(15)	2.3	49.9
	40대	(484)	(17)	3.5	(92)	19.0	(193)	39.9	(161)	33.3	(21)	4.3	54.0
	50대	(218)	(4)	1.8	(49)	22.5	(76)	34.9	(79)	36.2	(10)	4.6	54.8
	60대 이상	(22)	(0)	0.0	(3)	13.6	(8)	36.4	(10)	45.5	(1)	4.5	60.2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569)	(23)	4.0	(116)	20.4	(216)	38.0	(190)	33.4	(24)	4.2	53.3
	없음	(1,428)	(55)	3.9	(317)	22.2	(575)	40.3	(434)	30.4	(47)	3.3	51.8
한국어 교육 현장	있음	(793)	(29)	3.7	(196)	24.7	(298)	37.6	(239)	30.1	(31)	3.9	51.5
	없음	(1,204)	(49)	4.1	(237)	19.7	(493)	40.9	(385)	32.0	(40)	3.3	52.7
응답 구분	온라인 조사	(1,300)	(67)	5.2	(313)	24.1	(502)	38.6	(383)	29.5	(35)	2.7	50.1
	현장 조사	(697)	(11)	1.6	(120)	17.2	(289)	41.5	(241)	34.6	(36)	5.2	56.1

부록 5. 기관 대상 설문 통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기관 설문 조사 결과 분석

※통계 분석 : (주)Metrix

<표 1> 전체 응답자 특성

조사 현황		사례 수	비율
		(빈도)	%
전체		(47)	100.0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6)	34.0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53.2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기타	(6)	12.8
	있다	(40)	85.1
	없다	(7)	14.9

<표 2> 양성과정의 실제 중점 사항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		한국어 교육 현장 투입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7)	(16)	34.0	(25)	53.2	(6)	12.8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6)	(16)	100.0	(0)	0.0	(0)	0.0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0)	0.0	(25)	100.0	(0)	0.0
	기타	(6)	(0)	0.0	(0)	0.0	(6)	100.0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12)	30.0	(23)	57.5	(5)	12.5
	없다	(7)	(4)	57.1	(2)	28.6	(1)	14.3

<표 3> 학습 능력에 따른 적절한 구성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7)	(1)	2.1	-	-	(5)	10.6	(30)	63.8	(11)	23.4	76.6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	(16)	(1)	6.3	-	-	(3)	18.8	(9)	56.3	(3)	18.8	70.3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0)	0.0	-	-	(2)	8.0	(16)	64.0	(7)	28.0	80.0
	기타	(6)	(0)	0.0	-	-	(0)	0.0	(5)	83.3	(1)	16.7	79.2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1)	2.5	-	-	(4)	10.0	(25)	62.5	(10)	25.0	76.9
	없다	(7)	(0)	0.0	-	-	(1)	14.3	(5)	71.4	(1)	14.3	75.0

<표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프로그램 유무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있다		없다	
		(빈도)	(빈도)	%	(빈도)	%
전 체		(47)	(40)	85.1	(7)	14.9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6)	(12)	75.0	(4)	25.0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23)	92.0	(2)	8.0
	기타	(6)	(5)	83.3	(1)	16.7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40)	100.0	(0)	0.0
	없다	(7)	(0)	0.0	(7)	100.0

<표 5>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형태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0)	(1)	2.5	(37)	92.5	(2)	5.0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2)	(1)	8.3	(10)	83.3	(1)	8.3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3)	(0)	0.0	(22)	95.7	(1)	4.3
	기타	(5)	(0)	0.0	(5)	100.0	(0)	0.0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1)	2.5	(37)	92.5	(2)	5.0
	없다	—	—	—	—	—	—	—

<표 6> 한국어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 교과 내용의 적절성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7)	(2)	4.3	—	—	(7)	14.9	(17)	36.2	(21)	44.7	79.3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16)	(1)	6.3	—	—	(4)	25.0	(4)	25.0	(7)	43.8	75.0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0)	0.0	—	—	(3)	12.0	(11)	44.0	(11)	44.0	83.0
	기타	(6)	(1)	16.7	—	—	(0)	0.0	(2)	33.3	(3)	50.0	75.0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1)	2.5	—	—	(5)	12.5	(14)	35.0	(20)	50.0	82.5
	없다	(7)	(1)	14.3	—	—	(2)	28.6	(3)	42.9	(1)	14.3	60.7

<표 7> 강사 위촉 시 중점 사항(1순위)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추천		강사료		전문성		지명도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47)		(1)	2.1	(1)	2.1	(45)	95.7	-	-	-	-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6)		(1)	6.3	(0)	0.0	(15)	93.8	-	-	-	-
	시험 합격												
	한국어교육 현장	(25)		(0)	0.0	(1)	4.0	(24)	96.0	-	-	-	-
	투입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기타	(6)		(0)	0.0	(0)	0.0	(6)	100.0	-	-	-	-
	있다	(40)		(1)	2.5	(1)	2.5	(38)	95.0	-	-	-	-
		(7)		(0)	0.0	(0)	0.0	(7)	100.0	-	-	-	-

<표 8> 강사 위촉 시 중점 사항(1+2+3+4순위)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추천		강사료		전문성		지명도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7)		(47)	100.0	(38)	80.9	(47)	100.0	(47)	100.0	(9)	19.1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6)		(16)	100.0	(13)	81.3	(16)	100.0	(16)	100.0	(3)	18.8
	시험 합격												
	한국어교육 현장	(25)		(25)	100.0	(21)	84.0	(25)	100.0	(25)	100.0	(4)	16.0
	투입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기타	(6)		(6)	100.0	(4)	66.7	(6)	100.0	(6)	100.0	(2)	33.3
	있다	(40)		(40)	100.0	(31)	77.5	(40)	100.0	(40)	100.0	(9)	22.5
		(7)		(7)	100.0	(7)	100.0	(7)	100.0	(7)	100.0	(0)	0.0

<표 9> 강사의 시간당 강의로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3-4만원		5-6만원		7-8만원		9-10만원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7)		(11)	23.4	(13)	27.7	(8)	17.0	(9)	19.1	(6)	12.8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6)		(4)	25.0	(5)	31.3	(2)	12.5	(3)	18.8	(2)	12.5
	시험 합격												
	한국어교육 현장	(25)		(6)	24.0	(8)	32.0	(3)	12.0	(4)	16.0	(4)	16.0
	투입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기타	(6)		(1)	16.7	(0)	0.0	(3)	50.0	(2)	33.3	(0)	0.0
	있다	(40)		(8)	20.0	(12)	30.0	(7)	17.5	(8)	20.0	(5)	12.5
		(7)		(3)	42.9	(1)	14.3	(1)	14.3	(1)	14.3	(1)	14.3

<표 10> 기타 지역/국가에 양성과정 개설 여부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예		아니오	
		(빈도)	(빈도)	%	(빈도)	%
전 체		(47)	(11)	23.4	(36)	76.6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6)	(3)	18.8	(13)	81.3
	합격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7)	28.0	(18)	72.0
	기타	(6)	(1)	16.7	(5)	83.3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10)	25.0	(30)	75.0
	없다	(7)	(1)	14.3	(6)	85.7

<표 11> 수강생 사후 관리 여부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예		아니오	
		(빈도)	(빈도)	%	(빈도)	%
전 체		(47)	(40)	85.1	(7)	14.9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6)	(14)	87.5	(2)	12.5
	합격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21)	84.0	(4)	16.0
	기타	(6)	(5)	83.3	(1)	16.7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34)	85.0	(6)	15.0
	없다	(7)	(6)	85.7	(1)	14.3

<표 12> 실행하고 있는 사후 관리 형태(중복 응답)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한국어교육 능력시험 관련정보		양성과정 보수교육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관련 정보		한국어교원 채용 관련 정보		수료자 DB 관리		기타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0)	(32)	80.0	(10)	25.0	(25)	62.5	(28)	70.0	(19)	47.5	(8)	20.0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4)	(13)	92.9	(3)	21.4	(8)	57.1	(9)	64.3	(5)	35.7	(0)	0.0	
	합격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1)	(15)	71.4	(5)	23.8	(13)	61.9	(16)	76.2	(13)	61.9	(7)	33.3	
	기타	(5)	(4)	80.0	(2)	40.0	(4)	80.0	(3)	60.0	(1)	20.0	(1)	20.0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34)	(27)	79.4	(9)	26.5	(21)	61.8	(24)	70.6	(15)	44.1	(7)	20.6	
	없다	(6)	(5)	83.3	(1)	16.7	(4)	66.7	(4)	66.7	(4)	66.7	(1)	16.7	

<표 13> ‘필수이수학점/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7)	(2)	4.3	(10)	21.3	(16)	34.0	(15)	31.9	(4)	8.5	54.8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6)	(1)	6.3	(3)	18.8	(5)	31.3	(6)	37.5	(1)	6.3	54.7
	시험 합격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1)	4.0	(7)	28.0	(7)	28.0	(8)	32.0	(2)	8.0	53.0
	기타	(6)	(0)	0.0	(0)	0.0	(4)	66.7	(1)	16.7	(1)	16.7	62.5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2)	5.0	(8)	20.0	(13)	32.5	(13)	32.5	(4)	10.0	55.6
	없다	(7)	(0)	0.0	(2)	28.6	(3)	42.9	(2)	28.6	(0)	0.0	50.0

<표 14> 양성과정의 ‘최소한 운영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 그럴 필요가 없다		보통이다		그렇 그럴 필요가 있다		매우 그럴 필요가 있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7)	(1)	2.1	(4)	8.5	(3)	6.4	(35)	74.5	(4)	8.5	69.7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6)	(1)	6.3	(1)	6.3	(2)	12.5	(10)	62.5	(2)	12.5	67.2
	시험 합격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0)	0.0	(2)	8.0	(1)	4.0	(20)	80.0	(2)	8.0	72.0
	기타	(6)	(0)	0.0	(1)	16.7	(0)	0.0	(5)	83.3	(0)	0.0	66.7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1)	2.5	(3)	7.5	(3)	7.5	(29)	72.5	(4)	10.0	70.0
	없다	(7)	(0)	0.0	(1)	14.3	(0)	0.0	(6)	85.7	(0)	0.0	67.9

<표 15> 양성과정 개설 기관의 ‘자격 기준 명시’에 대한 의견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 그럴 필요가 없다		보통이다		그렇 그럴 필요가 있다		매우 그럴 필요가 있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7)	(1)	2.1	(2)	4.3	(5)	10.6	(28)	59.6	(11)	23.4	74.5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6)	(1)	6.3	(1)	6.3	(1)	6.3	(10)	62.5	(3)	18.8	70.3
	시험 합격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0)	0.0	(1)	4.0	(4)	16.0	(14)	56.0	(6)	24.0	75.0
	기타	(6)	(0)	0.0	(0)	0.0	(0)	0.0	(4)	66.7	(2)	33.3	83.3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1)	2.5	(1)	2.5	(5)	12.5	(22)	55.0	(11)	27.5	75.6
	없다	(7)	(0)	0.0	(1)	14.3	(0)	0.0	(6)	85.7	(0)	0.0	67.9

<표 16>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사전 심의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 세부별

조사 현황		사례 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보통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		매우 그럴 필요가 있다		평균 (100점)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47)	(1)	2.1	(5)	10.6	(9)	19.2	(24)	51.1	(8)	17.0	67.6
양성과정 중점 사항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	(16)	(1)	6.3	(2)	12.5	(4)	25.0	(5)	31.3	(4)	25.0	64.1
	한국어교육 현장 투입	(25)	(0)	0.0	(2)	8.0	(4)	16.0	(16)	64.0	(3)	12.0	70.0
	기타	(6)	(0)	0.0	(1)	16.7	(1)	16.7	(3)	50.0	(1)	16.7	66.7
한국어 프로그램 별도 운영	있다	(40)	(1)	2.5	(4)	10.0	(6)	15.0	(21)	52.5	(8)	20.0	69.4
	없다	(7)	(0)	0.0	(1)	14.3	(3)	42.9	(3)	42.9	(0)	0.0	57.1

부록 6. 양성과정 기관 목록

연번	범주	학교명/단체명	주관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누리집	비고
1	대학	강남대학교	국제어학교육원	031-275-424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5번지	http://builder.kangnam.ac.kr	
2	대학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	033-760-8231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901	http://psedu.wonju.ac.kr/	
3	대학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033-250-813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인문대학3호관 421호	http://kcc.kangwon.ac.kr	
4	대학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평생교육원	033-570-673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1	http://knu.kangwon.ac.kr/life	
5	대학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02-450-3076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http://kfli.konkuk.ac.kr	
6	대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언어교육원	043-840-3051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322 건국대학교	http://kji.kku.ac.kr	
7	대학	건양대학교	평생교육대학	041-730-5257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19번지(내동 26)	http://www.konyang.ac.kr/social	
8	대학	경동대학교	국제어학원	033-639-0189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91-1	http://nationalkor.k1.ac.kr/	
9	대학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053-950-7497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교수연구동 309-310호	http://knukorean.knu.ac.kr	
10	대학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055-751-6195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http://ckc.gnu.ac.kr	
11	대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02-961-0136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http://edu.khu.ac.kr	
12	대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교육원	031-201-359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http://global.khu.ac.kr	
13	대학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053-580-6353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http://intlicenter.knu.ac.kr	
14	대학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02-3290-2974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http://klcc.korea.ac.kr	
15	대학	공주대학교	한민족문화원	041-850-009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	http://hansaram.kongju.ac.kr	
16	대학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02-910-5803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861-1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	

17	대학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063-469-4927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대학로 1170번지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http://lang.kunsan.ac.kr	
18	대학	단국대학교	국제어학원	031-8005-26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412호 국제어학원 교학과	http://k2.dankook.ac.kr/user/ldku	
19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어학교육센터	053-850-376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		
20	대학	대불대학교	평생교육원	061-469-1125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72번지	http://life.daebul.ac.kr/	
21	대학	대진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042-280-2767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http://www.dju.kr	
22	대학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국제화추진단	02-2260-3472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http://iie.dongguk.edu	
23	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제교류교육원	054-770-2882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http://iiae.dongguk.ac.kr	
24	대학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051-200-718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840번지 인문대 1113호	http://kor.donga.ac.kr	
25	대학	동의대학교	외국어교육원	051-890-177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http://language.deu.ac.kr	
26	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 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02-379-0004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18-18	http://language.scau.ac.kr	온라인 강의
27	사설기관	마이한글닷컴		02-993-9418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3-2 EQ빌딩 806호	http://www.myhangul.com	온라인 강의(경희대 국제교육원 공동운영)
28	대학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051-510-198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501호 행정실	http://ili.pusan.ac.kr	
29	사설기관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051-503-7268	부산광역시 동래구 은천3동 1442-1	http://www.womancenter.or.kr/root/index.asp	
30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051-640-3384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교육지원실	http://klce.pufs.ac.kr	
31	대학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02-2287-713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8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401호 행정실	http://cklc.smu.ac.kr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

32	대학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02-713-7891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아루페관 7층	http://klec.sogang.ac.kr	
33	대학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02-3475-231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 서울교대 평생교육원 (에듀웰센터 111호)	http://edu.snue.ac.kr/home/koreanho pcenter	
34	대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02-880-768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로 599 교육정보관 10-1동 312A	http://kfl.snu.ac.kr	
35	대학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02-880-8570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137-1동 101호	http://lei.snu.ac.kr	
36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민대학 (평생교육원)	02-3785-2121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13 (전농동 90)	http://edu.uos.ac.kr	
37	대학	서울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032-340-92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01 서울신학대학교	http://sce.stu.ac.kr	
38	대학	서울외국어대학원대 학교	국제센터	02-2182-6014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7-7	http://www.ken09.co.kr	
39	대학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041-559-133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381-7	http://kli.sunmoon.ac.kr, http://cafe.daum.net/edu4koreacher	-
40	대학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02-760-1223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53번지 성균관대 성균어학원	http://www.skku.edu/sli	
41	대학	성신여자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02-920-7302	서울시 성북구 돈선동 3가 249-1	http://www.sungshin.ac.kr/slc	
42	대학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02-710-9818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52 사회교육관 206호	http://www.lingua-express.com	
43	대학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041-530-3009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	http://lec.sch.ac.kr	
44	대학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051-999-5755	부산광역시 사상구 패법동 산1-1번지 신라대학교 국제교육관 401호 한국어교육센터 사무실	http://www.slklec.kr	
45	대학	이주대학교	한국어학당	031-219-45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http://www.wold.ajou.ac.kr/~afl/kor_s/	
46	대학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02-2123-8552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연세대학교	http://www.ysitkli.com	

47	대학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053-810-356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206호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http://ccrk.yu.ac.kr	
48	대학	영동대학교	사회교육원	043-740-1312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2-1	http://education.youngdong.ac.kr	
49	대학	우석대학교	한국어교육원	063-290-128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http://kcenter.webzero.kr/xe/	
50	대학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052-259-1911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02 남울산우체국 사서함 18호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uoukorean.ulsan.ac.kr/ulsan/home/	
51	대학	원광보건대학	국제교류센터	063-840-1521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	
52	대학	위덕대학교	어학교육원	054-760-174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	http://lang.uu.ac.kr/	
53	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02-3277-3183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http://elc.ewha.ac.kr	
54	대학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055-320-3977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607번지 본관 6층 603호	http://home.inje.ac.kr/~ckdc/	
55	공공기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032-899-1524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73번지	http://www.ilec.go.kr/	
56	대학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032-860-8293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http://conedu.inha.ac.kr	
57	대학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062-530-3648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33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http://language.jnu.ac.kr	
58	대학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063-270-2454-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http://lec.chonbuk.ac.kr	
59	대학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	063-220-3096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3가 1200번지 전주대학교 교수연구동 802호	http://korean.jj.ac.kr	
60	대학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062-230-6522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http://lei.chosun.ac.kr	
61	대학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원	055-213-2636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86호관 국제교류원 행정실	http://ia.changwon.ac.kr	
62	대학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29-83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번지 인문대학 206호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http://www.koreanlab.or.kr	
63	대학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043-229-877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번지	http://www.cju.ac.kr/education/	
64	사설기관	청출어람		02-424-7622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67-7 상지빌딩 6층	http://한국어.kr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

65	대학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교육원	042-821-524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 220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359호	http://ksl.cnu.ac.kr	
66	대학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042-821-527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 220번지	http://lifelong.cnu.ac.kr	
67	대학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043-261-2076	충청북도 청주시 성봉로 410번지	http://lifelong.cbnu.ac.kr	
68	대학	평택대학교	평생교육원	031-659-8486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번지 평택대학교	http://home.ptu.ac.kr/~edu/	
69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02-3668-4434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	http://cle.knou.ac.kr	온라인 강의
70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02-2173-2259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http://www.hufs.ac.kr/hufskorean	
71	대학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042-629-8148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http://hankds.hnu.kr	
72	대학	한림대학교	국제교육원	033-248-2997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http://www.klec.or.kr	
73	대학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	042-821-16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6-1	http://lec.hanbat.ac.kr	
74	대학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041-660-1404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번지	http://home.hanseo.ac.kr/edulife/	
75	대학	한일장신대학교	평생교육원	063-230-5481	전라북도 원주군 상관면 신리 694-1	-	
76	대학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070-8299-6634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	http://www.hangeulsam.com	
77	대학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02-320-1363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번지 국제교육관(V동) 303호	http://huniv.hongik.ac.kr/~korean/	
78	사설기관	IOA평생교육원		02-964-8146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4 미주상가 A동 5층	http://www.ioacce.or.kr	

국립국어원 2009-01-75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169-0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

발 행 인 권 재 일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 화 : 02-2669-9672 팩스 : 02-2669-9747

인 쇄 일 2009년 12월

발 행 일 2009년 12월